



9

주체98(2009)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8(2009)년 제9호

(루계 제 743 호)

차 례

조선.....	3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4
고요속의 《전투》	4
주체문학의 대강	5
가을날의 미소	5
조국과 뿌리	5
강의한 의지와 필승의 신념으로.....	6
제일명산 금강산	6
어머님 추억	7
봄하늘.....	8
어머님의 눈빛앞에	20
형용.....	20
소백수물소리 외 1 편	21
언어형상과 작가의 얼굴	22
유전자지문	25
날보고 위성쳐녀래요	26

진아, 물을 주러 나가자	27
《록색》 CD 제조	27
가요 《내가 지켜선 조국》의 심오한 형상세계	28
불굴의 정신력을 지닌 시대의 전형들의 감명깊은 형상	30
미래가 보이는 언덕에서	33
가장 획기적인 10 대과학기술	37
세계적인 대문호 백인준의 현실체험과 창작	38
공화국의 첫 여성영웅이 발휘한 불굴의 정신력을 감명깊게 보여준 예술적형상	39
《나는 작가이니까요.》	42
조국과 인생	43
세월은 흘러도	44
미루벌의 새 물길	58
출강의 순간 외 1 편	59
그는 군관의 딸이었다	60
언제	68
고향의 모습	70
금잔디밭에서	72
잠들수 없는 밤	73
의병장 류린석과 그의 반일애국시가	75
17-18 세기 고전단편소설에서 반침략애국주의정신을 체현한 인물형상	76
시인 김조규와 산문시 《전선주》	78

조 선

정 서 촌

너의 가슴엔 칼날이 꽃혀있었고
너의 몸에선 더운 피가 흘러내렸다
해도 달도 별도 뜨지 않고
철이 되어도 꽃은 피지 않았다

숨막히던 삼천리강산
반만년력사에서 가장 암담하던
그 수난의 날에
조선아 너는
위대한 아들을 세상에 낳았다

설한풍 사나운 밤이면
가난한 아래목에 잠을 재우며
가물거리는 등잔밑에서
구슬픈 조선의 노래를 너는 불렀다

열네살에 아들은 집을 떠나
두렵게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넜다
너무도 일찌기 빼앗긴 조국의 아픔을 안고...
그때 너는 두켤레의 짚신을 보짐에 싸며
피같은 눈물로 아들의 손등을 적시였다

그 손에 무거운 총을 쥐고
그 짚신에 든든히 감발을 하고
세상에 아직 그 누구도 걸어보지 않은
하늘땅 울부짖는 만고의 밀림속으로
장군님께서서는 대렬을 이끌고 걸어가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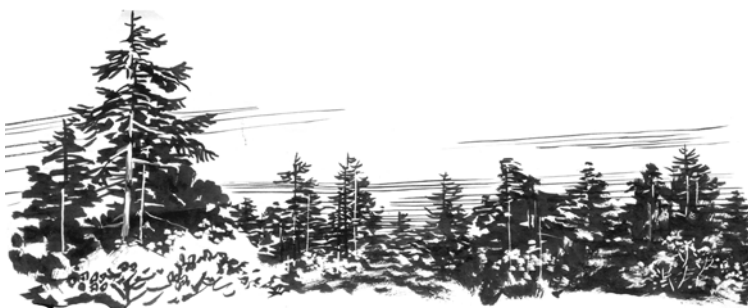
쓰러지며 부축하며 다시 일어서
바위돌에 칼을 갈아 날을 세워
원췌의 정수리에 번개를 칠 때
조선아 너의 심장엔 피가 뛰었고
너의 머리우엔 러명이 비껴왔다

너의 땅밑엔 생명의 씨앗이 자랐고
너의 모든 강줄기와 사나운 여울물은
두터운 얼음장을 깨뜨리며 들부시며
광광 바다를 향해 도도히 굽이쳐흘렀다

아 너는 뜨거운 눈물을 씻으며
장강을 건너 다시 돌아온 아들을 맞이했거니
오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가장 영광스러운 땅에
너는 솟아있구나 금빛옷자락 너울거리며

조선아 자유의 강산아
준엄한 수난을 겪던 암담하던 그날
가난한 초가집 낮은 지붕아래
네가 낳은 위대한 아들은
폭풍을 안고 백두령봉에 거연히 서서
밝은 해와 아름다운 별을 너의 머리우에
없어주었다

주체54(1965)년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 속에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나라가 망하면 산천도 사람도 결코 편안할수가 없다. 망한 나라의 지붕밑에서는 나라를 판 값으로 호의호식하는 매국노들도 발편자를 지지 못하는 법이다. 사람은 설사 살아 있어도 상가 집 개만 못하고 산천은 설사 지경이 남아 있어도 제 모습을 보존하기 어렵다.》

《사람이 한생을 살아 가느라면 별의별 설움을 다 겪기마련이다. 그러나 그 모든 설움가운데서도 가장 큰 설움은 나라를 잃은 슬픔이며 망국노가 되어 조국을 떠나는 슬픔이다. 고향을 떠나는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해도 조국을 하직할 때의 비감에는 견주지 못한다. 고향을 친어머니에 비기고 라향을 이붓어머니라고 한다면 그 라향보다 몇곱절 더 생소한 이국은 무엇에 비길것인가.》

혁명전설

고요속의 《전투》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수많은 혁명전설을 낳았다. 그중에는 숨막히는 고요속에서 진행된 《전투》이야기도 있다.

고난의 행군시기였다.

어느날 가재수마율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자그마한 야산에서 휴식하고있던 사령부대오는 뜻밖의 일로 하여 지체없이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곧 대오에 행군명령을 내리시었다.

행군명령이 떨어지자 한 지휘관이 이제 행군을 시작하면 적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불질을 하겠는데 대낮에 벌판을 돌파해낼수 있겠는가고 은근히 걱정하였다.

일리가 있었다.

사령부대오가 안전한 수림지대에 들어서자면 무연한 벌판을 통과해야 하였다.

그런데 대오가 벌판에 들어서면 가재수마율의 포대에 주둔하고있던 적들에게 드러나게 될것은 뻔하였다.

적은 역량으로 그것도 불리한 상태에서 적들과 치르어야 할 전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것으로 하여 지휘관의 걱정은 더더욱 컸다.

사실 사령부대오는 얼마 되지 않았다. 게다가 부상자도 여러명 있어 역량이 조금만 더 줄어들면 보초교대도 힘든 형편이었다.

지휘관은 이 일을 두고 걱정하고있었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태도는 여유작작하시였다.

적들의 기본주력이 《토벌》에 내몰리였기때문에 마을에는 적의 역량이 얼마 되지 않을것이라는것, 사령부대오가 기세를 올리면서 벌판을 통과하면 적들이 그 기세에 압도되어 감히 덤벼들 엄두를 내지 못할것이라는것이 그때 우리 수령님의 마음속 생각이였다.

그이께서는 그 지휘관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어떻게 하건 어떻게 하겠는가, 앞뒤에 기관총을 한정씩 세우고 적이 앞으로 오면 앞으로 쏘고 뒤에서 오면 뒤에서 쏘면서 행군하면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사령부대오는 대낮에 무연한 벌판을 강행돌파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예언하신대로 사령부대오를 발견하고 불질을 할것이라고 생각했던 적들이 침묵을 지키고있는것이였다. 적들은 불질은커녕 재채기소리도 내지 못하고 포대에서 사령부대오를 뵈히 내려다보기만 하였다.

사령부대오가 벌판을 무사히 통과하는 동안 고요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적아간에는 말없는 머리싸움이 계속되었다. 그 싸움은 계속되는 고요를 더욱 무겁게 하였으며 고요속의 《전투》로 이어졌다.

또 한차례의 《전투》를 승리로 끝내고 안전한 수림지대에 들어선 대원들속에서는 환성이 터져올랐다.

고요속의 《전투》승리, 그것은 우리 수령님의 담력과 배짱의 승리인 동시에 무슨 일이든지 대담하게 전개하면 극복 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다는 위대한 철리의 일대 파시였다.

고요속의 《전투》이야기를 전해들은 가재수마율인민들은 적들이 최면술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불질을 하지 않았겠는가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흠모하고 칭송하였다.

그후 이 이야기는 위대한 수령님은 하늘이 낸 위인이시라는 전설로 굳어져 인민들속에 널리 전해지게 되었다.

김 동 철

주 체 문 학 의 대 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조국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것은 사람들이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조국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삶과 행복의 요람이며 조국이 없이는 참다운 삶과 행복을 누릴수 없다는것과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근로인민 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과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을 보장하여주는 진정한 인민의 조국이라는것을 잘 형상하여야 합니다.》

가 을 날 의 미 소

김재원

땅에 실린 나락이
하늘에도 비졌는가
들이 웃으니 하늘이 마주웃는
가을날의 이 아침

아득히 설레이는 풍요한 들길로
승용차 한대 서서히 달려라
알찬 이삭 향기 바람에 실려
차창에 스치는듯...

차안에 계시는 아버지수령님
생각에 잠기시여라
따라서며 마주오며
금풍에 일렁이는 나락들을 보시며

봄날에 들에 피던 아지랑이
흰구름되어 창공에 날고
봄날에 피었던 꽃들
빨갭게 열매를 익혀라

땅이 겨웁도록 흥치는 벼이삭
산비탈에 스적이는 강냉이이삭
가까이 손을 대이면 쏟아질듯
가지마다 주렁진 과일들

산에 들에 실린 가을 정경이 보시며

수령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여라
농민들의 기쁨에 젖으시여
농민들의 행복에 잠기시여

가을이여라 기쁨이여라
이슬비 함박눈 다 맞으시며
이끌어주시고 안아주신 그 사랑
이삭이 되어 설레이는 조선의 가을이여라

오 하늘땅에 넘쳐나는 그 모든 기쁨
그이의 안팎에 어리어 빛나는가
이 가을날에 그러히도 밝게
환히 웃으시는 그이의 미소여!

들이 웃으니
하늘이 마주웃어라
이해의 가을이
우리 수령님 따라 한껏 웃어라

하늘땅이 맛닿은듯 가없이 넓은
풍요한 들로 한줄기 빛을 그으시며
이 아침 그이 타신 승용차
조선의 가을을 싣고 달리여라!

주체63(1974)년 10월

가 사 조 국 과 뿌 리

리명근

아름드리 무성한 한그루나무
너는 어이 광풍에 끄떡없느냐
땅속깊이 뻗어간 억센 뿌리가
너를 굳게 받든줄 어이 모르랴
아 내 삶도 뿌리 너처럼
어머니조국을 받들어가리
땅속깊이 뿌리는 볼수 없어도
바쳐가는 그 진정 어이 모르랴
아지 펴고 푸른 잎 무성할수록

뿌리의 귀중함 알수 있구나
아 내 삶도 뿌리 너처럼
어머니조국을 받들어가리

키솟구며 나무가 더욱 클수록
땅속으로 뿌리는 더 깊어지네
온 누리에 조국이 더욱 빛나게
뿌리되어 값높이 나는 살리라
아 내 삶도 뿌리 너처럼
어머니조국을 받들어가리

강의한 의지와 필승의 신념으로

혁명과 건설의 전환적시기마다 드세찬 공격전
으로 승리 펼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입니다.

주체69(1980)년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100일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선로동당 제
6차대회를 높은 로력적성파로 성대히 기념하도
록 하시었다.

100일전투가 시작되어 첫달전투가 끝났을 때
였다.

어느날 각 도들에 파견되었던 일군들을 만나
신 자리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100일전투
의 첫달총화를 실무적으로 그저 성과만 지적하
는 식으로 하지 말고 실속있게 진행할데 대하여
서와 앞으로의 승리를 위한 참으로 귀중한 가르
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신께서도 어려운 과업이 제기될 때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에 끝
없이 충실하였던 인민군용사들의 투쟁모습을 그
려보곤 하는데 우리 일군들이 지난 조국해방전
쟁시기 인민군용사들이 발휘한 투쟁정신으로 일
하면 100일전투의 높은 고지를 능히 점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때 우리의 인민군수송전사들은 달도 없
는 야밤에 포탄을 실은 자동차를 몰고 안변벌
을 지나 신고산에 이르러 철령을 쳐다보면서 처
음에는 저 험한 령을 넘을수 있겠는가 걱정
하였다.

적비행기까지 달려들어 조명탄을 쏘고 도로
를 살살이 뒤흔들면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기총사격을
하는 불비속으로 차를 몰고 철령을 넘는다는것

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전투임무를 무조건 수행
하여야 한다는 한가지 생각만 가지고 불비속을
헤치며 험한 령을 넘어 전선에 포탄을 공급함으
로써 전투승리를 보장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일군들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용
사들이 보여준 일본새로 일하면 100일전투의
높은 고지를 능히 점령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
렇게 말씀하시었다.

100일전투의 고지를 점령하는것이 아무리 어
렵다 하여도 자동차를 몰고 적탄이 비발치는 철
령을 넘나들던것보다 더 어렵겠는가. 철령을 넘
나들던 인민군용사들이 지녔던 그런 강의한 의
지와 필승의 신념만 가지면 점령 못할 고지란
없다. 우리 일군들이 100일전투의 앞장에 서서
전투지휘를 짜고들고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
대한으로 찾아냄으로써 전투에서 승리자가 되어
야 한다. ...

강의한 의지와 필승의 신념으로 승리자가
되자!

어느덧 근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하신 그날의
말씀은 불굴의 정신력으로 전투장들마다에서 혁
신의 불바람을 일으켜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
민의 가슴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더욱 북돋아
주고있다.

백 영 미

가 사

제 일 명 산 금 강 산

문 동 식

동해의 아침해도 여기 먼저 빛을 없어
일만이천봉이들도 웃음발을 날리는가
해금강의 푸른 물도 얼싸안고싶어선가
설레이며 달려와 은구슬을 휘뿌리네

비로봉의 흰안개도 춤가락을 펼치는가
구룡연의 폭포소린 명승가를 더치는가

천하절경 하도 좋아 온갖 새 노래하는
우리 사랑 금강산은 세계의 명산일세

산악경치 호수경치 바다경치 다 갖추고
선군의 이 세월에 빛을 뿜는 제일강산
세상에 둘도 없는 선경속에 사는 행복
애국의 심장 바쳐 우리 조선 펼쳐가세

어머님 추억

— 김정숙어머님 서거 60돐에 드린다 —

렘 형 미

기쁜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제일 먼저 나에게 찾아오는
어머님 모습

봄바람 살포이 내 얼굴 쓰다듬듯
꽃향기 그윽히 가슴에 스며들듯
어머님을 생각할 때면
한없이 깨끗해지고 정갈해지고
애뜻해지는 내 마음 내 눈빛

한번도 몸가까이 뵈온적은 없어도
어머님을 떠난 내 생의 추억은
한갈피도 없으랴
소녀시절도 처녀시절도
어머니 된 지금에도...

군복입은 어머님의
정겨운 미소는
내 생의 숨결이고 열정이고
샘솟는 웃음인듯

가정에서 일터에서
때로 힘든 일 막아설 때면
우렁치 떠오르는 뚝는 죽가마...
머리위에 짜악 틀어쥐고 총탄속을 누벼가던
그 불덩이가마를 생각하면
못해낼것 없는 용기와 신심

준엄한 시련의 그 나날
봉쇄의 잔혹한 겨울날에도
이 나라 녀인들의 사랑 얼지 않았던것은
아마도 그 뜨거운 죽가마가
심장마다에 뚫었기때문이 아닐가

락원의 이 강산에 행복이 물결쳐올수록
아 더더욱 그리운 어머님
산원의 보석홀에 들어설 때도
전기밥가마 세탁기를 쓸 때에도
찌릿한 눈곱속에 떠오르는 어머님

녀성이 가장 비천하던
수난의 시대에 탄생하시여

자신의 한몸을 화불로 활활 태워
녀성의 운명타를 바꿔놓으시고
이 땅의 모든 행복 우리에게 주신 김정숙어머님

자나깨나 어머님을 생각하며
순간순간 불타며 고동치는 나의 심장
어머님에게서 배웠으랴
녀성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녀성의 아름다움은
정신미! 헌신미! 사랑미!
그것을 지닐 때 녀성은 부드럽고
자그마한 몸
강철의 의지와 화산의 정을 품은
가장 뜨겁고 억세인 사랑의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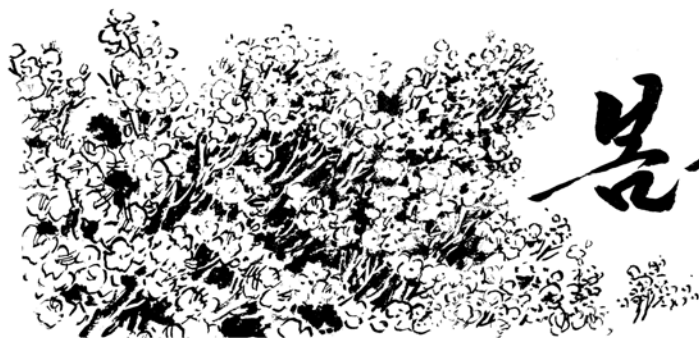
총을 녀인에게
제일 아름다운 재부로 간직하신
백두산의 녀장군
바로 그 품이 안아올린 태양이어서
우리 장군님 불세출의 선군령장 아니시던가

아 총대를 떠난 모성에
애국을 떠난 사사로운 정
한생애 단 한번도 없으셨기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어머니가 되신
김정숙어머님!

키우리라 사랑하는 자식들을
애정의 작은 치마폭이 아닌
조국의 대지 드넓은 하늘에 싸안아
선군시대 총대병사로 키우리라

어머님의 숨결로 자라고
어머님의 웃음으로 사랑하고
어머님의 신념으로 투쟁하는 이 땅의 녀인들에게
조국과 제일 가까운 녀인의 지름길을
빛나는 생으로 가르쳐주시는 김정숙어머님

아 어머님 추억은
내 삶의 태엽
한생을 어머님만 따르며 닦고싶은
아름다운 추억속에
내 심장의 초침소리 순간도 멎지 않으리



봄하늘

동 의 희

1

기차는 쉬임없이 달리고있었다.
차창가에 자리를 잡은 김로인은 이윽도록 밖을
내다보고있었다.

무연한 벌이 보인다.

보탑을 잡은 농군이 소잔등을 후려갈기는 모습
이 자못 흥그럽게 안겨온다.

《이라 낚길...》 호기스러운 목소리도 들려
오는듯...

최뚝너머 등판엔 파랗게 자란 밀보리가 파도치
듯 설레인다. 완전한 봄이다.

김로인의 입가에는 느슨한 미소가 피어났다.

어느덧 벌이 끝나고 밋밋한 산밭들이 시작된다.
푸릿푸릿한 봄물이 안개처럼 흐르는 골짜기들이
연줄연줄 이어지었다. 소나무숲이 보이는가 하
면 우뚝 절벽이 나타나기도 했다. 절벽사이로 파
란 띠처럼 선명한 물줄기가 보인다.

김로인은 문득 바위틈 여기저기 박힌 분홍색점
들에 눈길을 멈추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갓 피
기 시작한 진달래였다.

그 진달래를 보느라니 무작정 반가운 생각이 들
었다.

재작년 겨울 김일성장군님택에서 보았던 진달래
가 눈앞으로 다가오는듯 했다.

그 진달래에도 저렇게 예쁜 꽃잎이 피어났겠구나.

기차는 우중충한 골짜기로 질주하는데도 김로인의
눈앞에서는 정원의 진달래가 계속 얼른거리었다.

그럴수밖에. 김로인은 지금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를 찾아가는 길이다.

김로인은 차창가에서 물러나 자리에 앉았다. 이
젠 절벽가의 분홍색진달래꽃이 보이지 않았다. 하
지만 방금 보았던 아름다운 진달래꽃은 김로인의
생각을 그리운 저택의 정원으로 이끌고 날아갔다.

...

그날은 겨울날씨같이 얇게 퍼그나 푸근했었다.
김로인이 쌀가마니를 실은 달구지를 끌고 장군님
저택으로 갔을 때였다.

《로인님, 그 먼길을 오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었습니까?》

반겨맞는 녀인의 목소리가 가슴에 포근히 안겨
들었다.

환하신 얼굴에 함뿍 미소를 담은 젊은 녀인이
다가오시었다. 현숙해보이는 부인이시였다.

이미 장군님께서 걸어오신 전화를 받고 로인을
기다리시던 김정숙녀사이시였다. 하지만 소박한 옷
차림을 하신 이분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이
심을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김로인은 그저 그 밝은
미소에 이제까지의 피곤이 순간에 다 날아나는듯
한 상쾌함을 느끼며 병실이 따라웃기만 했다.

(이 부인은 장군님택에서 일을 보시는분이신 모
양이군.)

《올해농사가 잘되었습니까?》

《예, 정말 잘되었습니다.》

김로인은 한없는 신뢰와 존경심이 살아나 황소
의 잔등을 끌어주는 그이를 우러렀다.

《소가 든든하게 생겼군요. 몇살이나 먹었는
가요?》

《올해 여섯살입니다. 그러고보면 이 늙은이
보다 네살이나 더 먹은셈이지요. 저야 해방된 해
까지 하면 겨우 두살 잡힌거나 같으니까요. 해방
전에야 어디 사람값에나 간 목숨이외까?》

김로인은 허구튼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젓히었
다. 그 지긋지긋한 세월속에 자기의 한생이 다 묻
혀있다고 생각하니 허무하기짝이 없었다.

이제라도 해방된 이 세상에서 모든것을 다시 시
작해보고싶은것이 김로인의 욕심이다. 그래서 누
구에게나 자기의 나이를 말하느라하면 해방된 해로
부터 세는데 습관되었다.

녀사께서 김로인의 복두갈구리같은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었다.

《그 험한 세월에 정말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녀사의 맑은 눈동자에 물기가 어려진다.

김로인은 그만 목이 메여왔다. 이제까지 한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살뜰한 위로를 해주신분이 그
언제 있었던가? 지나가는 길에라도 동정 한번 받
아본 일이 없다. 오히려 길가의 막돌처럼 이리저
리 차굴리우던 인생이 아니었던가?

김로인은 떨려나는 눈시울을 어찌지 못하고 끝내 고개를 떨구었다.

눈안에 키낮은 떨기나무들이 비쳐들어왔다. 그것은 갓 떠다심은 진달래였다.

언뜻 산에서 흔하게 자라는 진달래인데 왜 여기에까지 떠다심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로인의 의아한 눈길을 느끼신듯 녀사께서는 그옥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이번에 새로 떠다심은 진달래예요. 우리가 장군님을 모시고 조국진군의 길에 올랐을 때 제일먼저 맞아준것이 바로 진달래였어요. 언덕우에 피어난 조국의 진달래를 보니 어찌나 감격스럽던지, 모두 꽃을 그러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의 일을 잊을수가 없어요.》
(아하!)

그제야 김로인은 깨도가 되어 고개를 끄덕이었다. 첫눈에도 다르다 했더니 다름아니라 장군님을 모시고 싸우신 녀대원이라니 보통사람과 같을리 없었다.

김로인은 새삼스러운 눈길로 진달래를 쳐다보았다. 이 정원에 떠다옮기고 정성들여 가꾸시는 그 마음이 헤아려져 진달래가 더없이 소중하게 여겨졌다. 이제부터는 이른봄에 제일먼저 피는 진달래를 무심히 볼것 같지 않았다.

이윽고 김로인은 달구지에서 쌀가마니를 내리우기 시작하였다.

녀사께서 얼른 두손으로 쌀가마니를 맞잡으시었다. 《그만 두십시오.》 김로인은 그이께서 잡으실새도 없게 하느라 한아름에 덩석 쌀가마니를 그러안았다.

그러나 벌써 녀사께서는 가마니귀를 두손에 잡으시고 힘을 주신다.

치마허리를 가튼하게 동이시고 기민하게 움직이시었다.

역시 장군님댁에서 일을 보시는 빨찌산출신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쌀가마니를 다 옮겨놓은 다음 김로인은 녀사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다.

《로인님, 어서 편히 좀 앉으십시오. 여기 담배도 있습니다.》

녀사께서는 방석을 깔아놓고는 재털이와 담배곽을 내놓으시었다.

《담배는 저에게도 있습니다.》

김로인은 안주머니에서 담배곽을 꺼내었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랑하기 위해서였다.

《이 담배는 아까 저를 만나주신 장군님께서 직접 주신겁니다.》

《그렇습니까?》

녀사께서는 눈빛을 빛내이시며 김로인을 바라보시었다.

《장군님께서 담배불도 친히 켜주시며 집안형

편이며 농사짓던 이야기랑 허물없이 들어주시었습니다.》

김로인은 장군님앞에서처럼 그이께 로친과 외동딸 이야기까지 또 늘어놓았다. 그러다가 장군님께서 주신 이 담배를 재령에 가서 자랑해야겠다면서 담배곽을 정히 쓸어보고는 안주머니에 간수하였다.

《그러게 이걸 피워보세요.》

녀사께서 얼른 새 담배곽을 내놓으시며 권하시고는 성냥불을 켜시었다. 미처 사양할 사이도 없었다.

담배맛은 아까처럼 별로 구수했다.

녀사께서는 다정히 마주 앉으시여 집안식구들에 대해서와 해방전에 살아온 일까지 다 물어주시었다.

녀사의 다심하신 마음에 끌린 김로인은 가슴속에 얹혀있던 사연들을 터놓았다.

《해방전야야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었지요. 뭐가 있었겠소. 어렸을 땐 밭한 버섯같이 찌그러진 오막살이에서 어머니와 우리 네 형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랄가, 우리 집앞에는 살구나무 한그루가 있었지요. 우리 고장에 대추나무는 꽤 있었지만 살구나무는 흔치 않았습다. 우리 집에 살구꽃이 필 때면 이집저집에서 많이들 오군 했습니다. 살구꽃을 넣고 지진 화전을 먹으면 그해 병이 안 걸린다는거지요. 그러던 어느해였습다. 어렸을 때인데... 그해파라 꽃이 많이 피어나 동리에서 화전 지지는 집도 하나둘 늘어났지요. 허나 실제로 꽃이 있는 우리 집만은 여전히 잠잠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든 기름덩이를 얻어다 화전을 지저주겠다고 우리와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를 날이 지나 꽃이 다 떨어질 때까지 어머니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풀죽도 먹기 힘든 우리 집인데 쌀가루 넣고 기름발라 지지는 화전을 생각이나 할수 있는가요?》

철없는 동생들도 어머니에게 더는 조르지 않고 살구알이 익기만 기다리였습다. 우리 집안의 희망은 살구알에 있었습다.

그러던 어느날 우리 집에 안경쟁이왜놈과 마을구장이 나타났지요. 그놈은 우리 집 살구를 보자 손벽까지 치며 좋아하더군요. 살구를 꽤나 좋아하는놈이었던가 봅니다. 우리 형제들은 기뻐했습니다. 그 안경쟁이가 우리 살구를 다 사가면 희망대로 신발도 쌀도 다 생기게 될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수? 글썽 그 왜놈이 제것이나 되는것처럼 살구나무밑에 새끼줄 올라리를 치게 하고 한알도 다치지 못하게 하지 않겠수. 제놈의 땅에 있는 제 살구나무라는거지요. 정말 망할놈의 세상, 왜놈의 세상이었습다. 아무리 철없던때라고 해도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그길로 곧장 살구나무에 올라가 흔들어댔지요. 우리 살구인데 왜 고스란히 왜놈에게 뺏길테냐 하고 말입니다. 그날로 우리 집은 결판이 났습다. 집도 살구도 다 뺏기고 형제들

은 뿔뿔이 헤쳐졌습니다. 지금도 서로 찾고 부르며 몸부림치던 그때를 생각하면…》

김로인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던 동생들이 떠올라 목이 껍 메여왔다. 당장 쓰러질듯 휘청거리던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을 흐리게 했다.

《그때 헤어진 어머니는 다시 못 만났습니다.》

녀사께서는 저고리고름으로 눈길을 누르시고 김로인을 바라보시었다.

《로인님, 이제는 나라가 해방되었으니 그런 가슴아픈 일이 다시는 없을겁니다.》

그چه야 김로인은 혀를 깨물었다.

시종 따뜻한 미소가 어려있던 그이의 눈가가 자기 때문에 흐려졌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옥죄여들었다.

그는 험한 목소리로 일른 대답올렸다.

《그럼요. 아까 장군님께서두 이 늙은이의 손을 잡으시고 나라가 해방되었으니 좋은 일만 생길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건국사업에서 제일 중요한건 농사를 잘 짓는것이라고 가르쳐주시었습니다. 장군님께서 이 늙은이의 소행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시며 애국미를 가장 요긴한데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장군님께서 요긴하게 쓰실데가 무엇일고 하고 생각하는 이 가슴이 어떠했겠습니까?》

김로인은 잠시 주춤했다. 이때까지 이렇게 말을 많이 한적이 없었다. 집안에서도 동리에서도 《똑한 평감》으로 알려진 그였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 뵈옵는 그이앞에서 샘솟듯 말이 이어진다.

김로인은 또다시 장군님을 뵈옵던 감격이 살아나며 눈물이 글썽해지었다.

《아, 글썽 장군님께서 그 애국미를 해방된 내 나라에서 처음으로 내온 종합대학교사를 짓는데 쓰시겠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건국사업에서 인재를 키우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말입네다. 제 작은 소행을 그렇게 크게 써주시니 더 바랄게 없네다.》

김로인은 감개무량하여 습새어나오는 눈물을 소매끝으로 훔쳐냈다.

《로인님, 정말 고맙습니다.》

녀사의 사려깊으신 눈가에 물기가 어린듯싶으시었다.

녀사께서는 로인의 손을 자신의 두손으로 싸쥐시고 말씀하시었다.

《얼마전에 종합대학이 첫 개교식을 했답니다. 앞으로 새 대학교사도 짓고 할일도 많은데 로인님께서 신고오신 애국미를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내오는 대학교사를 짓는데 쓰게 되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녀사의 얼굴에 아까처럼 미소가 피어나시었다.

(어쩌면 이리도 다심하실가. 정말이지 장군님을 모시고 싸우신분이 다르구나.)

김로인의 가슴은 해토무렵의 땅처럼 부풀어났다.

《우리 고장 농민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너도나도 애국미헌납운동에 떨쳐나설겁니다. 어서 돌아가서 이 희한한 소식을 알려주어야 하겠습니까.》

그이께서 차려주신 식사까지 끝낸 김로인은 부랴부랴 돌아갈 차비를 서둘렀다.

그사이 배를 불리운 황소도 고분고분 끌려와 달구지를 멘다.

달구지채를 잡고 돌아서려던 김로인은 문득 굳어지었다. 가슴속에 연추라도 매달린것처럼 무거워났다.

애국미를 신고 평양까지 와서 장군님을 만나뵈온 꿈같은 영광을 지니었다. 자기가 신고온 그 쌀을 대학교사를 짓는데 쓴다니 자랑스럽기 그지없다.

했건만 더할나위없이 아쉬운 생각이 한사코 발목을 잡고 놓지 않았다.

《히, 장군님택에까지 왔다가 것처럼 명성높으신 항일의 녀장군이신 김정숙녀사를 뵈지 못하고 가다니…》 그의 입에서는 이런 탄식이 저절로 새어나왔다.

김로인의 차비를 거들어주시던 그이께서 돌아서시었다. 뜻밖에도 《제가 처음부터 맞이하고 쌀가마니도 맞들어드렸는데 또 인사를 올려야 하겠습니까.》 하고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시지 않는가?

김로인은 그만 입을 하 벌리고 서있다가 황황히 허리를 굽히었다.

아, 늙은 이 몸이 이런 실수를 하다니…

필필나는 싸움군이고 이름난 명사수이시기에 엄엄한 모습으로만 그려봤는데 그렇게도 살뜰하시고 그렇게도 특이한 인정미를 지니신분이실줄이야. … 기적소리가 울리는 바람에 로인은 생각에서 깨어나났다.

기차는 여전히 전속으로 달리고있었다.

마음을 진정하지 못한 로인은 엉거주춤 일어서서 차창밖을 내다보았다.

2

《아니, 재령군의 김제원로인이 아니세요?》

챙챙히 울리는 목소리에 김로인은 고개를 돌리었다.

누군가 방석이 웃으며 바라보고있다.

동실한 얼굴, 량볼에 움푹 패이는 저 보조개.

김로인은 환성을 올리었다.

《이게 뭐시유? 중앙녀맹대표!》

《로인님, 말씀을 낮추세요. 그저 옥분이라고 불러주시시오. 구옥분.》

얼굴이 발갛해진 옥분이가 로인의 손을 맞잡고 흔들어댄다.

김로인은 난처했다. 작년초에 해주극장에서盛大하게 열리었던 《애국미헌납결기모임》 때 내

려왔던 중앙녀맹대표를 어떻게 제 딸처럼 이름을 부를테냐.

《부탁입니다. 그래주세요.》

옥분이가 다짐이라도 받듯 또 손을 흔든다.

《허허, 그러지. 자, 여기 좀 앉으시우.》

김로인은 웃으며 옆자리를 가리키었다.

자리에 앉으려던 옥분이가 쌀자루를 보고 의아해서 바라보았다.

《내가 가지고 가는거라우.》

《로인님은 김정숙녀사님을 뵈우려 가는 길인 모양이군요.》

옥분은 제잡담 단정하며 버릇처럼 또 방석이 웃었다.

《그걸 어떻게?...》

《로인님 얼굴에 다 씌여있어요. 로인님이야 저를 처음 만났을 때에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김정숙녀사님의 은덕을 잊지 못하겠다는 구.

《그랬지, 그랬어. 평생 구경도 못한 기념품을 받아안았을 때 내 심정이 어떠했겠수. 내가 그때 녀맹대표보구 녀사님께 내 맘을 꼭 전해드려달라구 부탁했지만 어디 성이 차드라구. 마음은 그저 평양으로 김정숙녀사한테로만 훨훨 날아가지.》

김로인은 달아오른 열기를 참지 못해 차창을 버쩍 들어올리었다. 열린 차창으로 봄의 훈향이 밀려들어왔다. 문득 이 훈풍이 바로 녀사께서 계시는 정원에서 불어오는것 같은 착각이 일어났다.

그들은 꼭같이 따뜻한 추억에 눈곱이 달아올랐다. 마음도 몸도 날개가 되어 저택의 정원으로 훨훨 날아갔다.

...

그날은 한해의 마지막달인 12월의 어느날이었다. 눈내리는 날치고는 퍼그나 쌀쌀했다.

옥분은 둘둘 감은 실목도리를 바싹 당겨 다시 매고는 종종걸음을 했다.

녀맹사업과 관련하여 방조를 받을 일이 있어 김정숙녀사를 뵈우려 가는 길이었다.

머칠만 못 뵈워도 어머니와 떨어진 아이심정이 되어 녀사가 그리워지곤 하는 옥분이였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야 일을 만들어 그이를 뵈우려 간적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녀사께서는 반겨맞아주시곤 하시였다. 맞받아내리는 눈송이들이 이마전과 량볼에 띄 띄 달라붙었다.

옥분은 겹친 목도리를 펼쳐 이마로 드리우게 하고는 모로 비껴서서 걸어갔다.

저택에 거의 다 와서야 옥분은 줄곧 앞을 가리우고있던 손을 내리울수 있었다.

둘러감았던 목도리를 풀며 들어서던 옥분이는 깜짝 놀랐다.

눈내리는 마당가에 김정숙녀사께서 솜옷이나 외투도 없이 맨저고리바람으로 서계시는게 아닌가?

《아니, 녀사님!》

옥분은 김정숙녀사앞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눈이 오는데 어떻게?...》

《옥분동무군요. 장군님을 바래드리려 나왔던 길이에요.》

그제야 옥분은 내리는 눈에 덮여 어렴풋이 사라져가는 승용차바퀴자리를 알아보았다.

《그럼 이제껏... 녀사님, 바퀴자리에 저렇게 눈이 쌓이도록 밖에 오래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옥분은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난 전혀 추운걸 느끼지 못했지. 이것봐요, 옥분동무 얼굴은 꼭 익은 사과알처럼 발갛게 달아있는걸.》

김정숙녀사께서는 옥분이의 볼을 살짝 튕기며 즐겁게 웃으시였다.

옥분은 얼른 그이의 손을 두손으로 싸쥐며 말씀드리였다.

《녀사님, 손이 참니다. 이렇게 밖에 계시면 건강이... 어서 들어가십시다.》

《팬찮아요, 옥분동무. 지금 내 마음은 불덩어리를 안은것 같어요.》

김정숙녀사께서는 옥분이에게 뜨거운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 오늘 점심시간에 쉬지 않으시고 김제원농민을 비롯한 재령군의 농민들에게 친히 감사편지를 쓰시였어요.》

《장군님께서 감사편지를요?》

《김제원농민의 뒤를 이어 재령군의 농민들이 너도나도 애국미헌납운동에 떨쳐나섰어요. 서른세명이나 말이에요. 얼마나 장한 일인가요.》

김정숙녀사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두손을 펼치고 떨어지는 눈송이를 받으시였다.

(얼마나 기쁘시였으면...)

뽕얇게 흐려지는 눈길로 녀사를 우러르던 옥분은 가볍게 몸을 떨었다. 녀사의 어깨가 축축히 젖어돌고있었다. 어깨우에 소복이 쌓였던 눈이 소리없이 녹아내리는것이다. 가슴이 찢르르해나며 눈곱이 떨어났다.

《이렇게 눈이 오는 때면 백두산시절이 생각나곤 해요.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어요. 장군님께서 국내혁명가들에게 편지를 쓰시던 그때 말이에요. 그런데 장군님께서 오늘 편지를 써 보내신 김제원농민은 이 나라의 평범한 농민의 한 사람이에요. 해방된 이 땅에서 그는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농민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는 나라의 주인이 되었어요. 장군님의 사랑과 신임속에서 장군님의 친근한 동지가 되었어요. 옥분동무, 장군님께서는 친서에서 <오늘 모든것이 부족한 가운데서, 특히 식량사정이 곤란한 조건하에서 진행되고있는 우리의 건국사업은 김제원동지와 같은 농민여러분의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적증산운동과 창발적운동으로써만 가능한것입니다. 김제원동지와 같은 농민은 참말로 오늘 새

조선의 농민입니다.》라고 쓰시었어요. 이제 장군님의 친서를 받아안은 우리 농민들속에서 애국농민의 대렬이 얼마나 더 늘어나겠어요. 오늘의 한명이 백명, 천명으로 부쩍 늘어날게 아닌가요. 그걸 생각하니 추운게 다 뭐예요. 이렇게 온몸이 확확 달아오르는데.》

녀사께서는 그옥한 눈빛으로 눈이 내려와 쌓이는 길을 바라보시다가 옥분이쪽으로 돌아서시었다.

희열이 가득찼던 녀사의 인상적인 눈가에서 불꽃이 반짝이시었다.

《참 옥분동무, 우리 녀성들도 그들을 고무하고 그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을 벌리었으면 하는데... 어때요?》

《그들을 따라배우는 운동 말입니까?》

《그래요. 그게 좋을것 같군요. 나도 한 녀성으로서 녀맹조직에 의견을 제기하는거예요.》

녀사께서는 어서 들어가자고 하시며 앞장서시었다.

옥분은 저오기 긴장되어 뒤따랐다. 중대하고도 벅찬 일감이 눈앞에 그려지었다. 그러나 방안에 들어가신 녀사께서 꺼내시는 첫 말씀은 뜻밖에도 김제원로인에게 보낼 기념품문제였다.

《김제원로인은 언제 한번 온전한 집에서 살아도 못보았어요. 부모형제가 모여 단란한 생활도 못해보았어요. 한생을 천대와 구박속에 짓밟혀 살아온 로인이예요.》

그날 옥분은 로인의 고달픈 한생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하늘이 무너진듯 한 절망감에 싸여 통곡하던 일, 부자집에 일하러간 어머니를 기다리며 울망줄만한 세 동생을 일리다가 지쳐버리던 밤, 떨어지는 살구꽃을 서글프게 바라보며 눈물짓던 일들...

《얼마나 어려웠으면 어머니가 얻어온 식은 밥덩이를 담을 온전한 그릇 하나 없었겠어요. 식은 밥덩이를 담은 깨진 바가지밖에 온 식구가 달라붙곤 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눈물없이는 들을수 없었어요. 옥분동무, 나라를 빼앗기고 땅이 없는 탓에 한생 짓눌리며 살아온 로인을 보란듯이 내세우고 싶은게 내 마음이에요.》

옥분이는 녀사의 곡진한 말씀을 뜨겁게 새겨안았다. 그날 저녁 기념품을 문의하는 녀맹일군들모임에서 옥분이는 낯그릇을 보내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의 제기는 모두의 찬동을 받았다.

누구보다 김정숙녀사께서 기뻐하시었다.

옛날부터 우리 나라에는 남의 집 경사를 축하할 때 낯그릇을 보내는 풍습이 있다시며 이왕이면 애국미헌납자들의 꺾기모임이 열리는 때에 축하편지와 함께 낯그릇반상기를 일식으로 보내면 어떻겠는가고 하시었다.

그러나 낯그릇반상기 일식을 만드는 일은 간단치 않았다. 우선 낯수집이 잘 진척되지 않았고 정교하게 가공되는 작업이라 속도가 나지 않았다.

옥분은 속이 바질바질 났다. 해주에서 애국미헌납자들 꺾기모임이 열리는 날은 1월 10일이다.

이날에 녀맹대표가 축하편지를 랑독하고 기념품을 안겨주게 되어있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가?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다.

옥분은 녀사를 찾아가 의논해보기로 결심했다.

김정숙녀사께 보아달라고 드렸던 편지초안에 대한 의견도 받아야 했던것이다. 하지만 녀사께서는 댁에 계시지 않았다. 아침일찍 어디론가 나가셨다고 경위대에서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오면 주라고 하셨다면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봉투안에는 옥분이 자기가 썼던 편지초안이 들어있었다.

줄을 그어가시며 또박또박 가필까지 하신 편지를 보던 옥분은 그 내용에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그야말로 훌륭한 축하편지로 완성된것이다.

어쩌면 녀사께서 이리도 능하실가.

옥분은 편지봉투를 꼭 싸쥐었다.

녀사께서 이 아침에 또 어디로 가셨을가. 것처럼 분망하신 그이께 너무 부담을 끼치는것 같아 죄스러웠다.

옥분은 기념품문제만은 어떻게든 자기가 풀리라 결심했다.

옥분은 편지를 정히 간수하고 목도리를 다시 감았다.

유기제조소는 시외에 있었다.

점심때가 꺾 지나서야 옥분은 지친 다리를 끌며 제조소에 들어섰다.

마침 제조소마당으로 수집한 낯을 가득 실은 손달구지를 끌고 들어서는 사람이 있었다. 제조소 주인이었다.

제조소마당안에서는 흰 타올수건을 쓴 한 녀인이 깨진 낯그릇들을 한곳에 정리하고있었는데 그량이 적지 않았다. 저 낯이면 낯그릇반상기를 다 만들것 같았다.

이젠 됐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며 다가가던 옥분은 그만 우뚝 멈춰서며 눈을 흘렸다.

뜻밖에도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한창 낯조각들을 정리하고계시는분은 바로 김정숙녀사이시였던것이다.

(아니 녀사께서?... 어떻게?...)

《이젠 됐수다. 난 녀성들 힘이 이렇게 대단한 줄 오늘에야 알았구만. 어떻게 그 녀성들을 불러 일으켰는지. ... 허허. 자, 또 들어옵니다.》

사기가 난 유기제조소주인이 녀사앞으로 손달구지를 끌고가며 하는 말이었다.

옥분은 억이 막혔다. 아마도 주인은 김정숙녀사를 낯그릇을 주문한 녀성들중의 한사람으로 아는 모양이었다.

《옥분동무 왔군요.》

옥분이를 알아보신 녀사께서 허리를 펴며 웃으

시였다. 그러나 옥분은 웃을수가 없었다. 언제나 생글거리던 웃음은 어디에 가고 지금은 울상이 되어있었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자기는 걱정만 하고있는 사이 녀사께서는 눈바람을 헤치시며 녀성들을 찾으시여 뉘집을 호소하시고 제조소에 나오시여서는 손수 일도 거들어주시면서 뉘그릇을 제기일내에 만들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시였던것이다.

《녀사님!》

옥분은 목메여부르며 녀사께로 달려갔다.

...

뜨거운 추억이였다. 그 추억을 싣고 열차는 평양으로 기세차게 달리고있었다.

3

김제원로인이 저택에 들어섰을 때 김정숙녀사께서는 러발에 계시였다.

《녀사님!》

김정숙녀사께서는 뜻밖에 나타난 로인을 보시자 머리수건을 벗어쥐며 마주 나오시였다.

《아니, 로인님!》

김로인은 허둥지둥 녀사앞으로 반달음을 놓았다. 등에 진 쌀짐을 내릴념도 않고 인사부터 올리였다.

《재령땅의 늙은이 녀사님 뵈고싶어 왔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동안 떨어져있을 어머니를 만나는것 같았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녀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녀사께서 보내주신 귀중한 뉘그릇들을 받아안고 우리 집 식솔들은 너무도 고마워 쓸어보고 또 쓸어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정말 그 인사를 어떻게 올려야 좋을지...》

《로인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제가 보낸것이 아니라 우리 녀성들이 로인님을 따라배우려는 마음을 담아 성의로 보낸것입니다.》

녀사께서는 그러시다가 등에 진 짐을 보시고 《이건 뭘니까?》하고 놀래시였다.

《제가 지은 찹쌀입니다. 그저 제 마음뿐입니다.》

《참, 로인님도... 이러시면 안됩니다.》

녀사께서는 난처한 기색으로 로인의 짐을 벗겨 내시고는 마당의 나무의자로 이끄시였다.

《그 기념품들이 마음에 든다니 저도 기쁩니다.》

《녀사님, 구경두 참 하는 희한한 그릇들입니다. 부자놈들이 그냥 남아있다면 번쩍번쩍 자랑하고싶습니다.》

김로인은 젊은 사람들처럼 팔을 흔들며 꺾꺾거리였다. 녀사께서 즐거운 미소를 띠신것을 뵈옵자 더한층 사기가 올라 동네는 물론 이웃마을에서까지 뉘그릇 구경왔던 자랑을 한동안 늘어놓았다.

그러던 김로인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진달래를 알아보았다.

진달래꽃은 한창이였다. 그 야들야들한 연분홍색꽃잎이 절벽가의 진달래와 달리 여간 소담하지 않았다. 이 아름다운 진달래가 이렇게 활짝 피어나 녀사께 기쁨을 올렸으리라고 생각하니 쓸어주고싶도록 정이 갔다. 문득 진달래옆에 있는 흙물은 호미가 눈에 띄웠다. 그제야 로인은 녀사의 차림새를 돌아보았다.

치마허리를 가튼히 묶은 녀사의 손에는 머리수건이 들려있고 신고계시는 코신에는 흙이 묻어있었다.

김로인은 깜짝 놀랐다. 《녀사께서 이렇게 러발까지 가꾸시는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두 농사군의 딸이랍니다.》

녀사께서는 허물없이 웃으시더니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으시였다.

《그럼 여기서 잠깐 땀을 들이십시오. 이젠 김을 다 땀으니 씨숙음이나 인차 끝내고 나오겠어요.》라고 하시며 러발로 들어가시였다.

녀사의 뒤를 따라 시선을 돌리던 김로인은 눈이 휘둥그레지였다.

한뿔이나 자란 부루, 쭉갓을 비롯한 봄남새들이 어서 속아달라고 보채는듯 잎들을 흔들며대고있는게 아닌가!

한생 농사로 늙어왔지만 아직은 이른초봄에 이렇게 남새를 키워본적이 없었다.

《정말 놀랍습니다. 봄남새를 어떻게 벌써...》

《계절을 앞당겨보려고 온상을 해보았을뿐입니다.》

녀사께서는 겸허하게 말씀하시며 날랜 솜씨로 씨숙음을 하시였다.

녀사의 손이 어찌나 재치있게 움직이는지 잠간 사이에 한뭉음한뭉음의 부루, 쭉갓이 소랭이에 차곡차곡 눅혀지였다.

총을 잡으면 명사수, 펜을 잡으면 명필, 음식솜씨는 또 어떻고, 녀사의 그 손으로 만든 칼제비국이 참으로 별맛이던 일이 생각나서 김로인은 침이 저절로 넘어갔다. 문득 옥분이가 쓴 편지초안까지 보아주시고 유기제조소까지 가셨다던 말이 편뜻 생각났다.

녀사께서 언제 이런 농사일까지 하실 시간이 있으랴. 하셔야 할 일, 가셔야 할 길, 돌보셔야 할 일이 오죽 많은 녀사이신가?

김로인은 참지 못하고 녀사께 말씀드리였다.

《녀사님이 마당을 러발로 만들고 손수 가꾸시지 않는다고 댁에 남새 하나 보장하지 못하겠습니까?》

김로인은 가슴이 뼉어올랐다.

자기가 사는 고장이 예서 가까운 곳이라면 매일 같이 신선한 남새를 저다드리련만 그렇게 할수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다.

《로인님, 지금 장군님께서 제일 근심하시는 일이 농사입니다. 온 나라 인민들을 배불리 먹이고 잘살게 하자면 농사를 잘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군님께서도 늘 어떻게 해야 농사를 잘 짓겠는가에 하는데 마음쓰고 계십니다. 로인님, 해방된 내 나라에 와서 이렇게 봄을 맞을 때마다 회령 생각, 처창 생각, 백두산밀영 생각이 납니다. 오늘의 이 날을 보지 못하고 간 동지들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때 우리 동무들은 자그마한 주머니를 기워 그 속에 조국의 흙을 한줌씩 넣고 다녔습니다. 바로 조국의 이 땅입니다. 바로 이 땅을 위해 고난을 이겨냈고 왜놈과 싸웠습니다. 그런 동무들이 이역땅에 묻히어 돌아오지 못한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터지는것만 같습니다.》

가슴저러드는 아픔에 목이 메인 녀사께서는 말씀을 더 잊지 못하시였다. 비감에 젖은 그이의 눈가에 후더운 눈물이 고여올랐다.

김로인은 죄송스럽기 그지없었다.

자기는 빼앗긴 내 나라를 찾기 위하여 백두의 설한풍을 헤치며 왜놈과 싸우신 투사들에게 더운 밥 한끼 해드린적 없고 짐 한번 저다드린적 없다. 집 없고 땅 없다 한탄만 하지 말고 백두산으로 달려갈 생각은 왜 못했던가?

마주치고 선 손바닥에 질편하게 땀이 고였다.

《로인님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계십니까. 늘 땅을 가꾸시니 말입니다. 장군님께서도 농사를 잘해야 부강조선을 건설할수 있고 인민생활도 높일수 있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로인님은 바로 그 말씀대로 농사를 잘 지어 애국미를 바친것입니다.》

《녀사님!》

김로인은 감격에 겨워 몸을 떨다가 겨우 한마디 말씀올렸다.

《그저 한뼘 농사꾼이니 땅을 가지는것이 소원이었고 땅이 차례지니 그 소원을 담아 농사를 지었을뿐입니다.》

《그게 귀중한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 일입니다. 하루는 밤사이엔 눈이 이렇게 쌓이도록 왔던적이 있었답니다.》

녀사께서는 앓은 키우로 팔을 쭉 쳐드시였다.

《우리는 모두 올해는 풍년이 들겠다고 기뻐하며 농사짓는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농사래야 제땅이 없어 지주놈의 땅을 소작부치던 눈물겨운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농사얘기가 나오니 저절로 흥이 났답니다. 그때 우리는 조국이 해방되면 우리모두 분여받은 땅에서 밭목이 시도록 농사를 지어보자고 했어요. 모두 박수를 치며 기뻐했어요. 그때 저의 눈앞으로는 씨뿌리는 화창한 봄이 떠올랐어요. 누런 벼이삭이 설레이는 들판이 보이는것 같았어요. 농사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공 들이면 들인것만큼 낱알을 쏟아놓는 땅을 다루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에 의해서 나라의 쌀독이 채워

지는데 그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도란도란 울리는 녀사의 말씀은 소박하면서도 평범하시였다. 그런데도 가장 귀중한것을 소중히 겨안은것처럼 눈앞이 황홀해지였다.

김로인은 이 세상에서 제일 비천하다고 생각한 농사꾼인 자기를 그렇게 높이 내세워주시는 말씀에 가슴이 찢르르해났다. 무슨 말이든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겠으나 가슴속에 뜨거운 불덩어리가 자꾸 자꾸 쌓여지는것 같아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로인님, 마침 잘 오시였습니다. 장군님께서 지금 지방에 현지지도로 나가시였는데 그동안 평양구경도 하시면서 꼭 쉬십시오. 오후에는 저와 함께 시내구경을 나갑시다.》

녀사께서는 봄남새가 가득 담긴 소랭이를 들고 몸을 일으키시였다.

×

봄바람이 불어오는 평양거리에서 제일 장관은 줄줄이 늘어선 길가의 버드나무들이였다.

치마저고리를 차려입은 녀인들이 봄바람에 흔들 흔들 춤을 추는 버드나무가지를 살짝 헤치며 걸어가는 모습은 마치 무대우에서 사뿐사뿐 춤을 추는 듯 맵시가 났다. 청년들 서넛이 또 버드나무밑으로 들어섰다. 열번을 토하던 한 청년이 답답한지 상의를 벗어제끼고 반팔소매차림으로 팔을 흔들었다. 버드나무가지가 팔을 휘감는 바람에 동무들이 그를 보며 웃어댔다. 싱그러운 봄바람이 그들의 가슴을 한껏 띄워놓은것이다. 하얀 옥당목저고리차림의 처녀가 또 버드나무밑으로 들어섰다. 처녀의 잔등에서 방아를 짚는 빨간명기를 스치는 푸른 버드나무가지가 어쩌면 그리도 조화스러운지 모르겠다.

부지중 김로인은 자기의 차림에 눈길이 갔다. 떠나올 때 로친이 정성스레 손질해준 검정두루마기가 여기서는 마치 흰 오리때에 섞인 검정닭마냥 불상스러웠다.

금시 주눅이 든 로인은 주춤주춤 발걸음을 늦추었다.

검정치마에 물색저고리를 받쳐입으신 녀사의 몸가짐은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웠고 생신했다.

그이께서는 무엇인지 썩 흰 보자기를 왼쪽가슴에 꼭 안으시고 경쾌하게 걸어가시였다.

김로인은 자기때문에 녀사의 아름다움에 루를 끼칠것 같아 슬그머니 구석쪽으로 피해 들어갔다.

어느새 아셨는지 녀사께서 오른손으로 로인의 한쪽팔을 다정히 끼시며 앞을 가리키시였다.

《로인님, 얼마나 좋은 봄입니까? 저 푸른 하늘엔 태양이 빛나고 사람들의 가슴에서는 희망이 넘

치고있어요. 로인님과 같은 농민들이 수고하신 덕에 대지에 뿌려진 씨앗들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있습니다. 저 프랑카드를 보세요. <북조선에서 실시된 위대한 민주개혁 만세!> 이게 바로 로동자, 농민이 주인이 된 우리 세상입니다.» 녀사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는듯 하면서도 거침이 없이 울리어나왔다.

《자, 가슴을 쪽 찌고 걸자요.》

김로인은 흥이 났다.

향긋한 봄바람이 간지럼을 피우는것처럼 수염불을 살살 어루쓸었다.

한껏 기분이 떠서 걸던 김로인은 녀사께서 멈춰서시는 바람에 앞을 바라보았다.

《문화복장원》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여기 좀 들렀다 가자요.》

녀사께서는 먼저 《문화복장원》안으로 들어가시었다.

재단을 하던 나이 지숙한 녀인이 녀사를 알아보고 《김정숙녀사께서 오십니다!》하고 환성을 올리였다. 그러자 10여명의 재봉공녀인들이 일시에 녀사주위로 달려와 인사를 올리였다.

《수고들 해요. 요즘은 봄철옷들을 짓느라 바쁘겠군요.》

녀사께서는 봄거리를 걸어오신 기쁨에 얼굴빛이 환해서 녀인들을 둘러보시었다.

《녀사께서 새옷을 해입으시겠다면 제가 맡겠습니다.》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저마다 간절히 청을 올린다. 재봉공들속에 계시는 녀사는 마치 친언니, 친어머니마냥 잘 어울리시었다.

《고마워요. 내 웃은 후에 짓기로 하고 여러분, 내가 오늘 어떤 귀한분을 모시고 왔는가 소개하겠어요.》

녀사께서는 한옆으로 비켜서시며 김로인을 앞세우시었다.

《이분은 나라에 애국미를 바치신 재령땅의 김제원농민입니다.》

《예?!》

《어마나!》

《아니 그럼, 그 애국농민?》

짜짜그르 박수가 터지였다. 삽시에 녀인들이 김로인을 둘러쌌다.

김로인은 한순간 당황해서 물러서기까지 하였다. 녀인들은 찬탄과 호기심으로 눈들을 빛내이며 저저마다 물었다.

어쩌면 그런 장한 생각을 했는가? 다른 사람들은 첫해농사를 지어 집을 지었다는데 로인님은 아무것도 산게 없는가?

집에는 누가 있는가?...

도대체 누구의 물음부터 대답해야 할지 병병해지였다.

김로인은 구원이나 바라듯 뒤를 돌아다보았다. 녀사께서는 조용히 웃고계시었다. 눈가에도 입가에도 밝게 떠도는 그 미소는 어서 자랑하라고 힘을 주는듯 하시었다.

김로인은 그 순간 가슴이 든든해지는것을 느꼈었다. 용기가 생기었다. 이거 정말 한마디 해야 할가부다 하고 침을 꿀꺽 삼키었다.

마침 앞에 있는 한 녀인이 《우린 애국미를 바친분이 나이가 많은줄 알았는데 아직 한창이구만요.》하고 방싯 웃었다.

김로인은 어이가 없어 허허 웃었다.

《한창이구말구요. 내 나이가 올해 겨우 네살이웨다.》

로인은 이번에도 습관대로 자기 나이를 댔다.

《어마나, 네살이요?》 어리둥절해서 뇌이던 녀인이 알겠다는듯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러니 마흔네살이란 말이지요?》

《허, 실지 배꼽 떨어진대로 계산하면야 그럭저럭 원이 썩 넘었지요. 그까짓 해방전에 살아온것 두 산 나이요?》

《예? 원이 넘었다구요?》

《아유나, 10년이나 젊어보이는데요.》

모두들 그렇다고 맞장구를 치며 떠들썩 웃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녀인이 또 한마디 했다.

《우리 양복점에서 새옷을 멋지게 해입으세요. 그럼 또 10년은 젊어져요.》

그바람에 둘러섰던 녀인들이 깔깔깔 웃었다.

김로인은 가슴속의 웃음집이 흔들거리였다. 배가 쑥 나오도록 담도 생기여 싱글싱글 웃었다.

《그럼 한번 평양멋쟁이가 돼봐? 그러다가 우리로친이 질투가 나서 달려오면 큰일 아닌가?》

김로인이 녀스레를 펴며 한마디 하자 《와!》 녀인들이 웃음을 터뜨리였다.

《아유, 로인님이 아주 걸작이시네.》

손뼉까지 쳐대며 웃었다.

김로인도 고개를 젓히고 꺾꺾거리였다.

언제나 움츠리기만 하고 살던 자기가 맞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스스로도 놀라왔다. 한뼉 땅처럼 묵묵히 살아온 내가 언제 한번 큰 소리로 웃어본적이 있었던가? 가슴이 후련해지는 찰나 김로인은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녀사께서는 저편에서 재단사와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계시었다. 퍼그나 밝은 안색이시였다.

그 평온하신 모습을 보니 절로 마음이 폭 놓였다.

김로인은 녀인들속에서 슬금슬금 이야기보따리를 펼쳐나갔다. 로친과 학교 다니는 딸자랑뿐 아니라 재령특산인 잉어잡던 자랑까지 터쳐놓고서야 일어섰다.

마침 녀사께서도 재단사와 헤어지시여 다가오시었다.

《녀사님, 늙은게 주책없이 놀았습니다. 내인들

이 취준다고 아이들처럼 우쭐했었습니다.》

김로인은 얼굴이 벌개져 먼구스럽게 중얼거리었다. 그러나 김로인은 지금 달라진 자기의 모습을 보시며 녀사께서 누구보다 기뻐해하신다는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있었다.

《로인님은 결코 과묵한 성격이 아니였어요. 그건 다 세월을 잘못 만난 탓이었어요. 로인님, 이젠 로인님의 땅을 다시 빼앗을 지주놈도 없고 집에서 내쫓을 왜놈두 없습니다. 마음껏 가슴펴고 사십시오.》 그러시던 녀사께서는 문득 무슨 생각이 떠오르신듯 래일 좋은 구경을 가는게 어떻가고 물으시었다.

하나를 주시면 열을 더 주고싶어하시는 녀사의 그 심정에 김로인은 또다시 가슴이 몽클해났다. (래일은 또 무슨 구경일가?)

옛날부터 그의 고향에는 탈춤이 성행하고 곡마단이 풍을 쳐놓고 구경군들을 불러들이곤 했다.

그러나 고달픈 그의 인생에는 그런것을 볼 여유가 단 한번도 차례지지 않았다.

구경이라는 바람에 상상도 못했던 구경욕심이 버쩍 머리를 쳐들었다.

김로인은 밤새 뒤치락거리며 꿈을 꾸었다.

다음날 김로인이 녀사와 함께 찾아간 《구경》은 탈춤놀이도 아니고 곡마단도 아니었다.

와글와글 뿜어번지는 건설장이었다. 대번에 어리둥절해지였다.

《로인님, 이곳에 무엇이 일떠서는지 아십니까?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건설되는 종합대학교사입니다!》

《종합대학?!》 머리가 뻥 내둘리었다.

장군님께서 대학말씀을 들려주시더니 벌써 이렇게 시작됐구나.

가슴에 큰 산이라도 들어앉은듯 묵직해지였다.

《바로 로인님을 비롯한 애국농민들의 지성인 애국미로 이런 훌륭한 대학을 세우고있답니다.

우리 후대들은 먼 후날까지 이 교사를 보며 로인님같은 애국농민들의 소행을 두고두고 전해갈겁니다.》

(아!)

김로인은 눈을 습벅이며 고개를 젓히었다.

머리우에서 알지 못할 새 한마리가 포롱포롱 날아가고있었다. 주먹만 한 그 새는 꽂지를 초췌이며 젖나무우를 지나갔다.

《녀사님, 지난 세월 제일 부러웠던게 저런 날새였습니다. 저 주먹만 한 날새는 제 마음대로 하늘을 날고 어두워지면 둥지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 날새가 다 뺏니까? 부러운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로인은 날아가는 그 새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였다.

《그렇다니 내 마음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녀사께서는 밝은 웃음을 지으시었다.

이때 설계말이를 쥐고 반달음으로 켜충켜충 달려오던 젊은이가 녀사를 알아보고 우뚝 멈춰섰다.

그가 녀사의 앞으로 달려와 정중히 인사를 드렸다. 뒤따라 설계일군인듯 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수고하십니다. 색감을 칠하던 전망도는 다 되였는가요?》

이미 구면이신듯 녀사께서는 반갑게 물으시었다.

《여기에 그 전망도를 붙이려고 그림니다.》

《그래요? 그것 참 마침입니다.》

녀사께서는 김로인을 이끄시고 한옆에 서시여 대형판에 붙여지는 전망도를 바라보시었다.

《멋있군요. 설계도면으로 볼 때보다 이 전망도를 보니 완공된 대학앞에 서있는 기분이예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녀사께서는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그들을 치하시였다.

《이런 전망도를 저기 건설장 입구에 붙일 생각입니다.》

설계가들이다른 도면을 펼치며 하는 말이였다.

《어서 그렇게 하세요.》

김정숙녀사께서 그들과 말씀을 나누시는 동안 김로인은 났을 잃고 전망도를 바라보았다.

등그런 지붕에 시원한 정문이 보기에도 감탄이 절로 나왔다. 이제까지 살며 이런 큰 집을 본적이 없었다. 기껏 보았대야 거들거리던 지주놈의 기와 집이였다.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집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니 부럽기 그지없었다.

이런 학교가 우리 마을에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녀사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는 로동자, 농민의 세상인데 우리 농사군네 자식들이 이런 새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평양 와서 대학생이 된다면 얼마나 좋으랴.

력을 슬슬 매만지는 김로인의 눈앞에는 벌써 마을 복판에 우뚝 솟은 중학교가 보이는듯 했다.

《로인님, 어서 저 동무들과 같이 가세요.》

녀사께서 로인에게 말씀하시였다.

《종합대학 설계와 시공을 맡은 동무들이니까 건설물계가 환하합니다. 로인님께 대학교사의 규모며 형식이랑 설명해올릴겁니다. 다 돌아보신 다음에 여기로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되어 김로인은 설계가들과 함께 건설장을 돌아보게 되였다.

건설장은 굉장했다. 건설장에 하얗게 덮인 사람들이 봄비면서 삽질을 한다, 질통을 지고 뛰여다닌다 승벽을 부리였다.

해방된 내 나라에 처음으로 대학을 일떠세운다는 기쁨으로 명절처럼 흥성이였다.

아까 전망도에서 보았던 그 건물이 여기서는 벌

써 한참 일떠서고있었다.

안경을 낀 설계가가 오래지 않아 5층까지 올라간다고 설명해주었다.

김로인은 연방 감탄을 터치였다.

《지주놈이 고래등같다고 자랑하며 거들거리던 아흔아홉칸짜리 기와집은 아무것도 아니구만. 몇십배, 몇백배 찜찜먹겠구만요.》

《여부가 있습니까. 이 웅장한 건물을 바로 우리 손으로 짓고있지요. 바로 로인님과 같은 애국농민들의 지성이 어린 그 애국미로 말입니다.》

김로인의 가슴은 터져나갈것처럼 빠근했다. 그는 고개를 젓히었다.

해빛이 눈부신 푸른 하늘을 향해 마음속 웨침을 터치였다.

(아, 사람값에도 못 가던 내가 이렇게 큰 대학을 세우는 일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되다니. 보잘것 없던 나도 나라에 보탬을 다 주었구나. 이제 사람사는 보람이구나, 이렇게 바로 긍지구나!)

흥분된 마음을 안고 녀사께서 기다리겠다고 하신 전망도앞으로 돌아왔다.

순간 김로인은 다시한번 놀랐다.

녀사께서 벽돌이 담긴 질통을 지고 땀흘리며 나르고계시지 않는가.

(녀사께서 이런 일까지 다 하시다니.)

로인은 방금 벽돌을 부리우신 녀사앞으로 허겁지겁 달려갔다.

《아니, 어찌자고 이런 일까지...》

《나왔던김에 벽돌이라도 몇장 날라주고싶어그됩니다.》 녀사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그래 돌아보니 어때요?》

《정말 굉장합니다. 녀사님, 주십시오. 저도 뭔가 기여하고싶습니다.》

《아니, 로인님이 어떻게... 그럼 여기 담아만주세요.》

녀사께서 벽돌무지앞에서 돌아서시였다.

그러나 김로인은 그 일에 성이 차지 않았다.

마침 한 젊은이가 질통을 지고 벽돌무지앞으로 다가왔다.

김로인은 무작정 젊은이의 질통끈을 잡았다.

《아니, 이 할아버지 왜 이래요?》

상대방은 눈이 둥그래서 뒤를 돌아보았다.

어쩔수없이 사정을 했다.

《이보라구, 젊은이. 나도 한번 해보자구. 해방된 내 나라에 대학이 일떠서는데 이 마음두 바쳐보자구.》

《할아버진 나이도 많으신데 뭘 그러십니까. 여기서 구경이나 하시라요.》

젊은이는 들을념도 안했다. 그렇다고 물러설 김로인이 아니였다. 령감소리를 듣지만 마음은 아직 청춘이다. 그는 질통끈을 잡고 힘내기를 했다.

《야, 할아버지...》

젊은이가 속상해하며 김로인에게 돌아섰다. 둘이 한참 싱갱이를 하는데 청년대학생들이 불쑥 나타나서 두리번거리였다.

《여기에 항일의 녀장군 김정숙녀사께서 오셨는데 못 보았습니까?》

《김정숙녀사? 그런분 못 봤는데.》

젊은이가 질통을 진채 고개를 기웃거리였다.

《저런녀석 보았나.》

김로인은 자기가 대주려고 어쩔 기침을 하며 앞으로 나섰다.

뒤미처 들꽃묵음을 안은 처녀대학생들이 달려왔다. 《최동무, 녀사께서 어디 계세요?》

《여기는 안계시는것 같소.》

그 학생이 실망어린 목소리로 중얼거리였다.

김로인은 가만있을수가 없었다. 김정숙녀사께 안내해주려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이보라구, 학생들》 하고 입을 여는데 바로 이때 수건으로 땀을 훔치시며 질통을 진 녀사께서 내려오시였다.

힘든 기색이란 하나도 없이 오히려 즐거운 등산길에 나서신듯 그이의 얼굴엔 웃음이 한가득이다. 코마루가 시큰해오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왔다.

한 남자대학생이 돌아서다가 마주오시는 녀사를 보고 놀라 멈춰섰다. 《녀사님!》

《대학생들이 오늘도 또 나왔군요.》

기특하게 여기시는 그이의 안광엔 자애에 넘친 웃음이 어리였다.

남자대학생의 눈이 환희로 빛났다. 그는 갑자기 휙 돌아서서 《동무들, 김정숙녀사께서 여기 계시오, 여기!》 하고 소리치며 손을 흔들었다.

삼시에 건설장이 들끓었다. 대학생들이 달려왔다. 질통 진 젊은이가 그 자리에 굳어지였다. 그다음엔 벽돌이 담긴 질통을 진채 그리로 뺄다 달리기 시작했다. 이미 술한 사람들이 밀려들고있었다.

《어디, 어디요?》

《저기.》

대학생들, 남자들, 수건 권 녀성들, 어떤 녀인은 벗겨진 신발을 천채 달려간다.

김로인은 사람들틈에 끼워 점점 뒤로 밀려났다. 그는 안간힘을 쓰며 목을 빼들었다.

무척 딱하신듯 한 녀사의 상형된 모습이 사람들틈에 가리워졌다가 다시 보이였다.

로인은 밀려나지 않으려 다리에 힘을 주었다.

꽃다발을 든 녀대학생들이 녀사의 앞으로 다가서는데 보이였다.

그때였다. 《동무들은 애국미로 대학건설에 기여한 재령군의 김제원농민에 대하여 알고있습니까?》 하시는 녀사의 음성이 들려왔다.

《알고있습니다!》 대학생들이 합창하듯 대답을 리였다.

《오늘 이 건설장엔 김제원농민도 오셨답니다. 저기 계시는 저분입니다.》

녀사께서는 꽃다발을 사양하시며 녀대 학생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었다.

녀대학생들은 막무가내로 녀사의 곁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한사코 꽃다발을 받지 않으시는 녀사를 뵈옵는 순간 김로인은 걱정이 차올라 숨이 가빠지었다.

눈앞이 흐려와 앞이 보이지 않았다.

다음순간이었다. 미처 어쩔사이도 없이 뭉클 풍겨오는 꽃향기에 온몸이 동실 뜨는듯 했다.

꽃다발을 안은 녀대학생들을 앞세우신 녀사께서 어느새 앞에 다가오신게 아닌가?

감격의 선풍이 온몸을 휘감았다. 건설장에 박수 소리, 찬탄의 목소리가 울리었다.

갈데없이 어제 양복점녀인들속에 묻혀 환대를 받던 그대로이다.

(아, 만민의 축복속에 떠받들리셔야 할분은 다름아닌 녀사이신데 그이께서는 이 늙은이만 내세워주시누나. 녀사님!)

4

김로인이 저택에 온지 사흘째되는 날이었다.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는지 별로 손님들이 많았다. 어떤 손님은 차를 타고 오기도 했다. 얼핏 보기에도 퍼그나 지체가 있어보이는 손님이었다.

무슨 일인지 알고싶었지만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

혹시 장군님께서 무슨 기별이라도 보내신게 아닐까? 인차 오신다고...

얼핏 이 생각이 들자 며칠 기다리라던 녀사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런데 김정숙녀사는 왜서인지 보이지 않았다. 어디에 가셨을까?

마침 마당으로 옥분이가 나타났다.

김로인은 반가와 그에게로 다가갔다. 이때 또 손님들이 들어서는 바람에 로인은 주춤해지었다.

옥분은 로인과 말할 사이도 없이 손님들을 안내하며 안으로 들어가버렸다.

김로인은 잠시 마당에 서있었다.

저렇게 모두들 바쁠 때 그도 무엇이든 돕고싶었다. 부엌일이 제일 바쁜것 같았지만 촌령감이 무엇을 할텐가. 터발도 김 하나 없이 깨끗했고 마당도 반반했다. 그렇다고 우두커니 서있자니 더 거북했다. 마당이라도 다시 쓸 생각으로 구석에 있는 마당비를 잡으려는데 《로인님!》 하는 귀에 익은 상냥한 음성이 들려왔다.

어디에 가셨는지 얼굴이 발가우리 상기된 녀사께서 다가오시었다. 그이께서는 마당비를 빼앗으며 어서 들어가시자고 재촉하시었다.

김로인은 영문도 모르고 녀사의 손에 끌려 방으로 들어갔다.

녀사께서는 땀들일 사이도 없이 안고오신 보자기부터 풀어헤치시었다.

그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왜 불러들이시는지 몹시 궁금했다.

김로인은 허리까지 굽히고 들여다보았다.

보자기안에서는 뽀얗게 운무가 흐르는듯 한 회색빛갈의 새옷이 나왔다.

녀사께서 새옷을 쳐드시었다. 그것은 새로 지은 바지저고리였다.

《자, 이 옷을 입어보십시오.》

녀사께서 저고리를 쳐드신채 말씀하시었다.

김로인은 당황하여 물러앉으며 중얼거리었다.

《녀사님, 저는... 저는...》

김로인은 자기가 입고있는 검은색두루마기를 내리쫓으며 허둥거리었다.

《로인님, 자 어서요.》

녀사께서 살뜰히 권고하시었다. 그 친절한 권고를 마다한다면 죄로 될것 같았다. 하는수없이 녀사께서 하라시는대로 팔을 껴며 새옷을 입었다.

녀사께서 손수 속고름을 매주시며 옷차림을 보아주시었다.

눈앞이 뿌연게 흐려지었다. 모든것이 안개속에 가리워지는듯 했다.

...

《말이야.》...

아득히 흘러간 세월을 거슬러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듯 한 착각에 김로인은 몸을 흠칫했다.

《오늘은 날이 찬데 이걸 더 껴입으렴. 이 수건도 감고...》

옷을 더 껴입고 수건까지 목에 감으니 가드라들던 사지가 쭉 펴지는듯 했다. 훈훈해진 가슴을 안고 어머니가 밤새워 바느질한 자리를 살펴보았다. ...

로인은 눈물이 글썽해지었다. 그때 입은 옷은 아버지가 입던 낡은 옷이었다. 이런 새옷이 아니었다.

로인은 어머니의 얼굴모습을 그려보느라 생각을 더듬었다. 가름하던지, 동실하던지. 웬일인지 해쓷한 얼굴로 치마자락을 날리며 서있던 모습만 얼른거리었다.

《됐어요. 참 옷이 날개라고 하더니.》

녀사께서 자못 기쁘시여 김로인이 입은 새옷을 끌어내리시었다.

순간 김로인은 눈앞이 흰해지는것을 느끼었다. 이제껏 안타깝게 찾아보던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이 순간에 똑똑히 나타난것이다.

바로 김정숙녀사의 모습인것이다.

그이께서는 무척 기쁘신 얼굴로 이리 보고 저리 보시며 미소를 지으시었다.

김로인은 자기의 나이가 이제 예순이 다 된 로

인이라는것을 까맣게 잊고 어머니앞에 선 자식처럼 녀사를 바라보았다.

《로인님, 어서 돌아서서 좀 보십시오.》

녀사께서 김로인에게 벽의 거울을 가리키시었다.

김로인은 돌아섰다. 웬 멀끔한 사람이 마주쳐다 보는 바람에 몇번이나 눈을 슴벅거리었다.

이제 정녕 나란 말인가, 지난날 배잡뱅이도 제대로 걸칠게 없던 그 천덕꾸러기란 말인가.

생각할수록 꿈만 같아 옷을 내리쓸다가는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보기도 했다.

거울속에 나타난 구옥분이가 환성을 올렸다.

《어마나... 야, 정말 멋있구만요. 색깔도 참 잘 어울립니다.》

옥분이의 말에 김정숙녀사께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양복점동무들이 수고했어요. 로인님, 이제 평양거리에 환하게 어울릴겁니다.》

《?!》

김로인은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었다. 거무칙칙한 차림때문에, 주눅이 든 자기때문에 원심을 쓰셨을 녀사를 생각하니 자꾸만 가슴이 후더위를 랐다.

《녀사님, 다 도착들 한것 같습니다. ...》

옥분이가 녀사의 귀가에 대고 소곤거리었다.

《그래요?》

녀사께서 환히 웃으시며 김로인을 돌아보시었다.

《로인님, 우리 이제 저쪽 방으로 가십시다.》

《(저쪽으로?)》

김로인은 복도끝에 있는 큰 방을 바라보았다. 그다음부터 어째서인지 긴장해지었다. 심장이 자꾸만 뛴뛰었다. 아무리 커다란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아도 진정이 되지 않았다.

녀사께서 방문앞에 서시자 김로인은 해빛을 보는 때처럼 눈앞이 시그러워지었다.

녀사께서 방문을 활짝 여시며 김로인을 먼저 앞세우시었다.

심호흡을 크게 하며 방안에 들어서던 김로인은 흠칫 놀라 한발 뒤로 물러섰다.

기다란 상이 놓인 방안에는 낫모를 손님들이 둘러앉아있는게 아닌가? 상우에는 갖가지 음식그릇들이 놓여있다.

발가우리하면서도 연분홍색이 연연히 내비치는 납작납작한 지짐이 제일먼저 눈에 띄었다.

요란한 박수소리가 터지었다.

《로인님, 여기에 앉으십시오.》

녀사께서 비어있는 앞자리에 앉혀주시고 두손을 앞에 모아쥔신채 가볍게 고개를 숙여보이시었다.

《모두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녀사께서는 허리를 굽히시고 김로인에게 속삭이듯 말씀하시었다.

《로인님, 여기 손님들은 모두 로인님을 위해

오신분들입니다. 오늘이 바로 로인님의 생일입니다.》

(생일이라니?) 김로인은 놀래여 고개를 쳐들었다. 이제껏 살면서 생일을 생각해 본적이 없는 그였다.

녀사께서 가득 채운 술잔을 받쳐들고 로인을 바라보시었다.

《로인님, 건강하시여 오래오래 앉아계십시오.》

김로인은 받을념도 못한채 녀사를 우러르기만 했다.

《로인님, 어서 받으십시오.》

구옥분이가 옆에서 속삭이는 말이였다.

《이건 살구꽃을 넣고 지진 화전입니다. 김정숙녀사께서 손수 지진겁니다.》

김로인은 하마트면 《혁》하고 잔을 떨어뜨릴변했다. 그는 잔을 움켜쥔채 어깨를 떨었다. 화전을 지겨준다고 입버릇처럼 외우던 고향의 어머니의 넋이 그 어디서 굶어보는듯 했다.

고소한 냄새가 또다시 향수를 불러오며 목을 메게 했다.

《그리고 이 차떡은 로인님이 가져온 쌀로 친것입니다. 녀사께서는 이 상차림떡만 남기고는 모두 로인님의 이름으로 종합대학건설장에...》

옥분이의 목소리도 더 이어지지 못했다.

김로인의 주름진 볼로 뜨거운 눈물이 줄지어 흘러내리었다.

(아, 녀사께선 어찌면... 어찌면... 그 쌀마저도...)

이윽고 손님들이 차례로 로인에게 잔을 권했다.

다부진 몸에 군복을 입은 사람이 다가왔다.

《로인님, 이분은 왜놈들을 벌벌 떨게 하던 경위중대장입니다.》

구옥분이가 옆에서 소개를 했다.

《로인님, 제 언제부터 애국농민을 꼭 만나고싶었는데 반갑습니다. 백두산에서 싸우던 우리 전우들의 인사를 받아주십시오.》

항일투사인 그가 깍듯이 인사를 하자 김로인은 황송하여 맞인사말도 찾지 못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이번에는 양복을 입은 나이든직한 사람이 나섰다.

《이분은 **김일성** 종합대학 강좌장선생님입니다.》

옥분이의 소개가 끝나자 강좌장은 김로인앞에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했다.

《우리 대학 전체 교직원, 학생들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다음은 노동자, 농민, 학생대표들...

김로인은 눈앞이 흐려와 더는 축복잔에 잔을 찹을수가 없었다.

《로인님,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신 로인님은 응당 만사람의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어서...》

김정숙녀사께서 친히 로인을 부축하시며 따듯하

게 말씀하시였다. 이 세상 더 바랄게 없으신듯, 오늘처럼 기쁜 일이 더는 없으신듯 녀사께서는 환히 웃으시였다.

(아, 김정숙녀사님!)

걱정으로 달아오른 김로인은 더는 참지 못하고 감격을 터치였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 이름도 없던 천덕꾸러기입니다. 그렇게 한생 늙어오면서 생일이라는건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생에서 처음으로 분에 넘치는 생일상을 받아안았습니다. 그 누구도 기억하고 차려줄 생각도 못했던 생일상을 바로 김정숙녀사께서 차려주시었습니다. 생일상뿐입니다. 온 나라가 다 알도록 축복까지 받게 해주시

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중단했다. 열려진 창가로 봄하늘이 내다보였다.

아, 해빛이 재글거리는 봄하늘! 저끝은 어디일테노 따사로운 해살이 뿌려지는 봄하늘로 온몸이 그 대로 동실동실 날아가는듯 했다.

로인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듯 한 환희에 잠기였다.

《여러분, 우리모두에게 크나큰 사랑을 주시는 김정숙녀사의 품은 정말이지 저 해빛 찬란한 봄하늘처럼 따스롭고 끝이 없습니다.》

김로인은 더 말을 잊지 못했다. 대신 장내에는 오래도록 박수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어머님의 눈빛앞에

최 주 원

그 언제 찾아와도
그 언제 바라봐도
솔푸른 여기 주작봉마루에서
어머님눈빛이 가닿는 곳은 하나

수령님 우리러 한길만을 걸어온
영생의 별들을 대오로 거느리시고
어머님 오늘도 바라보시는 그곳은
아, 수령님 계시는 금수산

그 한곳이었구나
어머님눈빛이 가닿는 곳은
수십성상 항일의 그 시절부터
변함없이 우리러온 그 한곳

한마음 수령님 우리름이 없이는
삶도 희망도 미래도 없었기에
피의 바다 불의 바다 헤쳐넘으며
백두에로만 향하신 어머님눈빛

적후천리 지하공작의 밤에도
철창속 어두운 감방속에서도
안고계신 등대는 단 하나
사령부불빛

정녕 시련의 날에나 기쁨의 날에나
항시 우러르신 그 한곳이기에
백두의 천만리에 변함이 있었으랴
수령님께 향한 그 일편단심

위대한 그 눈빛에서 어려오누나
수령님 웅위하신 대사하언덕
한몸 서슴없이 내대신 그 행복에
뜨겁게 흘러시던 웃음속의 그 눈물...

승엄한 그 눈빛에서 실려오누나
그처럼 그리시던 고향도 지척에 두시고
수령님 받들어 건국의 길 재촉하신
부령의 갈림길 자동차경적소리...

아, 오늘도 그 눈빛
해를 넘어 세월을 넘어 오직 하나
수령님 계신 그 한곳만을
우리러 지켜서신 어머님의 눈빛이여

경건히 머리들어 다시 바라보니
어머님 그 눈빛속에
내 한생 따르며 이어가야 할
장군님의 전선길이 비껴흐르네!

조선속담

형 용

- 공작새사이에 끼인 까마귀
- 눈에 삼삼 귀에 쟁쟁
- 닭의 목을 베(취)고 자다
- 하늘소 하품한단다
- 도끼를 베고 잤나

- 도깨비씨름
- 물 만난 오리걸음
- 불구경가는 게사니걸음
- 백모래바탕에 금자라걸음
- 솜뭉치로 사람을 때린다
- 식은죽 먹고 뽕방에 앉았나
- 잔나비 잔치라
- 장님이 외나무다리 건너간다

소백수물소리 외 1편

서진명

푸른 숲 설레이는 청봉속영지에서
맑은물 일렁이는 삼지연못가에서
그토록 뵈고싶던 어머니 생각
백두밀영고향집 가까이 할수록
더더욱 사무쳐

울렁이는 마음
더더욱 진정할수 없구나
반기듯 소리치며
소백수팔에서 마주 흘러와
이 가슴에 흘러드는 용융한 물소리

찾는듯 부르는듯
저 물소리에 실려오는것 아닌가
고향집문을 여시고
나를 마중해주시는 김정숙어머니
정깊은 그 목소리

물결을 거슬러
물소리에 이끌려
한자욱 또 한자욱
승엄히 오르는 걸음걸음

떠나는 길 따라서며

찾아올적에는
멀리까지 마주 흘러와
나를 마중해주더니
떠날적에는
걸음걸음 따라서며
나를 바래워주는가

소백수물소리 소백수물소리
산굽이를 에돌면
저도 바삐 산을 에돌며
함께 가자 출렁출렁
언덕아래로 발길 급히 옮겨가면
바위즈렁 날아넘으며
늦을세라 하얀 물보라

오랜날을 두고
발전소건설장에서
완공의 보고 안고 가리라던
그립던 정 다 풀고도
떠나자니 아쉬워
다시 뒤를 돌아보면

따라서는 맑은 소백수물결
흔들리는 푸른 잎새사이로

마음 먼저 이끄는 소백수물소리

항일의 그날
사령관동지를 찾아오던
빨찌산공작원들 그 마음처럼
백두산의 후손 내 마음에도
소백수물소리 너 먼저 반기니
어머니의 마중을 받는것만 같구나

천리 먼 답사길에
발이 부르뜨지는 않았는가
다정히 물으시는듯
백두산을 알아야 조국을 알고
혁명의 뉘를 더 깊이 새긴다고
오늘도 다정히 말씀하시는듯

아 나는 분명 듣는것만 같아라
먼길에 수고 많았다고
나를 반겨 마중하며
소백수물소리에 실어
오늘도 더 크게 울려주는
어머니의 그 목소리

잘 가라고 손 흔들어주시는
군복 입으신 어머니모습
금시 뵈올듯

유정한 그 물소리로
설레는 마음 진정 못하게 하며
소백수야
너 진정 어디까지
어디까지 날 바래워주려느냐

가슴에 젖어드는
이 심장 세차게 뛸뛰게 하는 물소리에
몸은 떠나가도
마음의 뿌리는 백두산에 두고살라시는
김정숙어머니 당부가 어린듯

내 언제나 들으리
심장에 안고 살리
가고갈 인생의 천리길
혁명의 만리길에
나를 부르는 어머니 그 목소리로
언제나 이 심장 뛸뛰게 할
아, 소백수물소리!

언어형상과 작가의 얼굴

—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 장편소설 《녀성의 노래》를 두고 —

한미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기 문체를 못 가진 작가는 진짜 작가가 아니다. 작가라면 자기의 뚜렷한 언어적개성을 가지고 창작에서 매번 남과 구별되는 독특한 언어형상을 들고나와야 한다.》

씻은 배추처럼, 데친 나물처럼, 두부자루처럼, 빨래줄에 얹은 제비처럼, 독에 쌀이 그득한 주부처럼, 매돌안에서 돌아치는 난알처럼, 혈벗은 아이처럼, 솜뭉치에 싼 바늘처럼, 난알을 팽팽히 쭈서넣은 벼가마니처럼, 얼레빗같은 반달, 움안에서 떡 받아먹듯, 손바닥의 물처럼...

실로 끝이 없다. 그것은 마치 샘과도 같다.

샘, 생활의 웅달샘 아니, 나는 다르게 본다. 그것은 체험과 열정과 지혜의 샘이다.

그 샘가에 한 녀류작가가 앉아있다. 샘물에 손을 잠근다. 그 손끝에서 퍼져나가는듯싶은 파아란 잉크빛...

《조선녀성들처럼 남편을 위하고 자식을 위하고 부모형제들에게 헌신적인 녀성들이 이 세상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우리네 부녀자들의 가슴엔 마를줄 모르는 샘과 같은 정과 사랑이 줄창 샘솟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녀성들의 진할줄 모르는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말씀이 그들이 샘가로 불렀는가.

그는 우리 녀성들의 가슴에 줄창 샘솟는 정과 사랑을 쪽박으로가 아니라 펜으로 퍼내기 시작하였다.

앞서 펴져한 십여개의 표현들이 그가 퍼낸 무수한 언어중에서의 극히 일부이다. 줄창 잇닿은 직유들의 연속에서 우리는 헌신과 사랑이 체질화된 조선녀성의 얼굴을 보게 된다. 더 구체적으로는 물물은 손과 땀기 흐르는 이마 그리고 이악하게 꾸린 살림살이를 본다. 이를 묘사함에 있어서 직유가 남달리 적극 활용되었다는 점이 이채를 띤다.

직유란 무엇인가. 직유는 은유처럼 숨기지 않으며 환유처럼 바꾸지 않는다.

직유는 다만 《처럼》, 《같이》, 《마냥》 같은 것으로 대상을 곧바로 가리킨다. 곧바른 그만큼 남달리 직관적이고 감각적이고 생동하다.

누구나 다 직유를 안다고 한다. 그러나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 장편소설 《녀성의 노래》(김

영희 작)에 비준다면 쉬이 장담키 어려울것이다.

무수히 쓰인 직유가 모아서 하나의 개성을 이루고 개별적묘사대상의 특징은 물론 작가의 얼굴까지 표상하게 하는 그런 직유가 필요하다. 그러자면 형상대상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해야 하고 파악된 대상을 직관적인 언어, 생동한 언어를 통하여 비반복적으로 묘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작가는 우선 녀성의 세계를 그려안았다. 그자신이 녀성인것으로 하여 그 필요성이 더욱 절박하였다. 그는 적중한 성격, 사건, 사물현상들을 녀성고유의 본능, 녀성이 맡은 소임의 견지에서 포착하였다. 포착된 모든것은 녀성문제에 관한 제나름의 형상과제를 안고 엄밀하게 배열되었다. 이제는 언어구사력문제이다. 하여 작가는 비유의 세계속에 뛰어들었고 직유, 은유, 의인 등 가지가지 다양한 비유수법들중에서 직유를 기본으로 틀어잡았던것이다.

...

물바가지 건네주듯, 낫은 옷 갈아입듯, 문양돈친 새 치마를 두른듯, 김빠진 송충처럼, 너울을 쓴 신부처럼, 제 집 못바리처럼...

물론 작가가 새로 꾸민 직유도 있고 일부 소설들에서 상투적으로 쓰이던 직유도 있다. 그런데다 새로와보이는 원인이 무엇인가. 판은 어떻든간에 모든것을 형상대상의 고유한 특성에 부합되게 선택고찰하고 그를 개성적으로 표현하려고 애쓴 작가의 정신력과 재능이 이에 안받침되었기때문이다.

직유의 주도하에 은유, 환유, 의인법들이 따라서 뒤질세라 과장이 끼여들어 섬세하게, 방불하게 채색하는 화폭을 보라.

《보부네 논벼는 장하기도 하였다. 선들바람이 불자 누렇게 익은 벼이삭들이 총알처럼 팡팡여문 벼알무게를 이기지 못해 고개를 짓숙이고 파도마냥 일렁이는것이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벼대가 얼마나 실하고 아지가 많이 찼는지 엉킨 벼이삭우에 강아지를 올려놓아도 끄떡하지 않을것 같았다. 거름을 흙썩 먹은 벼가 한창 독을 쓰며 자랄 때에는 우쩍우쩍 키를 솟구는 소리에 동리개들이 온밤 자지 않고 짖어대기까지 하였었다.》

《늘 회색빛으로 쭈그리고 앉아 설움에 떠는 아낙네처럼 애달파보이던 마을이 어느결에 새색시처럼 단장을 하고 나앉은것이였다. 집집의 처마밑엔

눈같은 목화솜이, 산호같은 고추타래가 주렁주렁 매달렸는데 지붕우에선 희고 푸른 박들이 익어가고 빨간 고추가 타는듯이 붉었다. 고삭은 울타리에서마저 호박이며 당콩넛줄이 푸른빛, 누른빛으로 영켜서 문양돋힌 새 치마를 두른듯 하였다.》(직유, 의인, 파장)

잇달아 《양단저고리》가 화를 내고 《도람통》이 무작정 목총을 빼들며 《밤색외투》가 생색을 내고 《치마가 한부엌》 차가지고 돌아치는 모양들(환유)이 펼쳐지는 기세는 갈수록 충천이다.

무한한 자연, 복잡다단한 인간생활을 너인의 모성애와 너인의 근로, 너인의 웃음과 눈물의 각도에서 집요하게 고찰한 그 집착력.

한손에는 작가와 형상대상의 일치라는 떼땀한 《행운》을 틀어쥐고 다른 한손에는 형상적비유의 세계를 틀어쥐고 해방후의 절박한 여성문제를 주동적으로 다루어낸 작가의 욕심과 재능이 참으로 부럽다.

×

잠간 숨을 돌리면서 나는 생각한다.

사실 직유나 은유, 의인, 파장들은 언어형상에 쓰이는 가장 보편적인 수법들이다.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는 이 론의가 구태의연하게 느껴질듯 싶기도 하다.

작가라면 누구나 다 이러루한 《형상적비유의 도움을 받으면서》 문장을 꾸미기마련인데 별로 새삼스러이...

이때 나는 녀류작가와 한목소리로 이를 부정한다. 형상적비유의 도움을 받는 정도로 만족하지 말라. 반대로 형상적비유의 온갖 수법들을 틀어쥐어야 한다. 아무 형상에서나 주되는바에 모를 박고 집약화, 집중화해야 하는만큼 언어형상에서도 이런 요구가 엄밀히 부합된다. 때문에 작품과 작가를 특징지을수 있는 일정한 수법을 내세우고 그를 각광으로 조명하여 부각시키는것도 언어의 개성화에 좋은 경험으로 될것이다.

앞서서 직유의 경우가 그것이였다면 부사활용에서 상징부사에 모를 박고 그를 집중적으로 구사한것도 하나의 레증으로 된다.

행동부사, 상태부사, 부정부사, 상징부사, 문장부사 등 부사의 여러 갈래중에서 상징부사를 틀어쥔 작가의 의도.

혀를 길길, 땀을 뻘뻘, 힘을 끙끙, 벽에다 탕탕, 뽕지를 초썩... 과 같은 무수한...

여기서는 강한 느낌(된소리)과 탄력성(거센소리)이 조화로이 어울린다.

발랑발랑, 쪼각쪼각, 쫄각쫄각, 오롱이 조롱이,

박박, 뽀지뽀지뽀지, 바질바질...과 같은 역시 무수한...

모음중에서도 무겁고 느리고 침침한감을 주는 어두운 모음끼리는 될수록 피하고 가볍고 빠르고 친근한감을 주는 밝은 모음끼리에 모를 박아 활용한 능숙한 솜씨뒤에 작가의 의도가 있다. 작가는 이러한 상징부사의 집중적구사으로써 정찬 웃음과 경쾌한 걸음걸이, 날렵한 일솜씨로 가정과 사회에 윤기를 주는 조선녀성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려고 한것이다.

샘, 생활의 웅달샘.

언어의 웅달샘.

정과 사랑이 줄창 샘솟고 직유와 상징부사가 줄창 샘솟는 그 원천은 무엇인가.

무한하면서도 고유한 녀성세계, 무한하면서도 특징적인 녀류작가의 재능과 열정이 그 샘의 원천이었다.

×

하나의 웅달샘을 두고 한 작가를 다 론하기는 어렵다.

《자고로 위대한것은 민중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근본으로 된다고 하였네. 이제 어지러워졌던 마음의 샘을 가지고 큰힘으로 뿜어오르기 시작한 민중의 힘은 합쳐지고 또 합쳐져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될것세. 한방울의 물방울이 마르지 않으려거든 그 흐름에 뛰어들어야 한다네. 어서 가라구. 김장군과 김녀사께로 가라구...》

남조선민주녀성동맹위원장 류영준에게 하는 지성림의 이 말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하나의 샘이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는것처럼 이렇게 되자면 마땅히 작가의 체험과 사색이 동반된 뜻깊은 생활철학이 있어야 한다. 이는 작가에 의하여 새롭게 발견되고 형상적으로 심화된 생활진리의 깊이로 담보된다.

작가는 사회정치적, 시대력사적견지, 료리도덕적, 생활세태적견지 등의 각도에서 새로운 진리를 도출하기 위하여 일생 꾸준히 탐색한다. 때문에 작가를 두고 생활의 박식가, 인간정신의 기사라고 부른다. 하다면 발견된 진리를 어떻게 표현할것인가. 물론 진리는 그자체만으로도 마땅한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작품안에서의 진리는 본질 자체와 함께 그것이 형상적으로 심화될 때라야만 교양적기능, 인식적기능과 함께 정서적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작가가 발견한 철학을 그저 철학이라고 하지 않고 생활철학이라고 하는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생활속에서 발견할뿐아니라 형상적으로 심화

시키고 그에 어울리는 언어로 표현하는데까지 이르러야 진실로 값있는 생활철학이 될수 있다.

《이번에 녀맹창립대회에서 연설하면서 나는 그 정의를 형상적으로 녀성문제란 곧 모든 녀성들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역군으로 키우는것이라고 했소. 수레는 두바퀴가 다 굴러야 전진하지 한바퀴만으로는 갈수가 없소. 혁명과 건설도 마찬가지요. 녀성들을 아이나 낳고 밥이나 하고 남자의 뒤시중드는 시중군으로가 아니라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 담당자로 여기고 품들여 키우는것이 녀맹의 임무요.》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녀성의 존엄과 권리, 사회적의무에 대한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시여 조선녀성의 숙원을 마침내 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이 말씀.

《남존녀비》, 《삼종지도》, 축첩, 조혼, 매혼, 민며느리설음... 실로 가난과 불평등이 낳은 가지가지 악습의 희생물로 수천년이나 위축되어 살아온 조선녀성의 수난사가 바야흐로 끝장나게 됨을 예고하는 진리의 선언.

거창한 바다를 련상시키는 이 위대한 진리를 작가는 소설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라는 지극히 생활적인 언어형상으로 알기 쉽게 함축하였다.

《덕레, 간장이 어떻게 제맛을 내게 되는지 알아요? 장독에서 메주와 소금물이 어울려 잘 삭아야 하는거예요. 잘 썩은 메주와 부패를 막는 짠 소금이 서로 견제하면서 곰삭는 과정은 아마 몹시 쓰리고 아플거예요. 그러나 그 속삭는 고통을 참고견디여내야 짜면서도 달고 구수하고 모든 음식에 들어가 맛을 내는 간장이 되는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런 속삭는 과정을 거쳐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거야요. 청송동무도 지금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있어요.》

소리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한없이 부드럽고 은근하면서도 듣는 사람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이 말씀.

남자들이 생활의 시련속에서 허청거릴 때 그를 일떠세우는건 녀자의 살뜰한 정이라는 철학이 간장이 제맛을 내는 과정에 비유되어 통속적으로 밝혀진다.

《...어쩐지 나는 그날 아버지를 찾고 어머니를 찾고 오빠를 찾은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있어 부모와 같았으며 그분의 품은 나의 집이었습니다. 나는 그 품에서 장군님의 정을 공기처럼 마시고 밥처럼 먹으며 살았답니다.

난 행복했어요.

끓어도 배고픈줄 몰랐고 찬눈속에서도 추운줄을 몰랐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전투에서 이기고

그분을 받들면 조국이 광복된다는것을 추호도 의심치 않았습니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장군님을 본받으려고 무진애를 다 썼습니다. 인간으로서나 혁명가로서나 그분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게 내 삶의 전부였어요. 그게 나의 사랑이었다고 할가. 그저 그래요.》

이 소설이 도달한 언어형상의 극치는 바로 이 대목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사이의 관계를 참다운 수령관, 혁명관, 도덕관의 견지에서 가장 숭고하고 아름답게 또 가장 수수하게 전하는 매혹적인 언어형상.

화려한 수식어도 없고 난해하지도 않다. 부모형제가 있고 밥을 먹고 공기를 마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리해하고 끌려든다.

보통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도달할수 없는 비상한 세계를 그토록 평이하고 소박한 언어로 깨우친 작가의 수완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친위전사로서의, 투사로서의, 녀성으로서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삶의 전부를 흔히 쓰는 생활용어로 미끄러지듯 밝혀낸 그 묘사력.

나는 여기서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지니신 위인세계에 대한 예술적 형상화에서 언어에 기울인 작가의 남다른 사색과 탐구의 깊이를 가늠한다.

생활의 강, 진리의 강의 흐름은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기마련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밝히시는 뜻깊은 진리를 중심으로 하여 수많은 등장인물들의 시점에서 가지가지의 생활진리들이 바다로 향한 흐름에 뛰여든다.

이때의 언어형상은 경험, 교훈, 권고, 해학, 풍자 등으로 친숙한 속담, 격언의 활용으로 특징지어진다.

—《백성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어엎기도 한다고 했소. 중요한건 민심을 얻는거야요. 지금 남북의 민심은 온통 **김일성**장군께로 쏠리고있어요.》

—녀자의 심장은 예언자라고 했는데 어머니의 심장은 더욱 그러하였다.

—소가 죽으면 며느리를 맞는다고...

—얼굴생김이 몸생김만 못하고 몸생김이 마음생김만 못하다고 했거늘...

—《술은 부뚜막에 걸려야 하고 절구는 헛간에 들어가야 하는것처럼 녀편네는 부엌에 있어야 돼.》

—깊은 강물을 어이 짧은 샣대로 재일수 있으랴.

—《임자, 알아두라구. 옛적부터 녀자는 제 마당 천리를 돌아야 집살림이 반짝반짝 한다고 했어. 마을돌이 천리를 해봐야 주먹질밖에 더 차례

질라구.》

《그따위 미전집시라소니 하늘에 대고 백번 주먹질 하래요. 어쨌든 우린 보부덕에 눈을 떴어요. 보부가 마을돌이 천리를 하는 덕에 흐리멍텅 하던 마을아낙들 눈이 반짝반짝 났단 말이우다.》

속담, 격언들이 형상에 스며어들어 즙을 내는가 하면 씹여지는 족족 긍정적 혹은 부정적성격이 더욱 뚜렷해진다.

될수록 너인과 직결된 내용의 속담, 격언들을 탐구적용한것도 언어형상의 개성화를 위한 작가의 주도적자세로 느껴진다.

《너사께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시며 죽을 또 권하였지만 동이 터진 눈물은 걸잡을수 없이 자꾸만 솟구쳤다. 별로 울어본적 없는 그였다. 이국살이 10년에는 한번도 운적이 없었다. 그는 강한 녀성이였었다. 눈물은 곧 나약성의 표현이었던가, 아니 그는 울면 울수록 자기가 잃었던 그 무엇을 얻는것만 같아졌다.》

작품의 중요인물인 현정심의 내심에서 이러한 격정이 자주 토로되는데 그 하나하나가 다 새롭게 터득하는 의미깊은 생활진리로 일관되어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 작가에게는 체질화된 자기 식 언어가 있고 그 표현방식도 남다르다.

그의 언어는 녀성문제의 해명으로 가는 언어답게 굵이 뚜렷하다.

녀성세계에서 끝없이 샘솟는 언어, 그 언어들이 모이고 합쳐져 진리의 강을 이루고 그것이 또 바다로 향한다. 언어가 무수할수록 개개로 참신하게, 깊은 진리일수록 보다 평이한 언어들을 골라 표현한 형상적비결은 무엇인가.

형상적비결이전에 사상적비결이 있다. 이 소설을 두고 혹간의 론자는 작가와 형상대상의 우연의 일치를 어느 정도의 비결로 보고있다.

얼핏 타당한듯도 싶으나 그것은 극히 실무적이며 피상적인 론거이다.

작가와 형상대상의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사상적인 일치, 운명적인 일치가 그 근본비결이다. 누구나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과 형상대상과의 관계가 사상적인 관계, 운명적인 관계로 밀착되었는가를 자문해보아야 한다. 이에 따르는 언어형상문제는 언어형상에 문학의 비결이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자기의 피와 살로 여기고 창작에 얼마나 구현했는가 하는 심각한 사상적문제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하고싶은 말도 많고 의의있는 사상을 이야기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말이 모자라 표현하지 못하는 작가는 언어의 예술가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언어탐구에 품을 넣지 않은 작품은 내용도 볼맛

이 없다고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말씀을 뼈에 새기고 언어형상에 뼈심을 넣어야 한다. 이 소설의 경우에는 형상수단과 수법에 정통하고 그것을 자기 의도에 맞게 주동적으로 활용한것, 인민적이고 통속적인 언어의 집중적구사가 그 비결로 된다.

×

이 글이 언어의 완벽성에 관한 론의가 아님을 덧붙인다.

이는 한 녀류작가가 문단에 들고나온 언어적개성에 대한 론의이다. 필자도 평자도 같은 녀성이라는 우연중의 필연에 끌리다보니 평자로서 시종 견지해야 할 리성적자세가 약간 흐트러지고 도간도간 공감과 흥분을 앞세운 흔적이 스스로 눈에 뜨인다.

그러나 구태여 지우고 덧쓰고 하고싶지 않다. 장편소설 《녀성의 노래》가 녀류작가의 얼굴인 것처럼 이 글 또한 내 모습이 살아있는 평론이 되어야 하기때문이다.

빼어난 《미인》을 낳지 못했다고 그 어머니를 탓하는 사람은 없다.

그보다는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찾으려 애쓴다.

사랑과 정, 눈물과 웃음, 소원과 열정을 깡그리 기울여 자기 얼굴, 자기 목소리가 살아있는 일생의 첫 장편을 출생시킨 어머니-녀류작가는 행복하다.

상 식

유전 자 지 문

다 알고있는바와 같이 지문은 손가락의 피부무늬모양이다. 그것을 얼핏 보면 서로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에서 지문이 같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지문과 같이 세상에는 유전자가 완전히 같은 사람은 없으며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차이난다고 한다.

과학자들은 유전자비밀을 밝혀내어 특수한 처리를 거친 후 일종의 도안인 《유전자지도》를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바로 유전자지문인것이다.

유전자지문은 보통지문과 같이 범죄자를 밝히는데서 큰 방조를 주고있다. 현대적인 과학기술성과로 하여 한방울의 피, 한오리의 머리털에서도 범죄자의 유전자지문을 찾아낼 수 있다.

날 보고 위성처녀래요

박 인 파

솔푸른 나지막한 산언덕
앞산에 진달래 곱게 물든
봄날도 제일 좋은 이 봄날에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찾으신
아버지장군님

《광명성2호》 발사를 보시고
그리도 만족하시여
우리를 품에 안고 찍어주신 사진
신문에 크게 났어요
온 나라가 그 순간에 나를 알았어요

어마나 어쩌면 좋아
영광의 기념사진 맨가운데
키작은 내 모습
너무도 꿈같은 순간이어서
발꿈치 들 생각도 잊었어요

생각나세요 어머니
대학을 졸업하고
첫 출근하던 그 아침
키가 작은 이 딸의 옷깃을 여며주며
총각들 눈에 꽤 찰가
은근히 걱정하던 그때가

아마도 잊지 않을거예요
위성연구론문을 펼치고
만점짜리 씨알같은 수자들을 찾아주던
우리 실의 정열가 철이오빠
체소한 내 모습을 두고
광활한 우주로 개발해낼수 있을가
실망어린 눈빛이 비껴오던 그 새벽을

나라고 어찌 모르겠나요
처녀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싶어하는
그 아름다움과 그 세련미를
때로 일기장 한구석에 남기기도 했어요
하루밤에 한뼘씩 크는 법은 없을가

중학시절
《7.15최우등상》 남먼저 받을 때도
대학시절

《대학생과학탐구상》 메달을 받을 때
나를 축하해주는 못시선들의 눈길속에서도
그 아쉬움이
항상 호젓하게 앉아있던 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꿈만 같은 영광의 그 시각
《광명성2호》 발사를 앞에 두고
컴퓨터건반우의 재빠른 나의 손동작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는
아버지장군님앞에서
문득 내 심장이 커지는 소리가
쿵쿵 울렸어요
용맹의 기개가 나래치는듯
내 어깨가 우썩우썩 자라는것 아니겠어요

한초 또 한초...
위대한 격류가 차넘치는 그 순간
드디어 폭풍치며 날아오르는 《광명성2호》
아, 나는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러
르며
뜨겁게 달아오른 심장과 속삭였어요

내가 것처럼 열렬히 희망하던
과학의 세계우에 올라 디딘 곳 예 아니던가
그리고 조국앞에
한없이 아름다워진 위성처녀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싶었어요

정녕 이 땅우엔
아름다운 준마처녀들도 많고
푸른 들판 노래하는 종다리처녀들도 많지만
나는 아버지장군님 키워주신
과학의 키로
온 우주를 굽어보는 위성처녀

어머니 오늘은
영광의 기념사진 맨 가운데
내 모습을 보세요
사람들은 날보고 위성처녀래요
태양의 제일 가까운 곳에 빛나는
위성처녀래요

진아, 물을 주러 나가자

리 광 선

어느덧 동녘이 흰히 밝았구나
진아, 어서 나가자
저기 우리의 거리
너와 나 함께 심은 가로수
이 아침도 어서 물을 줘야지

보아라
창공에 술한 아지 펼치고
설레는 가로수
성공적인 핵시험 강산을 진동한
이 땅에 대한 다함없는 믿음을
그 설레임으로 속삭이는듯싶구나

진정 얼마나 존엄높은 땅이나
선군조선의 기상을 힘있게 펼치며
강성대국을 향해 내닫는
힘찬 발걸음이 지구를 울리는 땅
그 어떤 원썬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철벽의 땅

생각만 해도 가슴 뜨거워진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고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며
시련을 박차고 세기를 뛰어넘어
비약하는 이 땅에 푸른 아지 펼치누나

우리의 마음속엔
언제나 내리고있어라
우리 장군님 어깨우에 내리던
다박술초소의 그 흰눈이
맑은 날에도 마음엔 격랑치고있어라
초도앞바다의 검푸른 물결이

평범한 날에
《광명성2호》가 하늘을 날고
지하핵시험의 성공으로 세계를 진감시켰다면
이렇듯 우리 가슴 긍지로 부풀랴
그렇듯 원썬들이 기절초풍하랴

대홍의 산마루에 울리던 환호소리
지금도 우리 가슴 부풀게 하누나
우리의 축구공이 또다시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릴 때
아 가슴설레며 안아보던
승리자의 크나큰 자부심이어

아 위대한 령장의 발걸음따라
승리의 환호성 높이 울리며
강성번영하는 내 나라 대지우에
날을 따라 더욱 무성해지는
푸르른 가로수도 진정 못해 설레이누나

진아, 어서 물을 주자
이 땅을 위해 영원히 불타오를
우리의 사랑을 쏟아붓자
이 가로수의 그 설레임을 위해
우리 그 무엇인들 아낌이 있으랴

어느덧 해가 솟아오른다
바라보아라 맑고 푸른 저 하늘을
그 하늘아래
우리의 가로수 날을 따라 무성해지려니
그 하늘우에
아, 태양은 밝다!

상 식

《록색》CD 제조

최근 어느 한 나라의 과학자들이 새로운 《록색》CD를 만들어냈다.

컴퓨터자료와 음악, 영상자료를 기록할수 있는 이 CD는 강냉이알로 만든것인데 손으로 만져보면 일반CD와 다름이 없으며 외형도 일반CD처럼 번쩍거린다. 강냉이 한이삭으로 이런 생물분해형CD 10장을 만들수 있다.

이 CD는 제조원가가 일반CD보다 3배나 비싸지만 폐기되어 버리면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되는 좋은 점이 있어 환경보호에 유리하다고 한다.

가요 《내가 지켜선 조국》의 심오한 형상세계

강철국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거세찬 불길이 타오르는 전투장들마다에서 힘차게 울려퍼지는 신념의 노래들속에는 가요 《내가 지켜선 조국》(최준경 작사)도 있다.

강선의 봉화가 세차게 타오르는 사회주의건설장 그 어데서나 힘있게 울려퍼지는 가요 《내가 지켜선 조국》이 나오지도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가요는 조국에 대한 풍만한 서정을 펼친 세련된 시형상과 그에 잘 조화된 아름다운 선율로 하여 만사람의 가슴속에 깊은 정서적여운을 남기고 있다.

가요 《내가 지켜선 조국》의 가사는 높은 사상성과 풍만한 서정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명가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사는 몸가짜이에서 목격하고 체험할수 있는 실지생활이 비껴있고 친숙한 생활감정이 담겨질 때 비로소 사람의 사랑을 받을수 있다.》

가요의 가사는 무엇보다도 사람들 누구나가 목격하고 체험할수 있는 생활이 그대로 비껴있는것으로 하여 풍만한 서정을 낳고있다.

1. 금잔디 밟으며 첫 걸음 떼고
애국가 들으며 꿈을 키운 곳
내 자란 조국이 하도 소중한
가슴에 총안고 전호에 썼네
아 정다운 나의 조국아

서정적주인공 《나》—병사가 지켜선 조국이 라는 무게있는 문제를 《금잔디》와 《첫 걸음》, 《애국가》와 《꿈》이라는 너무도 평범하고 생활적인 표현을 통해 밝힌 가사에는 그 어떤 추상적인 웨침이나 격동적인 시적표현, 직선적인 정치적 어휘가 없다. 우리 생활이 진실하게 비친 평범한 시어들로 씌여진데 강한 생활적인 감정정서가 풍기는 비결이 있다.

가사의 첫행에서 리용된 《금잔디》와 《첫 걸음》이라는 시어에는 작가의 남다른 애정이 있다.

아기의 첫 걸음을 떼여준 잔디밭, 그것은 곧 더없이 소중한 고향이고 정다운 어머니품이다. 자기

를 낳아준 어머니품보다 더 따뜻한 품은 없다.

하기에 아기는 어머니품에 안기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마음놓고 잠자는것이다. 그 어머니품에서 아기는 금잔디를 밟으며 첫 걸음을 떼었다. 이렇게 《금잔디 밟으며 첫 걸음 떼고》라는 표현에는 정다운 어머니품인 사랑하는 나의 고향, 태를 묻은 어머니대지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서정이 흘러넘치고있다. 고향에 대한 이 아름다운 정서는 《애국가 들으며 꿈을 키운 곳》에서 풍만한 서정의 샘으로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인공은 우리 공화국의 품에서 아기의 고운 꿈을 청춘의 푸른 꿈으로 키워왔다.

나의 리상이고 희망인 청춘의 꿈은 저 하늘의 무지개마냥 그 갈래도 많다. 이름있는 발명가, 예술가, 체육인, 건축가도 되고싶고 꽃을 가꾸는 원예사도 되고싶다. 하지만 주인공은 조국보위초소에 총잡고 선 병사가 될 꿈을 꾸었다. 빨간별이 빛나는 영웅병사의 림름한 모습, 이것이 첫 걸음을 떼고 고향, 조국이란 무엇인가를 배워준 어머니 품에서 키운 우리 청춘들의 꿈이다. 나서자란 고향이 조국임을 알았기에 그 조국이 하도 소중한 가슴에 총안고 전호에 선 주인공의 모습은 어머니 조국에 병사의 깨끗한 량심과 헌신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참된 애국자의 모습이다. 조국이라는 더없이 신성하고 위대한 의미를 평범하고 구체적인 생활감정에서 환기되는 소박한 시어들로 노래한 가사는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서정흐름을 타고 조국에 대한 표상을 정서적으로 펼쳐보여주고 있다.

가사는 2절에서 조국을 람홍색공화국기라는 상징적인 시어로 노래하였다.

람홍색기발은 우리모두가 안겨사는 조국, 인간의 참된 삶과 행복의 요람에 대한 상징이다.

2. 내 집에 띄웠던 람홍색기발
전호가 노을에 어리어오네
행복의 그 요람 잃지 않으려
이 가슴 전호에 대고 산다네
아 정다운 나의 조국아

《내 집》이라는 생활적인 어휘속에 담긴 정서적의미는 나서자란 정든 고향보다도 더 친근하고 강렬하다. 그것은 내 집이 곧 나의 요람이기 때문이다. 고향이 것처럼 소중한것은 내가 나서자란 정든 집이 있는 땅이기 때문이다. 그 정든 집에 어머니 자장가 들으며 잠자던 나의 요람이 있고 토끼무늬가방 메던 그 시절부터 초소로 떠날 때까지의 추억이 있다. 이 잊지 못할 추억이 《내 집에 떠있던 람홍색기발》이라는 표현속에 굴절되어 조국이 있어 나의 정든 집에 언제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넘쳐나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이렇게 가요는 가사의 1절에서 소박한 시어들인 《금잔디》와 《애국가》에서 환기된 생활정서를 2절에서 《내 집》과 《람홍색기발》이라는 보다 친근감을 주는 대상으로 서정적주인공의 감정을 떠나가고있다.

가요의 가사는 3절에서 은혜로운 해와 별이 빛나는 조국이 없다면 더없이 소중한 고향도 가정도 나도 없다고 노래하였다. 그렇다, 조국이 없다면 나도 없다. 조국이자 곧 나의 운명이기에 나는 조국을 지켜 한생 전호에서 사는것이다.

여기에서 가사는 행복의 요람인 조국을 잃지 않으려 혁명의 총대를 굳게 잡은 서정적주인공의 강렬한 사상감정으로 서정의 고조를 이루어 환희로운 폭발을 마련하고있다.

이처럼 가사에서는 조국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주는 고향산천과 정든 집이라는 표현으로부터 공화국이라는 상징화된 시어로 서정의 진폭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다는 진리를 밝혔다. 누구나 자기 생활에서 흔히 체험할수 있는 평범하고 구체적인 생활감정을 낳는 생동한 시어로 조국을 진실하게 노래한데 명가사로서의 이 가요가사의 풍격이 있다.

들을수록 좋고 인상깊은것이 명곡이다.

가요 《내가 지켜선 조국》은 들을수록 깊은 감동을 주는 아름답고 유순한 선물로 하여 누구나 즐겨부르는 명곡이다.

민족적색채가 짙으면서도 우리 시대의 주도적인 사상감정을 훌륭히 재현한 서정적인 선물은 가사의 사상정서적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고있다. 이러한 선물형상은 보다 폭넓은 련상과 사색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나의 집이라는 대상이 불러일으키는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감정이 람홍색공화국기발이라는 숭엄한 정서로 가지가지의 화폭들을 련상케 하고있다. 인민의 나라를 세우시려 건국의 초행길을 헤치신 우리 수령님의 빛나는 한생이 그 기발속에 어려오고있다. 그 공화국을 지켜 자기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전화의 영웅들의 군상속에 승리의 함성이 메아리치던 조국의 고지들이 눈

앞에 안겨온다. 이런 폭넓은 련상화폭은 아름답고 유순하면서도 서정적인 선물을 낳고있다.

가요의 선물이 보다 서정적인 곡조로 깊은 사색을 불러일으키는것은 언제나 가슴속에 조국을 안고사는 총천 병사의 높은 정신세계를 훌륭히 노래한데 있다.

조국의 수호자라는 크나큰 긍지를 안고 훈련의 땀으로 군복을 적시며 화려한 꽃밭길이 아닌 가파로운 훈련길을 달리는 병사의 모습을 그려보게 하는 아름답고 유순하면서도 보다 서정적인 선물형상은 《아 정다운 나의 조국아》라는 대목에서 더욱 뜨겁게 표현되고있다. 조국이라는 웅대한 서정의 바다에 넘쳐흐르는 음악적선물만 들어도 가요의 정서적내용을 파악할수 있게 하는데 명곡의 풍격이 있다.

가요에는 심오한 철학이 있다.

3. 해와 별 빛나는 조국이 없인
고향도 가정도 나도 없으리
한없이 귀중한 그대를 지켜
내 한생 총잡고 초소에 살리
아 정다운 나의 조국아

가요에서 노래한 해와 별 빛나는 조국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이다. 이렇게 가요는 조국의 의미를 혁명적수령관의 견지에서 명백히 밝히고 조국과 나라는 운명관계를 통하여 조국에 대한 무게있는 철학을 주고있다. 해와 별이 빛나는 조국이 없인 고향도 나도 없다는것은 지나온 력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의 진리이다.

참으로 가요의 이러한 형상은 수령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한생 총잡고 참다운 길을 걷는 병사의 모습에서 수령결사옹위를 최대의 애국으로 여기며 그 길에서 언제나 배신을 모르는 총대로 살려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훌륭히 보여주고있다.

가요 《내가 지켜선 조국》은 천만군민의 심장을 틀어잡을수 있는 무게있는 철학을 안고있는것으로 하여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가 우주를 날고 강성대국의 불보라인양 신비한 축포세계가 펼쳐진 내 조국의 하늘가에 끝없이 울려 퍼지고있다. 주체조선의 위력인 지하핵시험의 성공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머리우에 내려진 무서운 철추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 노래를 높이 부르며 해와 별 빛나는 혁명의 수뇌부의 선군혁명명도를 받드는 길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함으로써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낄것이다.

불굴의 정신력을 지닌 시대의 전형들의 감명깊은 형상

윤향미

밤하늘가에 터져오르는 천변만화의 불보라, 선군승리의 불보라를 바라보는 심장들은 세찬 박동으로 하여 높인다.

강선의 초고전력전기로에서 쏟아져내리는 용암의 분출인양 불보라를 날리는 쇠물폭포를 보는 천만군민의 가슴가슴은 강성대국의 래일을 확신하는 승리자의 기쁨과 자랑속에 지나온 년대기들마다 새겨진 강선의 로동계급의 자랑찬 투쟁과 그들의 심장마다에서 타번지던 그 거세찬 충정의 열도를 새겨안는다.

오늘날 강성대국대진군대오에 차넘치는 불굴의 정신력!

지금도 사회주의건설시기를 추억할 때면 그 전투의 맨앞장에서 돌격의 기발을 들고 달려나간 강선의 로동계급의 불굴의 모습이 제일먼저 떠오르고 그들이 피워올린 강선의 노을-자력갱생의 노을이 높뛰는 가슴들을 붉게 물들인다.

격동적인 시대에 세상을 들었다놓는 새 기적, 새 혁신만을 창조한 1950년대 우리 인민들이 발휘한 불굴의 정신력은 강성대국건설대전에 펼쳐나선 선군시대인간들의 정신적재부로 되고있다.

영웅적인민을 키워주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심장에 새기고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처럼 살도록 이끌어주는 바로 여기에 이 시기를 반영한 총서작품들의 생활력과 의의가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형상을 높은 수준에서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인물들의 형상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를 반영한 총서작품들에서는 시대의 전형들이 지닌 불굴의 정신력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절대적인 믿음을 받아안은 높뛰는 심장에서 폭발한것이며 그 힘은 무한대하다는것을 감명깊게 그리고있다.

소설에서는 우선 시대의 특징을 체현한 일군의 전형을 창조하였다.

성격형상의 전형성문제는 인간과 시대와의 관계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해명에 기초하여 탐구해낸 인간의 발전이라고 말할수 있다.

3년간의 전쟁으로 하여 벽돌 하나 성한것이 없

는 폐허우에서 사회주의 큰집을 일떠세우는 투쟁은 현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지니고 대담하게 전격전으로 벌려나가야 하는 간고하고 시련에 찬 투쟁이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인간의 노래》(김삼복 작)에서 강선제강소 지배인 리웅천, 장편소설 《대지의 전설》(김삼복 작)에서 화불협동조합 관리위원장 최옥금은 불굴의 정신력을 지니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는 시대의 전형으로 형상되었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시대의 전형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깊이있게 펼쳐보이고있다.

6만t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재를 뽑아내는것은 기존공식에서 벗어난 완전한 새로운 비약이였고 전후 물질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 역시 선행리론에서 그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전혀 새로운 길, 독창적인 길이였다.

소설들에서는 선행리론과는 대비할수 없는 전혀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이 문제들이 《새롭게》 해명되는 과정에 《새로운》 인간들이 태어나는 과정을 감명깊게 그리고있다.

하다면 우리 수령님께서 선택하신 《새로운》 길을 힘차게 걸어나갈수 있는 추동력은 무엇이었던가.

평탄한 길이 아니였다. 웃으면서 걸어나갈 꽃길이 아니였다.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불사르며 불신과 오해로 응어리진 가슴들을 믿음이라는 거대한 불덩어리로 녹여버려야 하는 어렵고도 간고한 투쟁의 길이였다.

바로 믿음이였다.

내각참사 최일이 입버릇처럼 외우는 복잡한 구성성분을 가진 강선의 로동계급이 6만t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재를 생산해낸 놀라운 기적도, 농업성 부상 강봉석이 느릿느릿 굴러가는 소달구지우에 올려놓은것과 같은 꼴호즈라고 비유하던 협동조합이 만풍년의 가을을 제 손으로 앞당겨 협동조합승리의 총포성을 울린것도 바로 아버지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이 믿음이 낳은것이였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공격정신에 의하여 이 땅우에 기적과 혁신의 자랑찬 시대가 찬연히 펼쳐지게 되었으며 그 품속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지닌 시대의 전형들이 태어났다는것

을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전투에서 공격은 주동이다.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도 역시 우와 같은 법칙이 작용하게 된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신 공격정신! 이는 후퇴와 탈선을 모르고 오직 앞으로만 전진하는 백철불굴의 혁명정신이다.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이 공격정신은 장편소설 《인간의 노래》에서 강영창에게 하시는 말씀에서 뚜렷이 부각된다.

우리 수령님께서 고난의 행군때를 회상하시며 적들에게 앞뒤로 포위되고 몹시 지쳤지만 적들을 답새기며 앞으로 뚫고나갔는데 지금이 그때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우리는 지금 국제반동들, 계급적원수들, 민족반역자들, 사대주의와 대국주의자들, 지배주의자들의 포위속에 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이런 때 고난의 행군때처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신다.

돌격전에 나선 지휘관은 전투의 승리가 확정적일 때 돌격구령을 내릴수 있다.

전투에서 승리는 전사들의 정신력에 달려있으며 지휘관의 돌격구령은 바로 전사들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포위망에 든 엄혹한 시기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신 공격정신은 바로 강선의 로동계급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그 뿌리를 두고있는것이 아닌가.

우리의 힘으로 강재를 더 생산하여야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반격을 가할수 있다는것을 확신하셨기에 아버지수령님께서 전대오에 돌격명령을 내리실수 있었으며 그 명령을 강선의 로동계급은 심장으로 받아들이었다.

그들의 심장을 탕탕 두드리며 세인을 경탄시킨 새 기적을 창조한 불굴의 정신력의 원천은 무엇이었던가.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조성된 난국을 타개해나갑시다!》

너무나도 수수한 회의실에서 하신 그이의 이 말씀이 강철전사들의 심장마다에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만장약된 불굴의 정신력을 안겨주었다.

언제나 어렵고 힘드실 때마다 땅과 같이 소박한 농민들과 허물없이 마주앉으시여 농사일을 의논하시던 그 겸허하고 소탈하신 품성에 매혹된 우리 농민들의 심장마다에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은 언제나 승리의 길이라는 불굴의 신념과 의지가 심장깊이 자리잡게 되었다.

언제나 《웅천이!》라고 다정히 불러주시며 수령과 전사의 관계를 떠나 보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흥금을 더놓곤 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뜨거운 사랑, 강선을 찾으실 때마다 못다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집에서 손수 가꾸신 쑥갓을 가져다주자고,

로동자들에게 범포가죽신을 마련해주자고 말씀하시는 친아버이의 뜨거운 사랑속에서 리웅천은 불가능이란 말을 모르는, 수령님의 공격정신을 그대로 닮은 공격형의 일군으로 성장한다.

한번 옳다고 생각한 일은 뒤를 돌아보거나 주춤거리지 않고 앞으로만 나가는 결패있고 전개력있는 일군!

리웅천이 지닌 불굴의 정신력은 6만t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재를 생산해내는데서 폭발된다.

이 정신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 일이라면 무조건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결사관철의 정신,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의논해주시던 수령님의 그 믿음을 새겨안고 매일 매순간 자신을 다잡는 자각성에 그 뿌리를 두고있는것이다.

《…강선의 핵심부대는 수령님을 절대옹호할것입니다. 저희들을 믿어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강선로동계급의 의지였다. 하기에 그들은 더 많은 강재를 생산하는것이 형형색색의 어중이떠중이들에게 조선로동계급의 본때를 보여주는것이며 당중앙위원회의 권위를 지키는것이라는것을 심장에 새기고 그 어떤 난관도 맞받아나가는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는것이다.

이것은 천리마시대의 투쟁정신이며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고귀한 정신이다.

장편소설 《대지의 전설》의 화불협동조합 관리위원장 최옥금은 전쟁의 불길속에서 태어난 품앗이반의 핵심, 전후 조합결성에서도 선구자적역할을 하는 당돌하고도 진취성이 강한 처녀로 형상되었다.

자신을 관리위원장으로 내세워주신 아버지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을 가슴에 새겨안고 조합의 생활력을 발휘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처녀!

조합의 기둥인 소 두마리가 독살당하여 조합원들의 의기가 저락되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구구한 뒤소리로 하여 더욱더 마음이 나약해진 옥금!

바로 이러한 옥금에게 지칠줄 모르는 정열과 그 어떤 난관앞에서도 주저않지 않고 앞으로만 나가는 불굴의 정신력을 안겨주신분은 바로 아버지수령님이시었다.

곳은비 내리는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봄날처럼 환하게 웃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옥금은 쌓이고쌓였던 오열을 더뜨린다.

농사일을 하라면 누구보다 못지 않게 잘할수 있으나 관리위원장만은 못하겠다고...

나약해진 그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시는 아버지말씀!

《…옥금이의 고충이자 내 고충이고 옥금이의 기쁨이자 내 기쁨이요. 그러니 우리 힘을 합쳐 협동조합을 잘 이끌어나가기요.》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언제나 농민들속으로 찾아오시어 그들의 소박한 생각도 정책에 담으시며 언제나 농민들을 마음의 기둥으로 여기시고 사회주의농업협동화의 역사적과업을 실현해나가는 위대한 수령님!

그이께서 안겨주신 그 믿음은 저 하늘의 태양이 안겨주는 따사로운 해빛과도 같이 우리 농민들의 심장마다에 흘러넘쳤거니. 이러한 사랑과 믿음속에 사는 인민앞에 점령 못할 요새가 과연 있을것인가.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속에 옥금은 다시 굳세게 일어섰으며 뒤를 돌아보거나 주저않지 않고 오직 앞으로만 공격하는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한다.

그의 공격정신앞에 개인리기주의자 최근배와 허덕칠이 협동조합의 거세찬 대하속에 뛰어들며 부농 정의춘과 그의 아들 정종원도 새롭게 태어나며 만풍년의 노래소리가 대지를 뒤흔든다.

최옥금은 수령님의 품속에서 성장하는 처녀관리위원장으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계급정책을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부농의 아들 정종원의 사랑에서도 언제나 공격선에 서서 그를 끝까지 새 인간으로 탄생시키며 조합의 모든 성원들을 만풍년 가을에로 힘있게 이끌어주는 이악하고 정열적이며 진취성이 강한 처녀, 불굴의 정신력을 지닌 새 세대로 형상되었다.

리웅천과 최옥금은 우리 시대 일군들이 따라배워야 할 전형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의도를 받드는 길에서는 언제나 1선참호에서 선참으로 일어나 돌격하는 공격형의 일군, 언제나 전문분야에 대한 높은 실력을 지니고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는 실천가형의 일군, 다정다감한 정서를 지닌 일군들을 오늘 우리 시대가 부르고있다. 때문에 이들의 형상은 전후 사회주의건설투쟁시기 우리 일군들이 지녔던 불굴의 정신력과 함께 오늘 선군시대 일군들이 지녀야 할 정신적포모까지도 다 체현한것으로 하여 더욱 친근하게만 느껴진다.

앞으로 강성대국건설투쟁을 반영한 소설작품들에서도 동시대인들만이 아닌 먼 후날 사람들에게도 고귀한 정신적유산을 안겨주는, 시대를 선도하는 전형적인 인간성격을 다양하게 그려야 할 것이다.

소설들에서는 다음으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지닌 로동계급의 형상도 감명깊게 창조하였다.

장편소설 《번영의 길》에서 용접공 림형관의 형상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낳은 로동계급의 전형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우리 문학사에는 로동계급을 형상한 작품들이 수없이 많다.

작품들에서는 로동계급을 시대의 선구자, 단결력이 강한 집단으로 형상하였다.

새 조국 건설시기를 반영한 작품들에서는 새 나

라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맡은 일을 깨끗한 량심을 바쳐 책임적으로 해내는 혁명성이 강한 집단으로 형상하였다.

전후 사회주의건설시기를 반영한 총서작품들에서는 우리 로동계급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지닌 전투적집단으로, 남의것을 넘보지 않고 자기 힘만을 믿고 일떠서는 민족적자존심이 강한 집단으로 형상하고있다.

특히 높은 창의창발성을 지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며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것을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창조성이 강한 집단으로 그리고있다.

림형관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다.

그는 분피압언기복구에 필요한 특수용접봉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한다.

소학교경력도 없이 오직 로와 한생을 맺고 살아온 그에게 있어서 창조의 원동력은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과 기능뿐이었다.

보다 중요한것은 제강소복구는 넘려하지 마시라고 수령님앞에 다진 그날의 맹세를 끝까지 지키려는 자각과 의지이다.

바로 이 열의는 지칠줄 모르는 정신력과 투쟁력을 낳았던것이다.

수많은 실험끝에 만들어진 특수용접봉, 이것은 수수타개죽으로 끼니를 에우면서도 어버이수령님께서 근심하시는 문제를 푸는 길에서는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된다는 조선로동계급이 지닌 불굴의 정신력의 산물이다.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다져온 완강한 투쟁정신은 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벽찬 현실속에서 비상한 정신력을 폭발시켰다.

이처럼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를 반영한 총서작품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불굴의 정신력을 지닌 기적과 혁신의 창조자로 성장해나가는 시대의 주도적인 성격을 인물들의 형상속에 밝혀냄으로써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존엄높은 자주강국을 일떠세우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업적을 깊이 새겨주고있다.

1950년대 영웅적세대들이 발휘한 불굴의 투쟁정신은 오늘 위대한 기적의 창조자들이 지닌 정신적힘의 원천으로 되고있으며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위대한 전통은 선군시대와 더불어 더욱더 훌륭히 이어지고있다.

강성대국건설대전은 강의한 정신력의 소유자들을 부르고있다.

김일성민족의 100년대를 빛나게 장식함으로써 민족만대가 번영하는 삶의 터전을 튼튼히 꾸리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들어 나가는 길에서 총서작품들은 오늘의 150일전투에 펼쳐나선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삶의 교과서로, 귀중한 정신적재부로 될것이다.

시 초

미재가 보이는 언덕에서

— 인민대학습당에서 부르는 노래 —

허수산

나의 자리

사랑하는 나의 집에도
정든 나의 일터 신성한 대학
해맑은 강좌실에도
내 자리 뚜렷이 있건만

늘 오고싶고
앉고싶은 자리가 있구나
수도 평양의 제일 좋은 자리에
합각지봉 펼치고 황홀하게 솟아오른
인민대학습당이어!

내 오늘 이 아침도
제 집 문고리 잡듯
이 웅장한 대학습당의 홀에
스스럼없이 들어서라
그러면 반가이 맞아주는
책냄새 특유의 수백의 열람실들

층층 높이 솟은 열람실에서도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1층 3호실에 들어선다
해빛 잘 드는 창문옆
두번째줄 가운데에 앉는다

그러면 누구도 제 자리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 없고
누구도 와서 자리값 내라는
소리도 없다

해종일 앉아있어도

이것은 내 자리
상냥한 처녀사서는
웃음만이 그의 대답인듯
내가 찾는 이 세상의 귀한 책
그저 다 내준다

앉아 책속에 묻히면
마음은 스스로 안정되고
생각은 정리되어야
탐구의 새 생각은
샘물처럼 솟구쳐올라라

키높은 서가를 마주하면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보내주신
귀한 책들 정히 꽂혀있고
전자열람실에 가 앉으면
전세계의 최첨단과학기술
한가슴에 안아보아라

아, 지난날 광산 광부의 아들을
오늘은 나라의 지식인으로 키워주고도
누구라 없이
직업과 재산여부도 묻지 않고
선뜻 앉혀주는 은혜로운 자리

황홀한 이 대학습당에
나의 자리가 있음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과학자, 인재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고마운 사랑이 교여주는 금방석이어!

고

요

깊은 밀림속
호수가의 고요에 비기라
대학입학시험을 치는
그 긴장한 정숙에 비기라

고요와 또 정숙
그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독자들모두가
스스로 지키는 이 고요

이 고요속에

새 기적이 나래편다
머리 흰 박사들은
장군님 아시는 박사가 되리라
필생의 념원을 안고 책속에 묻히고—

젊은 대학생청춘들
기어이 이름난 과학자 되어
내 나라를 흥하게 하리라
야심만만한 배심을 안고
책장을 무겁게 번진다

여기에는 사나운 눈보라도 없고
삼복철무더위도 없다
그러나 사람들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눈보라와 무더위가 휘몰아친다

장군님 헤쳐가신 그 눈보라, 삼복더위
간곡히 당부하는듯
배우고 또 배우라
지식은 광명
무식은 암흑

고요하여도 고요하지 않다

사람마다의 가슴에서
탐구의 고동소리 높은 곳
공부하는 사람처럼 힘있고
공부하는 나라처럼 창창한 미래
굳건히 약속된 나라 있던가

아,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는 고요
이 고요속에서 드디어 폭발하리라
새로운 발명의 소리
새로운 인재들이 태어나는 소리
조국이 더 강해지는 소리—

흰 머리와 검은 머리

바다같이 펼쳐진
1층 3호열람실
뒤에서 바라보면
흰 머리와 검은 머리가 섞여
장판이로구나

에서 하얀 머리가 더 많은가
검은 머리가 더 많은가
오랜 지식인들
청년들 대학생들

열정에 넘친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린 내 마음 즐겁구나
우리 청년들 저리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참으로 기쁘고 보기 좋구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방학이나 일요일이나
이 집의 주인은
청년대학생들인듯
그들로 흥성거린다

내가 가본

어떤 나라에서는
청년들 돈밖에 모르고
저녁노을 퍼지기 바쁘게
유흥장으로 달려가건만

여기 내 나라에선
대학생청년들로
열람실의 자리가 모자라는구나
검은 머리 젊은이들 많아
머리 흰 세대의 마음 흥거롭구나

내 저 모습에서
승리할 내 조국의 미래를 본다
기어이 강성대국 일떠세우고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안아올
그 밝은 빛을 본다

내 이들속에 섞여 공부함이
행복이구나 긍지가구나
마음은 젊어지고
조국의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이 가슴 한없이 뿌듯하구나
사랑스러워라 내 조국의 밝은 미래여

휴

인민대 학습당에서의 휴식은
어떻게 흘러가던가
아름다운 꽃밭을 거니는
그 상쾌함이런가

아니여라!
머리를 잠깐 쉬려고
드넓은 복도에 나서면

건뭇 들리운 높은 천정이
사람의 기분을 건뭇 들어주고
현란한 무리들은

식

아름다운 꽃밭처럼
향기를 풍기는가

아름드리 기둥에 마주서면
마음은 든든해지고
드넓은 복도는 시원히
이 가슴 열어주어라

창문으로 비쳐보이는
주체사상탑의 붉은 봉화는
더 큰 심장 가지고
더 억세게 나아가라고 고무하는듯

창문을 적시는듯 한
만수대예술극장의 천만분수
분수처럼 꺼지지 않는 열정안고
탐구의 큰 걸음 내디디라고
한껏 고무해주는듯

아 그 어디 동서남북 둘러보아도
대학습당을 축복하는 기념비들
그것을 바라봄이

휴식중의 휴식이구나

더 큰 과학탐구로
어머니조국에 기쁨을 주라
온 나라가 고무해주는 목소리
에서 다 듣거니—
그 목소리 가슴에 새기며 거닐은
멋이로구나 힘으로구나

손님도 꽤 많군

때로는 긴장한 사색이
끊어지는 때가 있구나
인민대학습당을 보러 온
수많은 관광객들로

저 유럽과 아프리카
수많은 해외동포손님들
내 공부하는 방에 들어서서
발걸음 떼지 못하는구나

지난날 오늘날
제국주의원썬들의 나쁜 말만 들으며
조선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

너무나 판이한 광경
놀라운 이 풍경 어찌하랴
이처럼 아침부터 젊은이들
직심스레 공부하는 나라
세상에 더 있던가

이처럼 평온하고 밝은 얼굴
지구의 그 어디에서 볼수 있더냐
관망이면 저 빅토리아폭포가 아니라
여기 이 풍경을 보아야 하리

런속 감탄에 못이겨
사진기샤타를 누르는 소리
아름다운 노래로 울려오는
여기 인민대학습당

여기서 하루에 돈을 얼마 내느냐고
물어보는 손님도 있다
세상에 이런 전민대학습당
처음 본다는 사람도 있다

아 온 세계가 찾아오는 학습당
미래가 있는 나라는
오직 여기밖에 없다고
런속 감탄하는 그 목소리
때로 사색을 멈추어도
아! 좋구나 부푸는 궁지로!

방학 없는 《대학》

내 일하던 대학에도
방학이 있고
온 나라의 배움터들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있어도

인민대학습당이여!
너에게만 방학이 없구나
일년 열두달
사철 문은 열려있어라

아침에도 저녁에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휴식일에도
너만은 쉬지 않는구나

일요일에도

나는 온다 여기에
하루 공부하고 나서면
그것은 정서생활이고
그것은 곧 큰힘이구나

너의 문이 닫긴적 없어
조국의 전진 그만큼 빨라지고
너의 문이 언제나 열려있어
우리 더 빨리
최첨단과학기술의 높은 봉에 오르리

그 어떤 사나운 바람이 불어도
너는 언제나 열려있으리
너의 품속에서 자란 인재들로
나라는 더욱 흥성이라
조국의 미래는 더욱 찬란하리라

여기에 나의 저서도 있다

수천수만의 독자들
앞을 닦아 찾는
3호실의 큰 서가
여기에 나의 조출한 저서
시집도 있구나
그 책을 찾는 독자도 있구나

그럴 때면 이 가슴
한없는 기쁨으로 울렁거려라
이 크고 웅장화려한 학습당에
자기의 저작이 있음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나

시집을 열심히 읽는 젊은 대학생
그옆에 앉아있는
머리 흰 사람
이 시집의 저자임을
그 어이 알랴

어서 읽으라 읽어달라
그리고 책망을 해달라

더 좋은 책을 만들어
이 서가에 꽂지 못한
나의 죄스러움 책망해다오

아, 이 큰 서가에
자기의 저작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기쁜 일
그러나 대신 그것이 없다면
지식인으로서의 량심
부끄러워라 죄스러워라

아 나의 심장이여
그리고 이 방을 채운 지식인들이여
피를 뿜어 조국에 필요한
더 좋은 책을 쓰라

아 그때만이 그대들과 나
이 유명한 집에
당당히 앉을 자기의 자리
나의 자리가 있으리라

노 래 를 드 린 다

감사를 드린다
노래를 드린다
다함없는 감사의 노래를
사랑하는 인민대학습당이어!

너의 푸르른 합각지붕에도
내 좋아하는 3호실
《나의 자리》에도
불비던 독자식당의
그 시원한 국수발에도

위대한 사랑
위대한 뜻에 받들려
너의 큰 문이 열린 때로부터
근 30년 가까운 세월
나는 너의 단골독자
그 사람들중의 한사람이었다

나처럼 너의 신세
많이 진 사람 있으랴
나는 여기에서 시도 썼고
박사론문도 집필하였나니

어찌 나만이라
저 량강도의 농민의 아들도
너의 품에서
나라의 큰 과학자 기술자로

자라났어라

서해갑문을 설계한 학자들도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린 과학자들도
너의 서가에서
귀중한 책들을 뽑아보았다
너는 언제나 폭풍치는
조국의 숨결을 안고 살았다

너는 이 나라의 그 누구도
직업과 재산여부도 묻지 않고
그대로 받아안아
사회주의조국의
무료교육혜택을 안겨주었다

세계는 너를 보고
조선이 어디에 돈을 쓰고
조선이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똑똑히 알았더라

그렇더라 조국은
인재를 제일로 귀하게 여기는 나라
오늘보다 미래를
더 귀중히 여기는 나라
하기에 이 언덕에 올라서면
창창한 미래가 내다보인다

너는 진정 우리 수령님
인민에게 주신 사랑중의 사랑
우리 장군님
우리 인민에게 준 선물중의 선물

너는 평양의 모습
그러기에 우리 수령님, 장군님
너를 배경으로 한 주석단에서
늘 인민에게 환호를 보내신다
장엄한 열병대오의 발구름소리
너의 창문에 먼저 와 부딪친다

이제 조국은 바야흐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연다
폭풍치는 강선의 숨결이

너의 온 방안을 가득 채운다
조국은 너의 귀중함을 더 깊이 안다

아 길이 빛나라
조선의 모습 인민대학습당이여
조국의 미래를 안아오는
무료교육, 배움의 나라의 큰 집
선군조선의 래일을 부르며
더 크게 숨쉬라, 더 키를 솟구치라

노래를 드린다
아름다운 꽃다발을 드린다
가장 위대하고 뜨거운 사랑에
목메인 목소리로 노래를 드린다
다함없는 감사의 노래를 드리노라!

상 식

가장 획기적인 10대과학기술

①인터넷

인터넷기술은 일찌기 20세기 80년대에 출현하였다.

1991년에 이르러 유럽립자물리연구소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되는 《www》(world, wide, web)를 발표해서야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②비행기

1903년 라이트형제가 진행한 12초동안의 비행이 세계에 새로운 발전추이를 가져다주었다.

비행기가 출현함으로써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가는데 필요한 시간이 몇주일 지어 몇개월로부터 일약 몇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비행기는 사람들이 사는 온 행성을 긴밀히 연결시켜주었다.

③핵분열

20세기 30년대에 재능있는 물리학자들은 적은 량의 우라늄원자를 통한 분열이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량의 에너지를 산생한다는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핵폭탄의 출현을 초래하였으며 전쟁방식을 개변시켰다. 그러나 핵분열은 세계의 피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원자력발전소는 모두 핵분열과학에 의거한것이다.

④전기

전기의 출현은 기계화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편하게 에너지를 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⑤국소형처리장치

이전에는 한대의 컴퓨터가 웅근 한방을 차지하였지만 그 계산속도는 오늘의 휴대용컴퓨터만큼 못하였다.

국소형처리장치의 출현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았다.

휴대용컴퓨터의 《심장》은 날로 작아지고있

지만 그 기능은 반대로 날로 높아지고있다.

⑥X선

19세기이래 X선기술의 출현은 첫 시기부터 의학분야에 직접적으로 거대한 충격을 주었다.

X선으로는 환자의 몸안의 각종 변화상태를 알아낼수 있다.

⑦고무

고무는 유럽항해가들이 새 대륙에서 발견한것이다.

처음에 사람들은 순수 호기심에서 고무를 대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의 출현으로 인해 고무는 오늘날에 와서 하나의 인기상품으로 되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70%의 고무가 자동차공업에 리용되고있다.

⑧철

B.C. 1 200년경 세계의 각 지역들은 서로 다른 시기에 철기시대에 들어섰다.

이때부터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천지개벽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철》이라는 좋은 도구가 생김으로써 농업과 목축업, 공업이 모두 보다 쉬운것으로 변하였다.

⑨화약

처음에 류황과 초석, 숯을 혼합하여 만들어진 화약은 일종의 무기로 되어 전쟁의 면모를 새롭게 개변하였다.

⑩자기줄무늬카드

자기줄무늬카드는 IBM회사가 20세기 70년대에 발명한것이다.

당시 이 발명은 안전보장계통임무를 수행하기 위한것이였다. 그리하여 국소형자성체형식의 암호자료에 기초한 자기줄무늬가 출현하게 되었다.

현재 자기줄무늬카드는 세계에서 가장 광범히 리용되는 기술중의 하나이다.

세계적인 대문호 백인준의 현실체험과 창작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동계급의 생활을 그리자면 공장에 가서 로동계급과 함께 생활해보아야 하며 농민들의 형상을 창조하자면 농민들과 같이 생활하여야 한다.》

작가 백인준은 현실에 들어가 산인간, 시대의 주인공들을 그릴데 대한 당문예정책의 철저한 옹호자, 체험문학의 주장자였다.

작가 백인준은 체험문학의 실천가였다.

문화선전성(당시)에서 국장사업을 하던 그는 당이 작가들을 현실에로 부를 때 선참으로 탄원하였다. 말은 사업의 중요성으로 하여 승인되지 않았으나 거듭 제기하여 끝내 현지파견작가로 되었으며 내려갈 때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갔다. 그때 다른 일부 작가들도 현지에 많이 내려갔으나 가족은 자리를 잡은 다음에 데려가거나 집을 평양에 그대로 둔 작가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만은 모든것을 현실에로 지향시켰던것이다. 그의 체험문학에 대한 실천은 대를 이어 계속되었다. 말아들이 장편소설 《불을 다루는 사람들》을 쓰기 위해 황해제철소(당시)에 나가있을 때였다. 그때 백인준은 아들에게 가족을 데려가지 않은 현실체험이란 취재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무조건 가족까지 데리고 나가 현지에서 생활하도록 하였다.

바로 그런 관점을 가진 그였기에 농촌에 갔을 때에는 소몰이군을, 공장에 갔을 때에는 불반공을 하였다.

현실체험의 벽찬 나날에 작가는 자신이 천리마 기수가 되어 천리마시대의 위대한 숨결을 호흡하여 자기의 작품들에 담았다.

정론시 《큰 손》 [4립방굴착기 《장백호》를 두고, 주체49(1960)년] 과 같은 천리마시대의 명작을 창작하였으며 서정시 《손》 [주체48(1959)년], 《휘파람 잘 부는 선반공 도선이》 [주체48(1959)년], 《선반공 동실이 노래부른다》 [주체49(1960)년], 《점심때》 [주체49(1960)년] 와 같이 가슴을 울렁이게 하는 로동생활의 랑만을 노래함으로써 그 한복판으로 풍덩 뛰어들고 뜨게 하는 시들도 창작하였다.

그가 어떤 체험문학의 실천가였는가 하는것은 4립방굴착기 《장백호》가 락원기계공장에서 만 들어지고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즉시에 휴가를 받고 달려가 휴가 전기간을 《장백호》생산자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그 생산전투에 직접 참가한것

만 보아도 알수 있다.

그의 체험문학에 대한 실천은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기념 전국예술축전에 내놓았던 희곡 《두메산속에 꽃이 핀다》 창작과정에서도 여지없이 발휘되었다.

당시 평안북도작가동맹위원장을 하던 작가는 평안북도 도립예술극장의 축전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벽동군 남중리로 현지창작을 떠났다. 초기계획은 50살이 넘는 남자를 주인공으로 토지개간을 주제로 하는 희곡을 창작하는것이였다. 그러나 현지에 나가서 창작하는 과정에 주인공을 바꾸었을뿐 아니라 전혀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천리마가 나래치는 위대한 현실이 작가로 하여금 50대의 중년남자가 아니라 22살의 애젊은 처녀관리위원장을 주인공으로 하는 새로운 작품구상으로 추동하였던것이다.

남중리의 처녀관리위원장은 심심산골인 벽동군에까지 찾아오시여 산골에서는 산을 잘 리용해야 잘 살수 있다고 가르쳐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이악하게 일하여 사랑하는 고향땅을 벌방 부럽지 않은 고장으로 전변시켰던것이다.

작가는 초고가 완성되자 먼저 당사자인 관리위원장에게 읽어주고 의견을 받았으며 다음은 리당위원장(당시)을 비롯한 현지의 주인공들과 합평회를 하였다. 다음단계에서는 군당위원장방(당시)에서 군내 관리위원장들과 군급지도일군들앞에서 합평회를 하였다.

그 다음단계에서는 연출가와 주요배우들이 남중리에 직접 나가서 자기의 역인물들과 생활하면서 현실체험을 하도록 하였다.

3개월에 걸쳐 현지에서 대본을 완성하고 현지에서 생활의 주인공들과 작품합평을 하고 현지에서 배우들까지 현실체험을 하게 하고 역형상을 완성하였던것이다.

말그대로 현실문학, 체험예술이였다.

그가 이처럼 천리마시대의 위대한 현실에 깊이 침투하여 글을 쓰는 체험문학의 실천가가 될수 있는것은 그 앞길을 밝혀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스승의 자애로운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였다.

세계적인 대문호의 현실체험과 창작은 오늘 우리의 작가들을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 시대의 명작, 세계

에 떼떼이 자랑할수 있는 선군조선의 대표작을 창작할 만만한 투지와 열정이 불타오른 작가라면 대단하게 현실에 뛰어들어야 한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언제나 군부대들과 강성대국건설의 현지에서 날과 달을 보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위대한 실천의 자욱에 걸음걸음을 따

라세우며 체험문학을 할 때 우리의 선군문단에는 제2, 제3의 백인준이 태어나 위대한 장군님께 큰 기쁨을 드리고 영웅적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크나큰 자랑으로 될것이다.

리 주 정

평 론

공화국의 첫 여성영웅이 발휘한 불굴의 정신력을 감명깊게 보여준 예술적형상

— 장편소설 《조옥희》를 두고 —

조 선 화

백두밀림에서 시작되어 강성대국의 장엄한 해돋이를 맞이하고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혁명은 얼마나 험난하고 시련에 찬 길을 걸어왔던가.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것처럼 간고한 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불멸의 영웅서사시를 아로새겨왔으니 그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는것인가.

장편소설 《조옥희》(안홍운 작)는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나날 조국수호의 길에 꽃다운 청춘을 아낌없이 바친 공화국의 여성영웅 조옥희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이 준엄하고 성스러운 혁명투쟁의 길에서 어떤 정신력을 지니고 어떻게 싸웠으며 그 정신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1. 영웅은 무엇으로 아름다운가

소설의 주인공 조옥희는 영웅이다. 그러나 작가는 영웅적소행이나 용감성을 보여주는데 기본을 두지 않았다.

영웅적위훈을 세우기까지의 그의 성장과정을 밝히는데 기본을 두고 영웅적성격의 기초에 놓여있는 사상정신세계, 정신력을 밝히는데 초점을 집중하여 형상함으로써 작품은 사상적내용의 철학적심오성을 보장하였다.

조옥희, 그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성이다. 청신하고 단아하며 지성미까지 가미된 도고한 모습, 누구나 지나가다가 다시한번 쳐다보게 되는 용모의 여성. 허나 용모가 아름다와 아름다운 인간이던가.

해방전에 그는 천덕꾸러기였다. 손바닥만큼씩 기운 겹점치마, 다 해져서 엄지발가락이 쑥 내어

민 고무신...

월사금을 내지 못하여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거지라고 수모받고 통바지를 안 입었다고 왜놈체육교원에게 회초리로 죽도록 매를 맞아 기절하여 쓰러지던 소녀.

마름 장만식네의 더러운 손아귀를 피하느라 사람 못살 깊은 산골인 곡산으로 시집을 가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때, 하루밤에 생떼같은 남편을 잃고도 송사 한마디 못하는 처지에 있던 그때 그의 운명은 노예처럼 법의 보호밖에서 짓눌리기만 하는 기구한 인생이었다.

조국해방은 그에게 너무나도 많은것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되었으며 면녀맹위원장, 군당 부장 등을 거쳐 군녀맹위원장의 중책까지 지니게 되었다.

하 기 에 조옥희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베풀어주신 크나큰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온넛을 짱그리 바쳐 일한다.

그 나날은 보람찬 투쟁의 나날이었으며 참다운 성장의 나날이었다. 그 과정을 소설은 혁명적수령관의 확립과정으로 형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은 수령을 언제나 마음의 기둥으로 굳게 믿고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충신의 품모를 그리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사람의 진가는 어려울 때 알수 있다는 말이 있다.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고 전략적인 일시적후

퇴가 시작되었다.

녀성의 몸으로 빨찌산에 들어가 부대장으로 활동하면서 고향과 조국을 지키기 위한 영웅한 투쟁을 벌리던 그는 어느 한 전투에서 동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적들을 유인하다가 부상당하고 절벽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그만 نوم들에게 체포되게 된다. 그에게서 비밀을 뽑아내지 못하게 되자 نوم들은 차고 밟고 두들겨패다못해 물레가락으로 온몸을 사정없이 찌르고 불에 달군 인두로 팔과 다리, 지어는 젖가슴까지 지저댄다.

빈사상태에 빠져 쓰러지기를 그 몇번... 그처럼 아름답던 녀인의 몸은 만신창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정신력만은 절대로 꺾을수 없었거니 그것은 우리 장군님의 전사로 살며 싸우려는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였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인민군대는 꼭 다시 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 공화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살인귀들의 중세기적인 고문에도 신음소리 한마디 내지 않던 그가 수백명의 군중들앞에서 힘을 모아 웨친 심장의 목소리였다.

어느날 그는 끊임없는 악형과 고열에 시달리면서 가물가물 정신이 흐려지는 속에 악귀같은 نوم들에게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고말 생각까지 하게 된다. 이마를 콩크리트바닥에 짓뭇어 단번에 끝장내자고 이를 사려물던 그는 어디선가 아득히 먼곳에서 울려오는 친근하고 우렁우렁하진 음성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해방된 조국의 참된 딸이 되시오!》

중앙당학교에서 공부할 때 전달받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교시!

이 말씀은 생활의 순간순간 그를 손잡아 이끌어 주고 키워준 삶의 좌우명이였고 가장 준엄한 시기에 영웅적인간으로 성장시켜준 불굴의 정신력의 원천이었다.

비겁하게 죽을것이 아니라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싸워야 한다, 조국의 참된 딸, 우리 장군님의 참된 딸답게!

그는 철쇄에 묶이운 몸이지만 비할바없는 정신적우세로 친미주구들인 장택수, 홍도란을 궁지에 몰아넣고 미제원쑤와의 마지막 판가리싸움으로 미8군사령부의 책략가이며 로회한인 언더만과의 대결을 스스로 마련하여 무한한 참패를 안겨줌으로써 نوم들을 전몰시킨다.

악에 반친 نوم들은 그에게서 별빛처럼 아름다운 두눈을 뺏고 그를 사형장으로 끌어낸다. 그러나 누가 누구를 사형했던가.

《...난 이제 여기서 쫓겨가게 될 네놈들의 물결이 똑똑히 보인다. 그리고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을

높이 모신 승리의 열병광장도 똑똑히 보인다!》

《나는 이제 죽는다. 그렇다고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는가? 천만에, 조국이 없는자는 결코 승리자가 될수 없다. ...》

이런 추상같은 웨침으로 نوم들을 공포와 절망의 나락에 빠뜨리고 영웅은 아득히 높은 벼랑에서 검푸른 바다물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그는 교형리들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이것은 사상과 신념의 승리, 정신력의 승리였다.

그 어떤 악형으로써도, 총칼로써도 꺾을수 없는 불굴의 정신, 수령의 사랑과 믿음속에 수령의 전사로 끝까지 싸우려는 숭고한 정신세계, 바로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는것이다.

어찌 조옥희뿐이라.

가장 위험한 시각에 부대와 동지들의 안전을 위하여 한몸 서슴없이 내대고 장렬한 최후를 마친 고명이, 막달찬 몸이지만 싸우겠다고 빨찌산에 들어온 김미선 그리고 춘녀...

소설에 형상된 지남산빨찌산의 미더운 녀성들의 형상은 조선녀성들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굳세고 순결하고 뜨거운 인간들인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와 같은 형상을 통하여 소설은 수령의 사상으로 뭉쳐지고 수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군대와 인민은 반드시 이긴다는 정신력의 철학, 승리의 철학을 깊이있게 밝혀주고있다.

바로 여기에 작품의 철학적심오성이 있고 예술적일반화의 깊이가 있는것이다.

2. 예술적견인력, 읽히우는 맛은...

소설가는 력사와 시대와 인간을 옹게 보고 생활의 새로운 진리를 찾아내야 할뿐아니라 예술적형상화를 잘하여야 한다. 그래서 무엇을 쓰는가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는가 하는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것이다.

이 작품은 읽히우는 소설이다. 아니 비교적 감명깊은 소설이다. 그것은 소설이 들고 나오는 문제성파도 관계되지만 예술적형상을 잘한것과 많이 관련된다.

작품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실재한 인물을 원형으로 하였고 주인공이름을 제목으로 한것만큼 잘못하면 일대기식으로 되거나 미담소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수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학적요구를 훌륭히 구현하고 극적견인력을 보장할수 있겠는가.

작가는 인물관계, 이야기줄거리, 예술적세부 등 구체적인 형상에 대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다.

작가는 우선 대립관계에 있는 세 인물의 관계로 기본관계로 설정하고 세 인물의 관계로 작품을 결

속하는 방법으로 구성을 조직하였다.

세 인물—조옥희, 장택수, 홍모란.

한 고향대기들이고 보통학교 동창생들이며 적대 적대립관계의 인물들인것으로 하여 이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극적으로 얹혀진다.

그것은 한동산에 살수 없는 《백매》(흰 새매)와 《승냥이》, 《여우》의 대결이었다.

많은 땅을 가지고 지주보다 더한 행세를 하는 마름의 아들로써 농군들에게는 땅이 곧 나라이고 법이라고 우쭐대면서 옥희와는 계급적대관계에 개인적인 원한까지 더하여 피를 물고 날뛰던 미국놈의 개 장택수는 기나긴 대결의 마라손에서 실패의 쓰디쓴 맛을 보지 않을수 없었으며 마지막에는 공포에 떨다못해 정신착란에 걸려 자충하는 것으로 더러운 목숨을 마친다.

인간은 사회와 시대의 노예일따름이고 녀성은 계급과 무관계하다는 이른바 《철학》을 운운하면서 옥희에게 앞으로 누가 더 큰 사람, 즉 영웅이 되는가 하는 승부를 가르자고 지껄이던 천일각 유흥장주인의 딸 홍모란은 미국놈을 하내비처럼 믿고 몸과 마음을 다 바치다가 옥희와의 싸움에서 패하며 상전에게서 헌신짝처럼 버림받고 나중에는 인민군총포탄에 맞아 개죽음을 당한다.

이와 같이 소설은 세 인물의 관계를 운명적인 관계, 인생철학의 대결관계로 형상함으로써 구성의 깊이와 립체성을 보장하였으며 추악한 원수매국역적들에 비한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우월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확인하고있다.

작품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대조되는 인물들을 맞세워 개성이 뚜렷하게 형상한것이다.

조옥희와 홍모란의 대비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말자.

소설에서 리동진과 유승학의 형상은 인생관, 혁명관에서의 명백한 대조를 보여주고있다.

해방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다가 원수들의 손에 피살되는 면당위원장 리동진, 평시에 말이 적은 그는 수더분하고 툭툭하면서도 대가 세고 원칙적이면서도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유승학은 군인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평화시기에는 화려하게 말도 잘하고 사업수완과 전개력도 있어보여 호평을 받았지만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는 쉽게 변절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진 너절한 인간쓰레기이다.

리동진이 깨끗하고 진실한 일군이라면 유승학은 가면을 쓴 위선자이다.

두 인물의 대조는 당의 신임을 같이 받는다 해도 사상과 신념에 따라 인생관이 달라지며 인간의 질이 달라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박용석과 장택수, 이들은 다같이 해방조선의 청

년들이지만 계급적으로, 인간적으로 판이한 대조를 이룬다.

총대를 틀어쥐고 우리의 정권과 체도를 보위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내무소장 박용석은 정신육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준비된 인간, 강의한 인간이라면 장택수는 이 체도를 전복해보려고 혈안이 되어 날뛰는 저렬하고 추악한 인간, 천미반동이다.

소설에서 박용석의 형상은 아주 이채롭게 안겨온다.

그는 《축구선수》이면서 《재단사》였다.

완력이기면서 섬세하고 배짱이기면서 다정다감한 정서의 소유자이며 감때사나운것 같으면서도 지성이 있는 청년, 대조적인 기질적특징의 두 측면을 함께 가지고있는 여기에 그의 형상의 특성이 있고 매력이 있다고 말할수 있다.

덧붙여 말한다면 박용석이 옥희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대하는것은 그 순결성으로 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관심과 기대를 가지게 하며 작품의 견인력과 정서성을 돋구는데 이바지하였다.

소설은 이야기줄거리도 단조롭게 조직하지 않았다.

주로 주인공의 경력을 따라 이야기를 펼치면서도 사건위주로가 아니라 주인공의 성장과정으로 줄거리를 짜나갔으며 라렬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본질적인 생활구면들을 설정하여 집약화, 집중화하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탄력성있게 끌고나갔다.

특히 주인공이 영웅이라고 하여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굴곡을 주어 형상하였다.

해방후 그는 당과 수령의 믿음속에 녀맹일군으로 자라난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상상할수 없는 은덕이였고 그의 생활에서 탈선이란 있을수 없을것 같았다. 그러나 소설은 그렇게 미끈하게 형상하지 않았다.

면녀맹위원장사업에 재미를 붙이고 성수가 나서 일하는데 하루는 면당위원장이 찾아와 인민학교(당시)개교를 앞두고 교원 한명이 모자라는 딱한 사정을 말하면서 그 일을 맡아줘야 하겠다고 했을 때 그는 얼마 생각도 안하고 딱 자른다. 교원은 정말 싫다고, 조롱안에 갇혀가지고 코흘리개들하고 씨름이나 해서야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고.

석달전 리동진이 입당준비를 하라고 했을 때는 기겁하여 손을 저으며 미꾸라지가 뽕뽕을 꾸는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던 옥희였지만 아직은 너무도 《철이 안든》 모습이었다.

당위원장의 영향하에 그의 자책은 깊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성장하는 그의 형상은 성격의 론리에 맞는것으로 하여 진실하며 독자들로 하여금 공감을 가지게 하는것이다.

소설의 세부형상에 대해서만 좀 더 이야기하자.

돌다리세부, 입당수이야기세부, 께맨 박용석의 신발세부…

얼마나 인상적인 세부들인가.

운산면으로 들어가는 길에 도래천이 있고 거기에 돌다리가 놓여있다. 군에 가서 면녀맹위원장으로 임명받고 돌아가는데 돌다리에 선뜻 들어서지 못하고 주저하는 옥희. 이 다리만 건너서면 면소재지이고 자기는 면의 《간부》가 된다. 자신이 없었다. 내가 어떻게 그런 큰일을... 생각만 해도 오금이 떨려났다.

고작 여라문메터 실한 다리가 아득히 멀어보이고 한길밖에 안되는 다리아래의 강물이 열길만큼이나 무섭게 내려다보였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바엔 차라리 이제라도 돌아가구말가?... 차마 그렇게야 어떻게.)》

울고만싶은 심정을 안고 어쩔줄 몰라하는데 맞은편에서 걸걸한 남자의 목소리, 마중나오는 리동진이였다.

《녀맹위원장동무.》라는 부름에 더 가슴이 활랑거리는데 리동진이 옥희의 손을 잡아 이끈다.

《...그저 당에서 하라는대루만 하면 된다. 자, 어서 가자.》

면당위원장의 손에 이끌려 옥희는 이렇게 인생 전환을 이루었다. 군으로 소환되어갈 때에도 리동진이 이 다리에 나와서 손을 저어 바래주었다. 옥희는 이 다리를 건너서 사회활동의 첫걸음을 뚫으며 이 다리를 건너서 보다 넓은 활무대로 나래쳐 갔다.

내물을 건느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할 돌다리를 인생전환의 돌다리로 형상하고 당의 손길아래 소박하고 평범하던 사람들이 훌륭한 일군으로, 나라의 영웅으로 자라나는 우리 사회의 본질을 구체적인 생활로 진실하게 밝혀준 여기에 이 세부의 형상적깊이가 있다.

이 돌다리는 박용석과의 관계에서도 인연깊은 다리이다. 운산면시절에 박용석은 옥희와 함께 하루에도 몇번씩 이 다리를 건너다녔다. 군당련락관관으로 지남산빨찌산에 왔다가면서 박용석은 바래주러 나온 옥희와 함께 걸으면서 이 돌다리를 추억한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상봉이 될줄을 어찌 알았으랴.

박용석이 말한것처럼 이 다리는 그에게 있어서 참으로 교약스러운 《오작교》였다.

임당수이야기세부는 소설에 여러번 반복심화되면서 사상주제적파제를 밝히는데 이바지하였다.

특히 어린시절과 최후장면에서 이 세부를 대칭적으로 맞세워놓은것은 아주 효과적이였다.

8살때 아버지를 따라 벽란도나루에 갔을 때 옥희는 무섭게 뒤설레이는 파도를 공포에 질려 바라보았으며 아버지가 들려주는 심청이야기를 듣고는 나두 커서 울아버지 눈 못 보게 되면 저 바다에 몸을 던질테야 하고 입술을 옥물고 파도를 쏘아보았다.

놈들에게 끌려 통당포구명바위앞에 선 최후의 순간 그에게는 바다가 무섭지 않았다. 죽이겠다고 총구를 들이대고 날치는 원쑤놈들도 무섭지 않았다.

경건한 마음으로 파도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는 아름다운 고향바다를 생각하였으며 임당수이야기를 생각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를 목청껏 웨치고 《임당수》 깊은 물에 몸을 던졌다.

어제날에 한 가정의 아버지밖에 모르던 어리고 천진한 소녀는 이렇게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알고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영웅적인간으로 성장하였다.

이와 같은 형상은 주인공의 초기모습과 마지막모습을 구체적인 생활세부를 통하여 분석적으로 심화시켜 묘사한것으로서 독자들로 하여금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삶의 진가에 대하여 깊이깊이 생각하며 크나큰 충격을 가슴뿌듯이 받아안을수 있게 해주고있다.

소설의 마지막장을 덮었지만 작품의 여운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다.

불굴의 정신력! 바로 여기에 언제나 오늘에나 우리의 모든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추동력이 있다.

작가들은 앞으로 격동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한대한 정신력을 총발동시키기 위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영예로운 참전자, 시대의 선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세계유모아

《 나는 작가 이니까요. 》

《당신이 형단조프레스를 한대 사면 좋겠습니다!》

《그건 좋은 기계이지만 나한테는 필요없습니다. 나는 작가이니까요.》

《당신이 작가이라는것은 나도 압니다. 당신의 작품을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바로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형단조프레스를 사도록 권고하는것입니다.》

벽시초

조 국 과 인 생

박 근 원

자기것 없다면

갈길이 멀다고
주저앉아 그 길 바라만 본다면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자기것 무엇이 있으랴

대지에 땀 한방울 묻지 않고
100년을 살았다 한들
자기것 없는 이 땅에
어이 인생이 있었다 하랴

삶의 멋 생의 추억

남이 헤친 순탄한 길 가볍게 걸어
이 땅에 뿌렸한 제 자옥 없다면
무슨 삶의 멋이 있으며
후날 무슨 생의 추억을 하랴

살았어도
삶의 멋도 없고
생의 추억도 없는
그것도 인생이라

조국이 이어주는 생

나라와 인민을 위해 바친

그 생엔 없더라
인생의 마지막문이
바친 그 생을 이어주는 조국이 있어

우 리 의 집

우리 힘으로 우리것으로
우리 손으로 우리 식으로
우리 미감에 맞게 세운 집만이
뽕뽕한 우리 집이라 하리

이 땅우에 일떠세우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의 큰집
그것은 명실공히 우리의 집
그 집 대문열쇠의 주인은 우리

우리의 정신력

우리의 정신력 그것이 그저
숭고한 인간으로서 지닌
우리의 깨끗한 마음
순결한 양심의 힘이던가

천하제일명장이신 선군령장
그이 심장에서 받아안은
철의 신념 불굴의 의지
그것이 우리의 정신력이다

초 소 앞 에 시 내 물 이 있 다

리 찬 호

물쿠는 더위
불별에 돌마져 타는듯
길가의 풀잎도 스러지는데
해별을 굴리며 흐르는 시내물
구슬같이 맑은 서정시를 읊네

뉘한테 헤쳐놓느냐 시내물아
그 달고 시원한 젖줄기
삼복의 열기속에 땀흘린 가슴들이
번들번들 실한 등에 물을 끼었느냐

어허 휘뿌리는 웃음
넘쳐나는 보람
총진 무쇠팔뚝들이 가꾼 숲에서
시내물은 그냥그냥 흘러나오느냐

어제는 메마르던 등성이
오늘은 무성한 푸른 숲
애면글면 심어 가꾼 나무들이
병사들 고마워 진정을 터치느냐

마를줄 모르느냐 시내물 시내물아
이발이 썩 시리게 잠귀놓은
참외랑 수박이랑 보기도 좋다
흐르는 물소리 듣기도 좋다

오, 돌우에도 씨앗을 움티우며
이 땅을 품어안고 지키는 가슴들
샘솟듯 솟구치는 참된 조국에
푸른 숲이 어찌 몰라볼것이나



백 명 길 그림 김정화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된 이듬해 가을 나는 북남경제실무일군들의 회담취재차로 우리 측 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서울로 가게 되었다.

서울에 도착한 이튿날, 우리가 경기도의 어느 한 지방도시를 돌아보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였다.

숙소로 정해진 호텔 현관홀에 설치된 대형텔레비죤화면에서는 보수언론기관으로 악명 떨치고 있는 《조선일보》의 주최하에 해방후 남으로 나온자들의 텔레비죤좌담회가 방영되고있었다.

좌담회에 출연한 백발의 늙다리들은 입에 게거품을 물고 제마끔 지껄여댔다. 그중에서도 한 로구의 발언이 별스레 나의 주의를 끌었다.

《…내 고향은 평안도 송천인데 8.15해방 이듬해 아버지와 함께 서울로 나왔수다.

아버지는 술한 땅과 산림, 고래등같은 기와집을 빼앗기고 온게 너무 분해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군 했지요. 그 땅을 다시 찾으려고 지난 전쟁때 고향에 갔다가 그만 옛 머슴놈들의 손에 잘못되었수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렀고 선친들이 남긴 한은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한이 뭐겠수?… 북에 두고온 땅과 산림, 마을복판에 우뚝 솟아있던 기와집이 아니겠수.

사실말이지 해방전에 도씨가문이라고 하면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고 했수다. 우리 고향 비룡강물은 우리 도씨가문의 돈줄기였수다. 우리 가문이 다스리던 땅과 산림은 하늘소를 타고 달포를 다녀도 못다 볼만큼 넓었고 그 땅과 산림이 얼마나 비옥했는지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다는 모를거우다, 흑흑…》

나는 돌로 굳어진듯 한자리에 못박혀 분노로 온

몸을 부르르 떨었다. 으스스하게 틀어쥔 주먹속에 땀이 질벅하게 내배였다.

《도치수!…》

나는 으드득 이발을 갈며 그놈을 쏘아보았다. 맥빠진 늙은 승냥이는 그냥 녀두리를 늘어놓았다. 살기가 번뜩이는 그자의 눈에서는 빼앗긴 옛 시절, 옛제도에 대한 갈망이 엿보였다.

(도치수, 네놈이 여적 살아있었구나!)

이제는 80이 가까운 나의 할머니가 이 소식을 들으면 아마 자다가도 소스라쳐놀라 깨어날것이다.

나의 뇌리에는 철들어서부터 할머니에게서 들어온 이야기가 생생히 떠올랐다.

… 《…피눈물나던 그 사연을 다 말하자면 네 증조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낳던 얘기부터 해야 할게다. 난 네 증조할머니 이름조차도 잘 모른다.

마을사람들은 그저 작은녀, 작은녀이라고 부르곤 했었다는데… 하긴 그 세월에야 어디 녀자를 사람값에나 쳐주었을세 말이지. …》

1

온 조선땅을 들었다놓았던 3.1인민봉기가 끝난지 여려해가 흐른 어느해 하지날이었다.

예로부터 각종 산골특산물이 많이 나기로 소문난 평안도 송천 통소마을 비룡강변 보리밭에서는 이른아침부터 한 녀인이 보리가을을 하고있었다. 만삭이 된 몸으로 힘겹게 일손을 놀리는 그 녀인을 마을사람들은 박우물집 작은녀라고 불렀다.

날이 더워지기 전에 일자리를 많이 축내려고 쟁싸게 일손을 놀리는 작은녀의 온몸은 벌써 땀으로

촉촉히 젖어있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무렵부터 작은녀의 일손이 점차 떠지기 시작하더니 이따금 배를 그러안으며 간간이 신음소리를 토해내곤 하는것이 당장이라도 몸을 풀것만 같았다.

배를 그러안고 보리단에 기대앉아 숨을 돌리던 작은녀는 저쪽 장승재우로 인력거 한대가 넘어오는것을 보자 얼굴을 찡그리며 곁에 놓아두었던 낫가락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주 도태부가 탄 인력거가 분명했다. 하얀 맥고모에 나비넥타이 맨 양복차림의 도태부가 권연을 피워물고 거들스레 앉아있는 모양이 인력거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욱 뚜렷이 안겨왔다.

왜놈들에게 목돈을 찢러주고 송천일대의 웬간한 논밭들은 물론 수백정보에 달하는 산림까지도 자기 소유로 만든 도태부는 실제상 이 고장 농민들의 명줄을 틀어쥐고 고혈을 짜내는 악질지주였다. 지금 작은녀가 가을을 하고있는 이 강변 보리밭도 물론 도태부의 소유였다.

이 송천땅에 밭을 불인지 불과 몇해어간에 린근 100리아근에 당할자가 없는 갑부로 성가한 도태부의 과거행적에 대해서는 이 고장에서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다.

제 말로는 구한국 말기부터 평양 어느 관청에선가 주사노릇을 하다가 이곳으로 왔다고는 했지만 실상은 저기 북쪽 함흥시가에서 철물가게주인노릇을 하다가 술한 남의 돈을 집어삼키고 야밤도주하여 여기 송천산골에 들어온 도태부였다.

어려서부터 돈길보는데로만 미립이 텃던 도태부였던지라 이 고장에 흔한 약밤, 돌배, 잎담배, 산나물 등 각종 물산들을 도회지들에 내다팔면 큰 리득을 얻을수 있다는것을 제격 꿰뚫어보았다. 거기 에다 사철 마를줄 모르고 흐르는 비룡강물을 보자 물길에 배를 띄워 실어나르면 룡로보다 몇갑절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것이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제 무릎을 치며 쾌재를 올렸던 도태부였다.

실상 이 고장은 비룡강변에 줄줄이 늘어선 봉우리마다 제나름으로 특색을 띠고있어 절승경개라 할만큼 경치도 장관이었지만 그 산들에서 나는 산나물, 산열매들 역시 맛과 향기가 독특한것으로 유명했다. 그중에서도 약밤과 돌배, 잎담배는 타관사람들은 물론 왜놈들까지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맛이 좋았다.

가을이면 산봉우리마다에서 풍겨오는 돌배향기가 린근 몇십리여간을 들었다놓았고 절골과 마목령골짜기들에선 약밤 떨어지는 소리가 우박치듯 하고 산비탈을 일궈 심은 담배밭들에서는 해빛을

받아 이슬같은 진액을 줄줄 흘리는 잎담배가 호박잎같이 커다란 잎새를 흐느적거리며 사람들의 가슴을 흐뭇하게 해주곤 하였다.

약밤청대에 외통눈이 되여도 후회없을만큼 어른, 아이 할것없이 온 정신을 빼앗는다는 달고 고소한 송천약밤, 고슴도치같은 밤송이에 불이 달려 그 열에 탁탁 껍질을 벗으며 튀어나오는 밤알을 받아먹는 재미란 참... 선들선들 가을바람에 쪼글쪼글 시든 밤알을 토끼배속에 넣고 찌내면 보약중에도 남녀로소 원기돌구는 으뜸보약이라 이 아니 특산물명이 아니라.

령감님들 곰방대에 잎담배를 꼬깃꼬깃 다져넣고 랑불이 훌쭉해지도록 기운차게 빨아대면 대진이 지글지글 끓으면서 피워올리는 향기에 머느리들 코날개 벌름벌름 시아버지 주위에서 못 떠난다니 이 또한 이 고장의 특산물이었다.

이 물산들을 자랑하며 비룡강 또한 푸른 비단마냥 산굽이를 돌고돌아 유유히도 흘렀다.

비룡강의 시원은 동쪽으로는 아호비령, 서쪽으로는 장산령의 깊은 계곡이어서 상류쪽에서는 물살이 살같이 빨랐지만 하류쪽에서는 호수물처럼 흐름이 정지된듯 잔잔하게 흘렀다.

하지만 장마를 겪고나면 사정이 달랐다. 산골짜기마다에서 샘통이 터진듯 폭포처럼 흐름이 거세차지면서 그 물량 또한 물동이 없이도 큰 배를 띄울만큼 가랑없이 불어나곤 했다.

이런 때가 되면 도태부는 서른척도 넘는 큰 배들에 물산들을 싣고 대동강하류까지 손쉽게 싣고 가서는 평양과 황해도장사군들에게 비싼 값으로 넘겨주어 폭리를 얻곤 했다.

도태부의 물길장사가 시작부터 땅짚고 헤엄치기로 된것은 아니었다.

처음엔 멋모르고 작은 쪽배들에 물산을 싣고 마을동구밖 룡바위앞에 있는 룡소를 지나다가 한척도 남김없이 모조리 장사지내고말았었다. 장정들이 쓰는 도리깨 서너기장쯤 가까이에만 들어서도 소용돌이치는 물살에 말려들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룡소의 무서움을 이때야 비로소 알게 된 도태부는 우선 배부터 웬간한 소용돌이에도 끄떡없을 큰것으로 장만했다. 그리고 배를 떠나보내기 전에는 꼭 룡바위위에 통돼지와 떡함지를 가져다 놓고 큰 제를 올리곤 했다. 물길장사만 잘된다면 통돼지정도가 아니라 생사람이라도 룡소에 쓸어넣고싶은것이 그의 심정이였다.

그후 도태부의 물길장사는 날이 갈수록 그에게 큰 부를 가져다주었다. 게다가 왜놈관청까지 끼고 린근 100리아근의 노란자위논밭들과 수백정보

의 산림까지 손에 넣은 도태부의 가세는 이 송천 땅에 맞설자가 없을 정도로 번창했다.

늘어가는 가세와 더불어 그의 가슴속에 더욱 짙게 서려든것은 첩을 번갈아대기 시작한지도 벌써 십여년이 가까와오도록 아직도 자식을 보지 못하고있는 근심이었다.

도태부는 언제인가 신령스럽다는 읍거리 큰무당을 불러다가 대청이 들썩하도록 요란하게 굿을 했는데 무당이 뽑은 령험이 짓들었다는 점괘는 양기가 허약해 자식보기가 힘들다는 극히 상서롭지 못한 것이었다.

도태부는 골을 싸쥐었다.

(하늘도 무심하지, 저 많은 재산을 어느놈한테 물려줄텐가. ... 이제 무슨 재미로 재물을 모을고...)

도태부는 눈에 달이 떠서 달라붙었다. 명의란 명의는 다 찾아다녔고 군시골 절간의 중들이 시주를 받으러 다니지 않아도 될만큼 아끼지 않고 재물을 퍼부으며 불공을 드렸다.

그러던중 어느해 봄날 절골에 사는 숫구이령감이 웅노에 걸린 새끼뱀 암사슴을 잡았다는 소리를 들은 도태부는 한달음에 야밤 시오리길을 달려갔다.

도태부가 숫구이령감네 집 삼작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니 광술불을 켜든 숫구이령감이 눈물이 글썽해서 다리부러진 암사슴의 다리에 다름나무진을 발라주고있었다. 고루 퍼놓은 강낭짚우에 드러눕힌 암사슴의 잔등에서 애기주먹만큼씩한 흰 점박이들을 보는 순간 도태부는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이건 분명 부처님이 내 돈독한 불공에 감복되어 내리신 귀물이 틀림없어. ...)

도태부는 앞뒤를 가릴새없이 옆구리에서 장도칼을 뽑아들고 암사슴의 먹을 찌르려고 헤덤뻬다.

숫구이령감이 필쩍 뛰면서 칼을 쥔 도태부의 손을 잡고 애걸했다.

《안되우다, 제발... 사슴이 금방 새끼를 낳을 참인데...》

《령감, 그래서 더구나 먹을 찌러야겠소.》

《말 못하는 짐승도 제 새끼 귀한줄을 알터인데... 제발 이러지 마시우다.》

《령감, 이 사슴은 부처님께서 내게 하사한 령험한 약이요. 이놈도 다 내 산에서 난 풀을 뜯어 먹고 사는 놈이니 내 손에 죽는것도 다행이 아니겠소.》...

도태부는 머뭇머뭇한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사슴의 먹을 장도칼로 힘껏 찢었다.

《으흥—》

암사슴은 애처로운 비명을 지르며 별로 요동도 쳐보지 못하고 뜨끈뜨끈한 생피를 한대접이나 쏟아놓았다. 도태부는 비단옷자락이 피칠갑이 되는 줄도 모르고 사슴의 피를 꿀꺽꿀꺽 들이마셨다. 그것도 성차지 않았던지 고기는 말짱 발가서 이글거리는 잉겔불에 구워먹었고 룯태는 술 열근에 담그어 석달을 장복해 마셨다.

그때 숫구이령감은 새끼도 못 낳고 죽은 암사슴이 불쌍해 밤새 눈물을 흘리다가 산판에 놓았던 웅노를 모조리 끊어버렸다고 했다.

그후 도태부는 양기가 뻥쳐나 읍거리 첩년네 집에 문돌찌귀가 불이 일도록 뻥질나게 드나들었다. 사슴룩태에서 기를 얻었는지 임신을 한 첩년이 본택이 살고있는 룽소마을쪽에 대고 배를 쏙 내밀고 소리쳤다.

《흥, 이제 바라. 내 네년보다 먼저 떡돌같은 아들을 낳아 네년에게서 머리칼 뜯기운 값을 톡톡히 받아낼테다.》

그 소식을 들은 본택은 화가 치밀어올라 뺱가당 쟁가당 집가산을 들부시며 야단독장을 치다가 그것이 빌미로 되었는지 몇달동안을 화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 저세상으로 가고말았다. 첩년은 어쩔씨구 때를 만난듯이 춤추며 룽소마을 도태부네 집으로 들어갔다. 오늘이 바로 첩년이 아이를 낳는 날이어서 도태부가 직접 읍에 나가 산파를 데려오는것이다. ...

인력거를 탄 도태부가 마을쪽으로 점차 멀어져가는것을 이윽도록 바라보며 서있던 작은녀는 또 다시 엄습해오는 진통에 배를 그러치고 보리단우에 주저앉았다. 보리단우에 기대앉아 한동안 숨을 돌린 작은녀는 거의 네발걸음이다싶이 강변모래볼로 기여나와 해빛에 따듯해진 모래를 고루 퍼고 그우에 편안스런 자세로 드러누웠다. 정오가 가까와오는무렵이라 물소리와 풀벌레소리만 들려올 뿐 사방은 고요했다.

작은녀는 신음소리를 간신히 내뱉으며 피가 나게 입술을 깨물었다. 얼마쯤 지나자 차츰 진통이 멎는듯싶었다.

작은녀는 가늘게 뜯 눈까풀사이로 가없이 넓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에는 두마리의 수리개가 깃을 펼치고 높이 떠있었다. 작은녀는 그 수리개의 날개를 타고 달포전 고개너머 차굴공사장으로 간 남편에게로 날아가고싶었다.

그의 눈에는 남편없이 한지에서 첫아기를 낳아야 하는 서글픈 빛이 축축히 어려있었다.

자기 몸이 성하고 남편만 있었다면 벌써 다 끝내고도 남았을 이 강변 보리밭가을을 오늘중으로

끝내지 못하면 당장 땅을 떼겠다는 도태부의 야단에 만족이 된 몸으로 하는수없이 나와 일손을 잡았던 작은녀였다.

또다시 진통이 왔다.

《아이구, 어머니!》

《아이구, 여보!》

그는 이미 저세상으로 간 어머니와 고개넘어 먼 곳에서 고역을 치르고있을 남편을 애타게 찾으며 몸을 뒤흔쳤다.

(신령님, 부디 굵어살피시옵소서.)

작은녀는 지금껏 빌고빌었어도 딱 한번 입지 못한 신령님께 빌고 또 빌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몸을 뒤흔치던 그는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다. 한손에는 커다란 보통이를 들고 다른 손에는 예닐곱살쯤 되여보이는 어린 총각애의 손목을 잡은 웬 로파의 모습이 시야에 안겨들었다. 물건너 수토재마을에 사는 학송이 할머니였다.

《쫓쫓… 불쌍도 해라. 원 이런 한지에서 아이를 낳다니… 쫓쫓…》

학송이 할머니는 연송 허를 차며 작은녀의 배를 어루쓸기 시작했다. …

한동안 신고를 한끝에 할머니는 아이를 받아냈다. 얼마동안 기신없이 누워있던 작은녀는 그런대로 순조로운 생남이라는데 기운을 얻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앉았다.

《참 고마와요. 어디 바빠 가시던 걸음이던것 같던데…》

작은녀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할머니에게서 피덩이야기를 받아안았다.

《어제 학송이 애비가 일하는 차굴공사장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는 소문이 돌길래 학송이 애비가 무사한지 해서 한번 가보려고 길을 떠났던 참이야.》

《그럼 어서 가보세요. 나때문에 안됐어요.》

《그런데 임잘 혼자 두고서야 어디…》

《일없어요. 내 걱정은 말고 어서 가보세요.》

작은녀는 아이를 안고 주섬주섬 일어나 비룡강가로 다가갔다. 잔고기 뛰노는 비룡강물에 수건을 적셔 아이를 깨끗이 씻어주는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는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지 《그럼 난 가보겠네. 공사장에 가면 임자 서방소식도 알아보지.》 하고 떠나갔다.

작은녀는 보리이삭이 반쯤 담긴 바구니에 머리수건을 펴고 그우에 아이를 조심스럽게 눕혔다. 그리고는 한동안 바구니안의 아이를 정겹게 바라보았다. 이윽고 바구니를 안고 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녀는 천천히 마을로 향했다.

마을길로 접어들던 작은녀의 걸음은 키높은 솟을대문을 해세운 도태부네 집앞에서 멈추어졌다.

솟을대문안 마당에서는 울긋불긋한 옷차림을 한 무당이 방울소리를 요란스레 울리며 잡귀신들을 몰아내는 굿판을 벌리고있었고 사람들이 동서남북 향불을 피우고 대문가와 집기둥들에 빨간 고추를 매달아놓느라고 분주함을 피우고있었다.

《나 죽는다! 아이고!》

안방에서는 갓 본택으로 들어앉은 읍거리첩년의 비명소리가 울려왔다.

갑자기 《생남이요, 생남일세. 도씨가문의 경사로다. 어절씨구!》 하는 소리가 울리더니 도태부가 장지문을 드르륵 열고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돌아갔다. 한동안 어리광대처럼 놀아대던 도태부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안방 퇴마루에 엮드려 붓을 들고 백로지우에 무슨 글인지를 그리었다. 그러더니 《이름은 신령님의 뜻대로 우리 집안의 돈줄기인 저 비룡강물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다스릴 치자에 물 수자를 놓아 도치수라고 하겠나이다. 부디 굵어살피주시옵소서.》 라고 설레발을 치며 한문자로 이름을 써넣은 백로지를 무당에게 두손으로 피어올렸다.

그것을 받아든 무당은 방울소리를 더 요란스레 울리며 마당을 오락가락하다가 집기둥가운데 가져다붙이며 《오호네야! 신령님은 굵어살피주시옵소서!》 라고 연방 소리쳤다.

그 모양을 바라보는 작은녀의 귀가에는 차굴공사장으로 떠나기에 앞서 남편이 하던 말이 조용히 울려왔다.

《만약 내가 돌아오기 전에 해산을 할가봐 그러는데 아들을 낳으면 수호, 안수호라고 짓지요. 저 비룡강을 지키는 호랑이가 되라는 뜻에서 말이요.》

작은녀는 남편이 지어주고 간 아기의 이름을 입속으로 뇌여보며 다시금 걸음을 옮겼다.

《안수호!…》

2

강물소리 소연한 강변 모래밭에서 태어난 안수호는 어려서부터 비룡강에서 놀기를 좋아했다.

수호의 어머니 작은녀는 늘쌍 아들에게 물만 보면 제 어미를 본 아이보다 더 급하게 군다고 나무람하곤 했다. 하지만 수호를 물과 떼어놓을수는 없었다. 예닐곱살이 잡혀서부터 수호는 벌써 능숙하게 물속 자택질도 할줄 알았다.

아홉살나던 해 그가 그렇게 좋아하던 비룡강물은 야속하게도 그의 어머니마저 빼앗아갔다.

수호가 세상에 태어나던 그해 차굴공사장에 끌려갔던 아버지는 영영 돌아오지 못하였다. 학송이 할머니가 가져온 그 비보는 갓 아이를 낳고 자리에 누워있던 수호의 어머니를 절망에 빠지게 하였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절망에 빠져있을 겨를이 없었다. 발쭉발쭉 웃기 시작한 수호를 보며 수호의 어머니는 그 이튿날부터 밭으로 나갔다.

도래부네 땅을 얻어부치며 억척스레 일하는 어머니를 도와 수호는 잔뼈도 채 굳기 전부터 일손을 잡지 않으면 안되었다. 어린 수호에게 있어서 홀로 남은 어머니는 유일한 삶의 기둥이었다. 그런데 그 어머니마저 세상을 하직했으니...

그해 보리장마는 시작부터 요란했다.

사흘밤, 사흘낮 꼬박 대줄기같은 비는 멎지 않고 그냥 쏟아졌다. 그날도 어머니는 마을사람들과 함께 비가 계속 오면 보리를 다 썩인다는 도래부의 야단에 몰려 쪽배를 타고 강 건너 밭으로 보리가을을 떠났었다. 저너무렵부터 강물은 황토색을 띠며 더 세차게 범람했다. 수호의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은 쪽배에 보리단을 가득 싣고 강을 건너오다가 사품쳐흐르는 강물에 떠밀리어 룡소에 휘말려들었다. 룡소는 기다린듯이 쪽배채로 배에 탄 생명들을 모두 삼켜버렸다.

다음날 아침 비는 멎고 황토물이 맑게 가셔진 비룡강물은 예전처럼 잔잔히 흘렀다.

수호는 어머니를 찾으려고 며칠동안이고 강변을 오르내렸다. 너무 울어 눈은 퉁퉁 부어올랐고 강변자갈에 걸쳐여 찢긴 발가락들에서는 피가 나왔다.

수호의 가공한 정상이 딱해보였던지 동네녀인들과 늙은이들이 자기 집으로 손잡아 이끌었으나 수호는 어머니의 시체라도 찾겠다고 우겨댔다.

그러는 수호에게 한 로인이 이렇게 말했다.

《수호야, 너의 어머니는 심청이가 갔다는 룡궁으로 갔단다. 이제 비단옷입고 흰쌀지고 널 데리러 올게다. 그러니 울지 말고 착실히 기다려라.》

《거짓말, 그렇게 좋은 룡궁이면 왜 날 데리고 안 갔겠어요.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으면 난 도주사네 머슴으로 끌려가고말아요. 어머니, 흑흑. ...》

차굴공사장에서 시체로 되어 돌아온 수호 아버지 장례때 도래부에게서 빚을 내였던 사실을 잘 알고있었던지라 로인도 혀를 찰뿐 어찌지 못했다.

수호는 룡바위밑에서 소용돌이치는 룡소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룡소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세차게 사품치며 회오리치고있었다.

수호는 물장구나 겨우 칠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자주 룡바위전설을 듣곤 했었다.

...옛날옛적, 이 지방에 삼년석달 한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아 비룡강이 말라버렸던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자 물속에서 살던 룡도 갈증을 이겨내지 못해 태를 치다가 하늘로 날아오르려고 힘껏 꼬리를 치며 치솟았는데 물을 먹지 못한 룡은 기운이 진해 하늘로 오르지 못하고 꼬리를 땅에 박은채 바위로 굳어졌다고 한다. 그 바위가 지금의 룡바위이다.

그로부터 며칠후 하늘은 돌로 굳어진 룡을 불쌍히 여겨 비를 주었다. 그래서 삼년석달 거북등처럼 터갈라졌던 비룡강줄기에 또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땅속에 꼬리를 박고 간신히 명을 부지해오던 룡의 꼬리가 다시 살아나 무서운 소용돌이를 쳤는데 그 요동이 곧 룡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룡소는 《도깨비소》로 불리울만큼 무서웠다. 룡소에 휘감겨들면 시체도 못 찾는다고 사람들은 쳐다보기조차도 주저했다. 어느해 장마때 수호는 물살에 떠내려온 황소가 우영우영 영각소리만 남기고 룡소에 휘말려들어가는것을 본적이 있었다. 그 룡소밑에 대가리가 물둥이만큼 큰 쏘가리가 바위쪼에 붙어사는데 그놈이 룡소에 빠진 사람들을 잡아먹는다고 했다. 온 마을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룡소를 도래부만은 신주모시듯 했다. 도래부는 룡소가 있어 비룡강물이 세차게 흐른다고 하면서 그 물길이 도씨가문의 영원한 돈길이 되어주기를 바래 온갖 지성을 다해 제를 지내곤 하였다. 더우기 칠월칠석날만 되면 흰눈같은 백설기를 열시루나 쪼내여 삶은 통돼지와 함께 룡소에 던져넣곤 했다. ...

며칠후 도래부는 독수리 병아리 덮치듯 수호를 자기 집 머슴으로 끌어갔다.

이때부터 어린 수호의 설움많은 머슴살이가 시작되었다.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면서 굶기를 도랑건너뛰듯 했지만 부모들이 물려준 천성적인 체질은 어디 갈데가 없었다. 세월은 점차 수호에게 대장부의 체격을 갖추어주기 시작하였다.

도래부는 수호의 그 체격이 흠뻑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비룡강변에 태를 묻었고 물과 천분의 인연을 맺었다는 사실에 더 마음이 갔다.

더 많은 재산을 모으려면 비룡강물을 잘 다스려야 한다. 이것이 도래부의 지론이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도 도치수라고 지었는데 성장하는것을 보면 별로 신통치 않았다.

세상 으뜸보약은 다 먹고 온갖 치성을 다 들어

보았다는 치수이건만 머슴인 수호에 비하면 비루 먹은 강아지만도 못했다. 매일 산해진미속에 빠져 있어도 목대가 가늘었고 얼굴은 피기가 없이 파리한게 영 피지를 못했다.

세상일이란 참, 집도 없이 강변에서 낚은 머슴놈은 박달나무처럼 단단한데 권세있고 돈많아 큰 무당, 작은 무당 다 끌어들여 온갖 잡귀신 다 쫓아내고 받아낸 자식은 능달아래 싱아대갈으니... 머슴방에서 수호와 함께 지내는 공서방만 봐도 1년가야 고뿔 한번 앓는적이 없는데 뜨끈한 아래목에서 비단이불 덮고 자는 자기 자식은 찌하면 앓기를 밥먹듯 했다.

공서방은 도태부네 집에서 종신이다싶이 머슴을 살고있는 마흔을 넘긴 로총각이었는데 고향이 어디이고 이름이 무엇인지 누구도 몰랐다. 안다면 도태부가 함흥에서 여기로 야밤도주해 올 때 함께 데리고 왔다는것뿐이었다. 도태부는 그를 공서방이라고 부르곤 했다. 그러니 성이 공가라는것은 분명했다. 공서방은 병어리마냥 입이 무거운 사나이였다. 묻는 말외에는 일체 입을 봉하고 수격수격 일만 했다. 도태부는 공서방을 자기 집 개보다도 더 천대했다. 그럴수록 수호는 공서방을 아버지처럼 따랐고 공서방은 수호를 친자식처럼 극진히 위해주었다.

수호는 도태부네 집으로 끌려와 고된 일에 시달렸다. 그속에서도 어쩌다 짬이 생기면 늘쌍 비룡강에 나와 미역도 감고 자맥질도 하곤 했다. 비룡강은 수호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품과도 같았다.

한날한시에 태어난 치수가 강기슭에서 자박자박 개헤엄이나 칠 때 수호는 한길도 넘는 깊은 물속으로 자맥질하여 쏘가리, 가물치를 비롯한 맹어들을 쫓아다녔다.

수호가 열두어살쯤되던 해 여름날, 공서방이 만 들어준 작살로 팔쪽시만 한 쏘가리를 찢러잡았다.

입에 공기를 가득 물고 물속에서 솟구친 수호는 《잡았다!》라고 소리치며 서발작살에 몸뚱이가 찢리운 쏘가리를 강변에 힘껏 던졌다.

치수는 침범침범 강물에서 뛰어나와 푸들쩍거리는 쏘가리를 희한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테거, 이거 쏘가리로구나.》

《어때?...》

수호는 범잡은 포수마냥 으쓱해서 소리쳤다.

《이거 진짜 네가 잡았니?》

치수는 눈이 왕사발만 해져 수호를 쳐다보았다.

《방금 작살을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는것을 보구도 그래, 요놈이 나와 술래잡이를 하자구 바위썩에 딱 붙어있는걸 이렇게 찢렸지.》

수호는 신명이 나 치수를 향해 작살꽂는 시늉을 했다. 치수는 흠칫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치수는 아가미를 찢쩍 다시는 쏘가리와 수호를 번갈아 바라보며 닭알침을 삼켰다. 자기도 욕망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작살을 쏘아들고 물속으로 들어가 자맥질을 하고싶었다. 하지만 저 아래쪽에서 소용돌이치고있는 룡소를 바라보니 온몸에 오싹소름이 끼쳤다.

수호는 보란듯이 바위우에 올라 제비같이 물속으로 내리쫓았다. 치수는 입을 헤 벌리고 부러운 눈길로 수호의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수호가 비룡강 깊은 물속에서 사는 맹어라면 치수는 개울가의 올챙이에 불과했다.

강변에서 수호와 치수가 노는 모양을 바라볼 때마다 도태부의 뺨은 사납게 꿈틀거리곤 했다.

(이놈, 조금만 더 커봐라. 이제 치수가 중학교에 가고 그리고 대학에까지 갔다오면 네녀석따윈 종신 머슴으로 부려먹을게다.)

머칠후 외양간에서 소여물을 썰던 수호는 강변쪽에서 사람이 빠졌다고 아우성치는 소리에 놀라 허둥지둥 비룡강쪽으로 달려갔다.

강변에는 올감자알같은 조무래기 몇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야단법석이었다.

물에 빠진 아이는 치수였다. 항상 봐야 머슴놈보다 못하다는 아버지의 핀잔에 뺨이 난 치수는 개헤엄이나 겨우 치는 주제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 모양이 되었던것이다.

수호는 잠뎁이를 벗을새도 없이 강물에 뛰어 들었다. 치수는 허우적거리며 룡소쪽으로 떠내려가고있었다. 물에 빠진 치수와 룡소와의 거리는 불과 서너발 안팎이었다. 수호는 나는듯이 헤엄쳐가 떠내려가는 치수의 머리끄덩이를 잡았다. 그리고는 두발로 힘껏 물을 차며 강변으로 헤엄쳐나왔다.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치수의 배는 올챙이배 한 가지였다. 수호는 능숙한 솜씨로 치수의 무릎을 세우고 힘껏 배를 눌렀다. 그러자 치수의 입에서 분수처럼 물이 쏟아져나왔다.

뒤늦게야 아들놈이 물에 빠졌다는것을 안 도태부가 허둥지둥 강변으로 달려왔다.

《엄, 치수야!》

도태부는 축 늘어진 아들놈을 흔들었다.

치수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다.

도태부는 아들이 살아나자 안도의 숨을 내쉬며 한옆에 서있는 수호를 향해 도끼눈을 번뜩이며 고아뻘었다.

《야 이놈, 일은 안하고 물에 들어가 미역을

감아. 네놈때문에 우리 치수가 죽을번 했다. 꽤 씹한 놈.》

그리고는 개화장으로 수호를 마구 내리쳤다.

《물에 빠진 치수를 내가 건져주었어요.》

《뗏이, 아직도 말대꾸질이냐?》

도태부는 또다시 사정없이 매질을 퍼부어댔다.

수호는 너무도 억울하여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한참 기승을 부리던 도태부는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하자 공서방을 불러 치수를 업혀 집으로 보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듯 거드름을 피우며 자기도 그뒀을 따라갔다.

수호는 강가에 홀로 서서 룡소를 바라보며 일찌기 저세상으로 간 아버지, 어머니를 그리며 슬게 슬게 울었다. …

이듬해 봄 치수는 읍거리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치수가 처음으로 중학교로 가게 된 전날 저녁 도태부는 수호를 마당가에 불러세워놓고 말했다.

《래일부터 네놈은 우리 치수를 업고 비룡강을 건너어 학교로 보내야겠다. 그리고 네놈이 명심할게 있다. 넌 우리 집 머슴이다. 네놈은 비룡강의 버들치나 쫓개새끼에 불과하다는것을 알아야겠다.

하긴 그런 의미에서 이름도 이제부터 수호가 아니라 수어라고 부르는게 좋겠군. 고기 어자를 써서 말이다.》

수호는 그 이튿날부터 치수를 업고 아침저녁으로 비룡강을 건너다녀야만 했다. 룡소가 있는 아래물목으로는 건널수 없으니 멀리 상류물목쪽으로 돌아 건너야 했다. 그쪽으로는 바지가괘이를 높이 걸어올리면 건널수 있었다. 하지만 치수는 학교가기를 도살장에 끌려가는 황소처럼 싫어했다.

어느날 치수는 수호에게 학교에 가지 말고 비룡강에서 고기잡이를 하자고 졸라댔다. 그러다 들키면 어쩔려고 그러느냐고 도리머리를 짓는 수호에게 절대로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게 하겠다고 장담했다. 치수를 업고 강을 건느기가 죽기보다 싫었던 참이라 수호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신이 난 치수는 제 먼저 산에 올라갔다. 그리고는 수호가 시키는대로 가래나무껍질을 벗겨다 강변 차돌에 짓쪼아 즙이 우러나게 한 다음 그것을 물속 바위돌들밑에 쓸어넣었다. 시퍼런 즙액이 물속으로 흘러퍼지자 그 독에 취한 모래무치와 버들치들이 흰 배때기를 드러내고 물위로 둥둥 떠올랐다.

《치수, 저기 버들치가 또 뜬다. 어서 건져라.》

치수는 《영.》하고 소리치며 버들치를 향해 다가갔으나 어찌된 일인지 치수의 손이 닿기 전에 버들치는 물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야 치수, 넌 언제 봐야 돌탕맞은 꺾지새끼처럼 어질어질해.》

수호는 어정쩡해 서있는 치수에게 손가락질을 해댔다. 그것은 도태부에 대한 반항이기도 했다. 이 광경을 도태부가 바위뒤에서 불뚱이 튀는 눈으로 바라보고있음을 두 아이는 알지 못했다. 며칠째 치수가 학교에 잘 나오지 않는다는 왜놈교원의 선동을 받고 애들의 뒤를 밟고있던 도태부였다.

《이놈들! 어서 물에서 나오지 못할가?》

도태부는 먹쩔린 돼지처럼 숨을 쉼씩 몰아쉬며 수호와 치수를 강변 모래불에 불러세웠다.

도태부는 물방울이 흘러떨어지는 수호의 장판지를 개화장으로 세관게 내리쳤다.

《아이쿠!》

《이놈, 어디 내 손에 죽어봐라. 도련님 알기를 우습게 아는 이놈, 뭐 돌탕맞은 꺾지라구? 어디 죽어봐라!》

도태부는 사정없이 개화장을 휘둘러댔다.

수호의 장판지에서는 피방울들이 툭툭 튀어나왔다. 그래도 도태부는 계속 개화장을 휘둘렀다. 수호는 끝내 모래불에 쓰러지고말았다.

《이 쫓개보다 못한 놈, 제 주체에 누굴 놀려대!》

도태부는 쓰러진 수호의 잔등을 밟고 계속 씨벌여댔다.

《이놈, 네놈이 쫓개라면 우리 치수는 룡이다, 룡!》

수호는 도태부의 발에 밟혀 지렁이처럼 꿈틀거렸다. 한참이나 수호에게 성폭이를 하고난 도태부는 한옆에 서서 부들부들 떨고있는 아들놈에게 돌아서며 귀쌈을 후려갈겼다.

《이 시라소니같은 놈, 그래 학교는 안 가고 머슴놈과 고기잡이를 해. 저 머슴놈이 쫓개보다 못한 놈이라고 몇번이나 말해주었니? 그런 놈에게서 놀림을 당해… 보기 싫다. 내앞에서 썩 사라져라.》

치수는 두볼을 싸쥐고 엉엉 울면서 뺨소니를 쳤다.

그날부터 수호는 며칠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공서방이 다름나무진을 수호의 상처에 발라주었다.

《이다음부턴 치수와 놀지 말아라. 이제 또 무슨 화를 당할지 알겠냐?》

공서방은 다심한 어조로 타일렀다.

수호는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치수를 업고 강을 건너야 했다. 그때부터 치수는 제법 주인행세를 하며 수호를 제집 하늘소처럼 부리려 했다.

강을 건널 때마다 수호는 우둘쩍거리는 치수를 비룡강물속에 처박고싶었다. 그러나 참아야만 하였다. 참는것이 머슴의 신세라는것을 수호는 숙명

처럼 감수하고있었던것이다. ...

3

수호는 갓은 천대와 멸시속에서 철이 들었고 어느덧 헌헌장부로 자랐다. 해별에 타고 비룡강물에 씻기여 구리빛살가죽은 소가죽처럼 두터워졌고 팔뚝이며 장딴지며 어깨박죽의 근육이 불끈불끈 사납게 꿈틀거렸다.

어느해 봄 도태부는 읍거리 제사공장 주인에게 약밤 두가마니를 주고 처녀꼴이 잡힌 녀종을 끌어왔다. 도태부는 녀종에게 부모들이 지어준 봉임이라는 이름이 있었으나 부디 부엌녀라고 불렀다. 부엌녀의 신세도 공서방과 수호의 처지와 다를바 없었다. 하기가 부엌녀의 몸금새가 약밤 두가마니였으니 그의 인생사가 얼마나 고달팠는지 더 말해 무엇하랴. ...

하지만 성숙되어가는 처녀의 향기는 숨길수 없는 것이어서 부엌녀는 날씬한 키에 어울리게 이목구비가 단정했고 봉긋한 앞가슴은 나날이 부풀어올랐다.

어느날 도태부는 강변 모래터에서 천렵놀이를 본때나게 벌려놓았다. 여기에 군수는 물론이요 왜놈경찰서장 그리고 읍거리의 한다하는 유지들도 참가했으니 그 판이 요란했다.

한켠에서는 군시골 포수가 잡은 살찐 노루가 불에 그슬려졌고 또 한쪽에서는 큰 가마를 걸고 수호가 금방 작살로 찍어낸 쏘가리로 어죽을 찌느라 분주함을 피웠다. 박숙같이 흰 명주천으로 차일을 둘러친 술좌석에서는 권커니 작커니 술잔 찼는 소리가 연방 들려왔다. 도태부의 녀편네는 진한 화장내를 풍기며 군수놈의 옆에 찰싹 붙어 갓은 아양을 다 떨었다. 부엌녀도 오늘날은 누데기웃대신 도태부가 던져준 양단치마저고리를 입고 술심부름을 들었다.

도태부가 천렵놀이를 이렇듯 크게 벌려놓은데는 두가지 목적이 있었다. 하나는 래일이면 서울로 대학공부를 떠나는 아들 치수를 읍거리 세력가들 앞에서 자랑을 하자는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번 기회에 군수놈을 잘 구슬려 마목령의 산림을 독차지하자는것이였다.

천렵놀이에서 인기있는 음식은 쏘가리로 쏘아 죽이였다. 쏘가리는 등에 검은 얼룩점이 많고 눈이 크며 지느러미에 가시가 돌아있는 성질이 사나운 맹어이다. 쏘가리어죽은 노르끼레한 기름이 동동 뜨는게 그 냄새만 맡아도 창자가 뒤집히는 비룡강 특산음식이다.

수호는 물오리신세가 되어 열마리도 넘는 팔뚝

시만 한 쏘가리를 련속 작살로 찍어냈다. 그러느라고 수호는 맥이 빠질대로 다 빠지였으나 누구하나 쉬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어둑컴컴한 바위밑에 납작 붙어 숨어있는 류달리 큰 쏘가리 한놈을 찍어 올리고난 수호는 맥이 빠져 더는 물속에 들어갈수 없어 강변 모래불우에 쓰러져버렸다.

(이제 얼마나 더 찍어내야 함지같은 저놈들의 배를 채울수 있을까?...)

이때 술판중심에 틀지게 앉아 거들먹거리던 군수놈이 웬일인지 목을 싸쥐고 꺾꺾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발을 탕탕 굴러댔다. 쏘가리어죽을 게걸스럽게 쳐먹던 돼지같은 군수놈의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것이 분명했다. 이렇게 되자 놀음판은 삼시에 수라장이 되어버렸다.

《잘 됐지, 메돼지같은 놈.》

모래불에 작살을 세워짚고 일어나앉은 수호는 깨고소한 심정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군수놈은 당장 숨이 넘어갈것처럼 목을 싸쥐고 아부재기를 쳤다. 쏘가리가시는 굳어서 일단 잔가시라도 박히면 그걸 뽑기란 조련치 않았다. 군수놈보다 더 안달아나 들구똥것은 도태부였다.

읍에서 의원이 달려오고 이놈저놈 모아붙어 서너시간 종이 신고를 한 끝에 가시를 뽑아내고 겨우 침이라도 삼킬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나니 천렵놀이는 개판이 되고말았다. 도태부는 그 행불이를 애꿎은 수호와 공서방에게 해대며 마구 개화장을 휘둘러댔다. 천렵놀이가 개판이 된것도 분했지만 그보다도 자기가 애초에 목적했던바가 마른 바가지 부서지듯 깨진것이 더 부아통을 둔구었던것이다.

그 이튿날 도태부는 사각모자를 쓰고 서울로 떠나는 치수를 배래웠다.

《치수야, 이 애비는 너를 위해 많은 돈을 써버렸다. 그러니 부디 공부를 잘해 꼭 법관이 되어 돌아와야 한다. 내 말뜻을 알겠지?》

수호가 지게에 짐을 지고 치수를 따라 역으로 나갔다. 치수는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며 수호에게 말했다.

《여 수어, 내가 대학공부를 마치고 한자리 따가지고 오면 자네도 호강하게 될테니 그때까지 날 기다리라구.》

치수는 베적삼을 입은 수호의 어깨를 거만하게 툭 쳤다. 수호는 쓰다달다 아무말없이 멀리 비룡강쪽을 추연히 바라보았다.

《뭘 봐?》

치수는 또다시 수호의 어깨를 툭 쳤다.

수호는 뱀에게 휘감긴듯 몸을 흠칫 떨며 치수에게로 돌아섰다.

《날 수어라고 부르지 말어. 내 이름은 안수호야.》

수호는 치수를 무섭게 쏘아보며 마디마디 땀째게 말했다.

《...》

치수는 더 말을 내뱉지 못했다. 무거운 침묵이 두사람사이를 오갔다.

수호는 책 돌아서서 비룡강쪽으로 씨엉씨엉 발걸음을 옮겼다.

《흥, 속은 살아서... 머슴인 주제에...》

치수는 독기어린 눈길로 멀어져가는 수호의 뒤모습을 쏘아보았다. ...

수호와 공서방 그리고 부엌녀의 생활은 예전처럼 옥설과 매질속에 흘러갔다. 얼음지고 서리낀 생활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붓한 한가정처럼 따스한 인정이 차고넘쳤으니 부엌녀가 수호를 오빠라고 정답게 부른것은 어느 가을날이었다.

그해 가을은 여느해보다 밤이 많이 달렸다.

부엌녀는 이른새벽부터 산으로 올랐다.

가까스로 밤나무에 올라 긴 장대로 밤을 툰 부엌녀는 이슬머리 반들거리는 알밤을 몇바구니 잘 되게 주운 후 아가리가 짝 벌어진 소담한 밤송이들을 무독히 모아놓았다.

그 밤송이들을 종일이다싶이 짚신발로 밟아야 할 생각을 하니 소름이 끼쳐졌다. 다 해진 짚신바닥에 밤송이가시가 박힐 때마다 그 아픔은 참으로 참기 힘든것이었다. 그래도 참고 밤송이를 밟아야 했다.

도래부는 산에 오르는 부엌녀에게 알밤 두가마니를 하지 못하면 내려올 생각을 말라고 불호령을 내렸던것이다.

부엌녀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밤송이를 고루 퍼놓고 짚신발로 비벼대기 시작하였다. 누렇게 익어 아가리가 짝 벌어진 밤송이를 비벼대면 진밤색의 밤알이 쌍둥이 아니면 세알쌍둥이로 툭툭 튀어나오는게 발바닥은 아파도 눈맛은 볼만했다. 그런데 오늘따라 이상하게도 밤송이가시가 발바닥을 찌르는감이 없었다.

부엌녀는 짚신을 벗어 바닥을 살펴보았다.

순간 부엌녀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다 해진 짚신바닥에 누군가 노루가죽을 덧붙여놓았던것이다. 부엌녀의 가슴은 몽클해졌다. 그 소행의 주인공이 바로 수호라는것을 쉽게 알수 있었던것이다.

《오빠, 고마와요!》

부엌녀는 짚신을 가슴에 꼭 대고 건너편 산비탈 담배밭에서 담배잎을 따고있는 수호를 바라보며 뜨겁게 속삭였다.

그날 저녁 부엌녀는 개울가에서 지게다리가 휘도록 담배잎을 지고오는 수호를 만났다. 부엌녀는 들고오던 바구니를 내려놓고 그속에서 잘 익은 알밤 한줌을 꺼내 수호의 손에 쥐여주었다.

《고마와요, 오빠!》

부엌녀는 얼굴에 발기우리 홍조를 띄우고 달음박질쳐갔다. 수호는 그 자리에 굳어져서 뛰여가는 부엌녀의 뒤모습을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수호의 귀가에는 자기를 오빠라고 정답게 부르던 부엌녀의 맑은 목소리가 그냥 공명되어 들려왔다. 웬일인지 가슴은 놀란 토끼를 안은듯 후둑후둑 뛰고 해별에 탄 구리빛얼굴은 수수떡처럼 벌겋게 달아올랐다. 난생처음 수호는 사람다운 부름을 들어보았던것이었다. ...

4

밤수확이 끝나자 도래부는 그새 모은 물산들을 배에 실어 대동강하류로 떠내려보냈다.

배물이군으로는 수호가 선정되었다. 공서방과 부엌녀가 룡바위우에서 떠나가는 수호를 배려주었다.

공서방은 쑥 꺼져들어간 눈화에 그들먹이 눈물을 머금고 길떠나는 아들을 배려우듯 오래도록 룡바위우에 서있었다. 공서방의 배려움이 수호와와의 마지막리별로 될줄은 누구도 몰랐다. ...

수호를 떠나보낸 날 공서방은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오는 치수를 마중하러 역으로 나갔었다.

허탕치고 돌아와 머슴방에 쓰러진 공서방의 몸은 불덩어리처럼 뜨거웠다. 한달전부터 공서방은 대장염에 걸렸는지 설사를 몹시 했었다. 그 상태에서 굶은일, 마른일 가리지 않고 하자니 성한 몸인들 건디랴. 아마 대장염에 열병이 겹친것 같았다. 공서방뿐아니라 마을사람들속에서도 이 비슷한 병을 앓는 사람들이 더러 나타나고있었다. 공서방이 앓아누운지 사흘도 넘어서야 머슴방 문턱에 서서 환자의 상태를 들여다본 도래부는 몇년전에 개에게 물린 자리를 개화장으로 가리켜보이며 무작정 이렇게 말했다.

《요새 마을에서 돌아가는 열병인가 했더니 내 생각엔 그게 아닌것 같아. 언젠가 개한테 물린 자리가 독을 쓰는데 분명하단 말이야. 거... 뭐라더라... 미친개병, 미친개병이란게 개한테 물려 몇년만에 독을 쓴다는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리고는 무슨 지랄을 부릴지 알수 없으니 허청간에 처넣고 함부로 나다니지 못하게 문간수를 단단히 하라고 머슴들에게 불호령을 내렸다. 그러자 한사람이 고개를 기웃거리며 말했다.

《증세를 봐선 꼭 열병에 걸린것 같은데...》
도태부는 《열병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수 있으니 열병이든 미친개병이든 여러말 말고 어서 허청간에 쓸어넣지 못할가!》라고 으르렁거리며 개화장을 땅바닥에 쿵쿵 내리쳤다.

부엌녀의 가슴은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이런 때 수호오빠라도 있었으면... 멀리로 떠나간 수호오빠가 못 견디게 그리워졌다.

하늘중천에 쪼각달이 애처롭게 걸려있는 야밤, 부엌녀는 품에 밥덩어리를 감추고 허청간안으로 들어갔다. 부엌녀의 머리칼은 무서움으로 곤두섰고 한결음, 두결음 내짚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으로 무거웠다. 그러나 수십년세월 하루와 같이 근면하게 일해준 공서방을 이런 지경으로 만든 도태부에 대한 원한의 감정이, 아버지처럼 각근한 인정을 준 공서방에 대한 정이 부엌녀를 용감하게 만들었던것이다.

찌그덕-

부엌녀는 조심히 창고문을 열었다.

창고안은 한치앞도 분간키 어렵게 어둠으로 짙어져있었다. 구석쪽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려올뿐이었다. 부엌녀는 손더듬으로 한쪽 구석에 누워있는 공서방에게로 다가갔다.

《아저씨, 나예요. 부엌녀예요.》

부엌녀는 애라게 공서방을 부르며 터갈라진 그의 입술을 벌리고 찬밥덩이를 넣어주었다. 공서방은 평소에 그렇게 먹고싶어하던 쌀밥이었지만 한술도 삼키지 못했다.

《아저씨, 정신차리세요.》

부엌녀는 눈물을 쏟으며 마지막숨을 몰아쉬고있는 공서방의 몸을 흔들고 또 흔들었다. 아, 세상이 이렇게도 모질단 말인가. ... 공서방도 사람인데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불쌍히 죽어야 한단 말인가. 부엌녀는 짜늘하게 식어가는 공서방의 시체를 부여안고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다.

이튿날 아침 도태부는 공서방의 시체를 가마니에 싸서 군시골 밤나무숲속에 가져다 묻게 했다.

부엌녀는 며칠밤을 뜯눈으로 새우며 수호를 기다렸다.

수호가 돌아온 날 부엌녀는 수호의 품에 얼굴을 묻고 공서방의 죽음에 대해 말했다.

수호는 부엌녀와 함께 군시골로 달려갔다.

《아저씨, 수호가 왔어요. 어서 일어나세요. 흑흑...》

수호는 잔디도 입히지 않고 대충 흙을 덮어 만든 봉분앞에 엎드려 통곡했다.

수호는 주먹에 피가 지도록 땅을 쳤다. 한동안

설분을 러친 수호는 봉분도 더 크게 만들고 잔디도 입혀주었다.

산을 내린 그들이 도태부네 집 대문안에 들어섰을 때 사각모자를 빼돌서하니 쓰고 입에 권연을 피워문 치수가 거들먹거리며 다가왔다.

《자네 이번 배길장사때 숨씨를 보였더군. 아버지도 자넬 크게 생각하겠더군.》

수호는 입이 쓰거운듯 머리를 돌렸고 부엌녀는 행랑채쪽으로 총총히 가버렸다.

《오, 공서방일때문에... 참 안됐더구만. 어찌했나, 팔자가 그런걸...》

수호는 치수와 더 마주 서있기가 역겨워 인차 자리를 피하고말았다.

그 이튿날 수호는 좋은 나무를 골라 정히 다듬어가지고 서당훈장을 하던 로인을 찾아갔다. 이름도 없이 죽은 공서방의 묘에 비라도 세워주고싶었다.

찾아온 사연을 들은 로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공서방 말인가. 고생고생하며 살다 불쌍하게 죽었지. 헌데 이름이 뭔가? 공서방이 이름은 아닐테고...》

로인은 두눈을 깜박이며 수호를 바라보았다.

《참 그렇군요. 그런데 나도 공서방이라는것 밖에 모르는데...》

《그러니 이름을 어떻게 써넣겠나?》

또다시 눈을 깜박이며 한동안 무엇인가를 생각하던 로인은 느닷없이 공서방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자네말고 또 누가 있는가고 물었다.

수호는 부엌녀라는 처녀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로인은 다시금 그 부엌녀의 이름이 무엇인가고 물었다. 봉임이라는 대답을 들은 로인은 얼굴에 웃음을 띄우며 수호의 무릎을 쳤다.

《그럼 이렇게 하세. 평생 이름도 없이 살다가 저승에 간 공서방이 죽어서라도 이름을 가질수 있도록 우리가 이름을 지어줍세. 그래서 자네 이름과 부엌녀의 이름자 가운데서 한글자씩 따서 공수봉이라고 짓잔 말일세, 공수봉!》

《공수봉! 이름이 정말 좋군요.》

《그럼 그렇게 하자구. 내 성의껏 잘 써주지.》

다음날 수호와 부엌녀는 《공수봉》이라는 이름을 쓴 비를 공서방의 봉분가에 세워주었다.

공서방은 죽어 혼이 되어서야 공수봉이라는 이름 석자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수호와 함께 동행한 부엌녀의 낮빛에는 영문모를 시름이 비껴있었다. 수호가 몇번이고 이유를 물었어도 부엌녀는 아무 대답도 안했다.

수호가 훈장로인네 집으로 갔던 그날 치수가 부엌녀에게 달려들었었다는 사실, 아무에게나 함부로 터놓지 못할 그 사연때문이라는것을 수호는 그로부터 얼마후에야 알게 되었다.

원래 도치수는 애비처럼 녀자라면 오금을 못쓰는 호색한이었다. 게다가 서울에서 대학공부를 하고 온 뒤에는 이 촌구석 집에만 들어박혀 술이나 마시면서 빈둥빈둥 놀고있었다. 그런 그의 눈에 비록 누데기옷을 걸치였을망정 처녀의 향기가 싱싱히 풍겨나는 부엌녀가 걸려들지 않을수 없었던 것이다.

치수는 틈만 생기면 부엌녀가 일하는 곳에 나타나 지부렁거리곤 했다. 그때마다 부엌녀는 랭정한 자세로 조금도 곁을 주지 않았다.

그럴수록 치수는 녀종인 부엌녀의 몸을 지렁이 뱀듯 밟고 서서 화산처럼 뿜어나오는 욕구를 터쳐 주인의 요구에는 순종밖에 몰라야 한다는 《섭리》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싶었다.

도치수는 눈에 불을 켜달고 기회를 노리곤 했다.

며칠후 마침 수호는 군시골 숯구이령감에게 숯을 지러 가고 행랑채에는 부엌녀만이 남아있었다. 독수리 병아리 노리듯 두릿거리던 치수는 누구도 모르게 행랑채로 뛰어들었다.

도치수는 피를 본 흙혈귀마냥 부엌녀에게 덤벼들며 지껄었다.

《이년, 오늘은 내 손에서 못 빠진다.》

부엌녀는 도치수를 피해 벽 한쪽 모서리에 붙어섰다. 치수는 무작정 부엌녀의 저고리고름을 잡아챘다. 삭을대로 삭은 부엌녀의 저고리는 갈가리 찢어졌다. 부엌녀는 자기 몸을 휘감는 도치수의 팔을 세관게 물어뜯었다.

《악—》

도치수는 단말마적인 비명을 지르며 팔을 찢고 물러섰다. 부엌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문을 걸어차며 밖으로 내뛰었다.

《이년, 뛰어야 벼룩이다.》

도치수는 한손으로 반나마 흘러내린 바지피춤을 추어올리며 부엌녀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사람 살려요!》

부엌녀는 도치수에게 쫓기여 방향없이 내뛰었다.

도치수는 이미 분별을 잃은 뒤라 입에 게거품을 물고 따라왔다. 풀어진 머리채를 흘날리며 내닫던 부엌녀는 주춤 발걸음을 멈추었다.

아찔한 벼랑턱인 룡바위우였다. 벼랑아래서는 범의 아가리인듯 룡소가 무섭게 회오리치고있었

다. 뒤에서는 도치수가 죽을내기로 따라왔다.

이제 한결음만 내짚으면 아아한 허공에서 날아 떨어져 룡소에 빠지게 된다. 부엌녀는 운명의 순간임을 의식했다. 그러자 마음은 한결 평온해졌다.

부엌녀는 군시골쪽을 향해 마음속으로 절절히 속삭였다.

《오빠, 난 먼저 가요. 죽어서도 오빠를 잊지 않겠어요.》

그 순간 산자드락 길에서 숯짐을 내던지고 달려오는 수호의 모습이 보였다.

《봉임이, 죽어선 안되오.》

부엌녀는 수호가 웨치는 구원의 부름소리도 듣지 못하고 룡소에 몸을 던졌다. 뒤미처 달려온 수호도 룡소로 내리쫓혔다. 룡소는 기다렸던듯이 수호와 부엌녀를 미궁속으로 끌어갔다.

수호는 스무해동안 비룡강물에서 키워온 힘과 용기로 룡소와 맞섰다. 룡소는 수호가 정신을 차릴수 없게 온몸을 소용돌이속에 휘감고 돌아갔다. 하지만 아무리 사나운 룡소도 수호의 억센 의지를 당해낼수 없었다. 몇번의 실패끝에 수호는 소용돌이 중심으로 빨려들어가고있는 부엌녀의 머리채를 잡아쥐었다.

이때 수호는 맥이 진해가는 자기 눈앞으로 룡소에 빠져 죽은 어머니의 얼굴이 우렁이 다가움을 느꼈다. 수호가 어머니를 소리쳐부르며 얼싸안으려는 순간 자기와 부엌녀의 온몸을 물면우로 떠미는 그 어떤 미지의 힘이 가해짐을 감득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의 힘이였다. 그 힘에 떠받들려 수호는 두발을 억세게 뻗치며 지옥의 문을 박차고 물면우로 솟구쳐올랐다.

수호는 사지를 늘어뜨린 부엌녀를 안고 비척비척 강기슭으로 나와 그길로 도태부네 집으로 향했다. 그가 대문을 걷어차고 마당에 들어섰을 때 도태부네 집안은 온통 초상난 집처럼 뒤숭숭했다.

행랑채에 부엌녀를 눕혀놓고난 수호는 천천히 대청마루로 다가갔다.

불길이 황황 타오르는 두눈, 틀어진 주먹안에서 부들부들 떨고있는 서슬푸른 작살... 도태부는 수호의 기상에 놀리워 비실비실 뒤로 물러앉았다.

수호는 도태부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안방문을 걸어차고 들어갔다. 그리고는 방안 한구석에 구겨박혀있는 도치수놈의 먹살을 틀어쥐었다. 그제서야 도태부는 대청마루바닥을 구르며 소리쳤다.

《이놈, 이게 무슨 상스러운짓이냐? 썩 그만 두지 못할가.》

그러거나말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수호는 먹살을

잡혀 버둥거리는 치수를 방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그리고는 작살을 쏘아들고 치수의 가슴팍을 향해 힘껏 찔렀다.

《악!》

치수는 자기 가슴팍으로 날아오는 작살을 피해 단말마적인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틀었다. 순간 작살은 치수의 한쪽팔을 꿰질렀다. 비명을 지르며 한손으로 작살자루를 움켜쥐고 놓지 않는 치수에게 무자비한 발길질이 퍼부어졌다.

도태부의 녀편네가 수호의 두손을 부여잡고 애걸했다.

《이사람, 제발 용서하라구. 자네와 부엌녀가 그런 사이인줄은 정말 몰랐네.》

한동안 도태부의 녀편네를 노려보던 수호는 그놈들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다. …

그날 저녁 왜놈경찰들이 수호를 경찰서로 끌어갔다. 놈들은 수호에게 살인미수라는 죄명을 들쭉워 5년간의 징역형을 언도했다.

수호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것은 그로부터 3년 좀 넘었던 1945년 9월말이었다.

5

해방된 이듬해 봄, 산과 들에 봄빛이 한껏 무르익어가는 그 봄날에야 감옥독을 풀고 자리에서 일어난 수호는 지팽이를 짚고 비룡강가로 나왔다. 파사로운 봄별에 취해 강변 모래불을 거니노라니 감옥에서 돌아온 자기를 회복시키느라 온갖 지성을 기울여준 봉임을 비롯한 마을사람들에 대한 생각에 눈굽이 뜨거워올랐다. 아직도 감옥에서 왜놈들에게 맞아 상한 왼쪽다리는 절지만 그썸한것이 무슨 대수랴, 그리웠던 고향산천에 다시 안겼고 사랑하는 봉임이가 곁에 있는데야…

얼마전에 그들은 마을사람들의 축복속에 결혼식을 하였다.

그사이 토지개혁이 진행되어 수호와 봉임의 이름으로 많은 논과 밭이 무상으로 분여되었다. 그리고 토지개혁바람에 남으로 야밤도주한 도태부네 사랑채에 새살림의 보금자리를 옮겼다. 이사하던 날 농촌위원회위원장이 《안수호》라고 쓴 문패를 대문가에 달아주며 하던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했다.

《어제날의 머슴에게 땅을 주고 기와집에서 살게 해주는 세상,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이게 바로 김일성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세상이란 말일세. 우리가 주인인 우리 세상! 하하...》

가슴 흐뭇하게 하는 그 모든 생각을 더듬던 수

호의 귀가에 문득 인적기가 들려왔다.

《아, 누군가 했더니 수호 자네였구만. 마침 자넬 찾아가던 참이었는데...》

농촌위원회위원장이 군복차림의 낮모를 사람과 같이 수호에게로 다가오고있었다. 두사람이 다 옷쪽 얇은 물목을 건너왔는지 신발은 벗어 손에 든채였고 얼마간 젖은 바지가랭이는 걸어올린 차림새였다.

《수호동무, 인사하오. 우리 군에 파견된 파견원동지네. 아, 김일성장군님을 직접 모시고 싸우던 항일투사동지란 말이야. 우리 마을 형편을 알아보러 나오셨어.》

수호는 지팽이를 짚은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이러지 마십시오. 인사야 뭘... 우리야 초면도 아닌데... 날 모르겠습니까? 저 수토재마을에 살던 최학송이라고 기억이 안나십니까?》

한동안 파견원을 자세히 바라보던 수호가 두눈을 홑뜨며 웨치듯 말했다.

《아니, 이거 학송형이... 학송형이 옳군요. 이게 얼마만인가요?! 읍거리 안경쟁이순사놈에게 잡혀 〈징용〉에 끌려가던게 엇그제같은데...》

《여보게, 그때 〈징용〉에 끌려가다가 동북땅으로 도망쳐가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항일빨찌산에 들어갔던걸세.》

위원장이 마치 자기 일이라도 말하듯 성수가 나서 설명했다.

《이제 오면서 얘기를 들으니 수호동무 도가네 집 머슴살이를 하다가 감옥에까지 갔었다는데... 참 고생을 많이 했겠습시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습시다. 다시는 눈물 많고 설움 많던 그 시절이 되돌아오지 않을것입니다. 그러자면 수호동무같이 가장 비참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앞장에 서고 주인이 돼서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야 합니다.》

최학송은 수호의 두손을 짹 잡아주며 힘주어 말했다.

《수호, 이 사람. 할일이 많다네. 빨리 몸을 추세워가지고 한몫 해제껴야지. 예참, 이놈의 강물을 에돌아 건너다니자니 어디 시끄러워서...》

위원장이 사람좋은 웃음을 띄우며 모래불에 주저앉아 손에 들었던 신발을 신으며 하는 말이였다.

《저 룡소때문에 할수 있나요?》

수호가 지팽이로 룡소쪽을 가리켜보이며 한탄조로 중얼거렸다.

《참, 언제부터 생각해오던건데 이 비룡강에 다리를 놓는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멀리 에돌아다니

지 않아도 될텐데...》

최학송이 허리를 굽혀 걷어올렸던 바지가랭이를 내리우며 누구에게라없이 말했다.

《해방전에도 그런 론의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도태부눔이 펄쩍 뛰는통에... 그러면 뭐 룡신이 노한다나요. 해마다 거의 한둘씩은 저 룡소에 빠져 죽군 하지요. 도태부눔 말이 저 룡소밑에 사는 룡신에게 그런 식으로 제사를 지내야 무사하다는거지요.》

《그건 다 우리 농민들을 업어넘기려고 하는 수작입니다. 물속에 룡신이 있는지 없는지야 누구보다 저 룡소물속에 수백번도 더 들어가본 수호동무가 제일 잘 알겁니다. 그래 물속에서 룡신이란걸 본적이 있습니까?》

수호는 한동안 덤덤히 있다가 대답했다.

《아니, 본 일이 없수다. 그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 그런가부다 했지요.》

《그것 보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잘했다가 모내기나 끝나고 날이 따뜻해지면 번듯하게 다리를 놓아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니기에두 편리하구 불상사도 생기지 않을겁니다.

다리놓는 일에선 아무래도 비룡강물에 익은 수호동무가 많은 수고를 해주어야겠소. 그런데 아직 몸상태가 좋지 않으니...》

최학송이 걱정어린 눈길로 수호를 바라보며 말끝을 흐렸다. 수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걱정마시우다. 나두 저 룡소때문에 어머니를 잃었수다. 다른건 몰라도 물속에서는 자신이 있으니... 내 숨이 지는 한이 있어도 꼭 해내지요.》

결연한 빛이 느껴지는 수호의 눈가에 눈물이 그렇게졌다.

《고맙습니다, 수호동무!》

《고맙네, 이 사람.》

두사람의 손이 지팽이를 쥔 수호의 손을 뜨겁게 잡았다. ...

드디어 다리를 놓는 날이 왔다.

바줄을 허리에 둘러감은 수호가 기초기동을 세우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갔다. 최학송과 봉임이, 많은 마을사람들이 긴장한 눈길로 물면을 지켜보았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시간이 흘러갔다.

1분, 2분... 5분... 10분...

《이거 무슨 일이 난게 아니요?》

《바줄을 당겨야 되지 않겠소?》

사람들속에서 걱정어린 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좀더 기다려봅시다.》

최학송이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잠시후 물속에서 꾸룩꾸룩 공기방울이 솟아오르더니 수호가 물면위로 솟구쳐올랐다.

《푸-》

수호의 입에서 분수마냥 물이 뿜어져나왔다. 잠시 숨을 돌린 수호는 또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히야, 수호가 물귀신은 물귀신이요!》

《저 사람 숨통이 크긴 크군!》

여기저기서 경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다시 물위에 솟구쳐오른 수호는 깃을 터는 물오리마냥 머리를 털고는 또다시 물속으로 사라졌다. 그러기를 몇십번...

드디어 기둥귀들이 물위에 솟아올랐다. 사람들은 세찬 물살에 떠밀려내려가지 않게 거기에 돌들을 처넣었다.

10여일만에 비룡강물위에 다리가 일떠섰다.

그 다리로 나라에서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사랑과 행복이 들어오고 농민들이 고마운 나라에 바치는 지성의 애국미가 나갈 때마다 수호는 흐뭇한 웃음을 짓군 하였다.

꿈같은 5년간의 세월은 류수같이 흘러갔다.

1950년 6월 미제가 일으킨 전쟁의 불구름은 행복만이 차고넘치던 송천땅에도 밀려왔다.

송천땅의 행복의 주인공들은 고향과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지키려 떨쳐나섰다. 룡소마을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나갔다. 누구보다 먼저 인민군대에 탄원했던 수호는 다리때문에 입대가 승인되지 않아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해 가을,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자 수호와 봉임은 군 인민유격대에 입대하여 마목령으로 들어갔다.

미군쫓차를 탄 도치수눔이 괴뢰군 중대장이 되어 애비 도태부와 함께 룡소마을에 기여들었다. 도치수눔은 제놈이 살던 사랑채에 중대부를 정하고 마을의 당원들과 모범농민들을 학살하는데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얼마 안있어 인민군대의 재진격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마목령유격대에서는 인민군대의 재진격에 합세하여 송천읍을 해방하는 전투를 벌이기로 하였다.

읍해방전투를 이틀 앞두고 마을로 정찰을 내려왔던 수호는 원통하게도 놈들에게 체포되었다.

수호는 피투성이가 되어 도치수눔에게 끌려갔다.

《여, 수어. 이렇게 만나다니... 참 유감인걸.》

《이놈아, 내 이름은 안수호이다!》

《아니야, 네놈은 수어야, 수어. 내가 그 이름을 지어줬지. 하하... 그새 우리 집에서 깨가 쏟아

지게 잘 살았겠지. 이젠 그 값을 치러야 하지 않을까?》

도태부늬가 담배대를 걸탐스레 빨면서 지껄어댔다. 수호가 아무 대답도 없이 외면해버리자 도치수늬가 늘어진 두볼을 푸들푸들 떨며 뇌까렸다.

《그래도 난 옛주인답게 널 각근히 대하려 했는데 말버릇이 고약한걸… 그래 수어면 어떻게 수호면 어떻게. 암만 그래야 이젠 칼도마우에 놓인 쫄개신세인데… 듣자하니 네늬가 저 다리를 놓을 때 물재간을 멋있게 피웠다면, 좋아. 오늘 또 그 재간을 발휘해보라구.》

도치수늬는 먹이를 앞에 둔 승냥이처럼 수호의 주위를 오락가락하며 능갈쳤다.

《똥, 더러운 늬!》

수호는 분노로 치를 떨며 도치수늬의 상통에 침을 뱉었다. 도치수늬는 가족장갑으로 얼굴에 묻은 침을 닦아내며 악에 받쳐 소리쳤다.

《야, 이늬를 비룡강가로 끌어내. 저 룡소가 있던데로 말이다.》

수호는 늬들의 총구에 떠밀려 비룡강가로 끌려나갔다. 수호는 룡바위우에 거인처럼 우뚝 섰다.

비룡강을 바라보는 수호의 가슴은 아팠다.

비룡강, 수호는 어머니처럼 비룡강을 사랑했다.

진정 그 물결에 사랑과 증오를 실어 서른이 넘도록 살아온 수호였다. 자기가 태어나 고고성을 터친 곳이 바로 이 강변이고 열살도 안된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것도 이 강이었다. 어찌 그뿐이라. 어린시절 물장구를 치며 뛰놀던 강변, 도태부늬의 강요에 몰려 맥이 진하도록 쏘가리를 잡던 일, 하많은 원한을 품고 세상을 떠나버린 공서방… 추억은 끝없이 이어졌다.

늬들은 수호의 목에 큼직한 돌들을 묶은 바줄을 걸어놓았다.

《네늬가 아무리 비룡강물에 태를 묻은 물귀신이라고 해도 안될걸.》

권총을 든 도치수늬가 씨벌어댔다.

증오의 불길이 황황 타번지는 눈길로 도태부와 도치수늬를 노려보던 수호는 고개를 젓히고 꺾꺾 웃어댔다.

《이늬들아, 그래 요만한 돌들에 다시 솟아나지 못할줄 아느냐. 더 큰 돌들을 매나라. 내 저 룡소속의 룡신이 되어 네늬들을 몽땅 물속에 끌어넣을테다!…》

뒤걸음치던 도치수늬가 수호의 가슴에 권총을 마구 쏘아댔다. 수호는 피흐르는 가슴을 움켜쥐고 룡소로 떨어져내렸다.

룡소는 더욱 세차게 소용돌이치며 노도쳤다.

다음날 새벽 유격대의 습격을 피해 달아나던 도태부늬와 도치수늬는 군시끌어귀에서 유격대원들에게 걸려들었다.

선두차에 탔던 도태부늬가 먼저 유격대원들에게 체포당하는것을 본 도치수늬는 애비고 뚱고 자기부터 살구멍을 찾아 수림속으로 도망쳐버렸다. 두늬 다 잡으려고 작정했던 유격대원들은 분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도치수늬를 놓쳐버린 봉임은 유격대원들과 함께 도태부늬에게로 다가갔다. 복수의 서리발이 비긴 시선들이 늬를 에워쌌다.

자기앞에 다가선 사람이 다름아닌 봉임이라는것을 알아본 도태부늬는 입에 게거품을 물고 악을 썼다.

《이년아, 씹라 씹. 내 오늘은 네년의 손에 죽지만… 내 아들이 네년놈들을 꼭 복수해줄게다. 씹라, 씹!》

《이 악착한 흠혈귀야, 그래 네늬들의 세상이 다시 올줄 아느냐!》

봉임은 도태부늬의 가슴팍에 복수의 총탄을 안겼다.

비룡강을 지켜 목숨바친 남편의 이름으로 한발, 평생 이름도 없이 갇은 수모를 다 받다가 한많은 세상을 떠난 공수봉아저씨의 이름으로 또 한발, 무참하게 희생된 수많은 고향사람들의 이름으로 또 한발…

×

이튿날 우리 기자들은 앞에서는 《대화》요, 《협력》이요 하고 떠벌이면서도 뒤에서는 높아가는 통일기운에 찬물을 끼얹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남조선 보수언론세력을 규탄하는 항의문을 썼다.

항의문에서 우리는 도치수와 같이 옛 제도, 옛 세상에 대한 망상을 하고있는 계급적원썬들에게 폭탄같은 선언을 하였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신 우리 식 사회주의는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으며 만약 늬들이 기어코 준엄한 시기를 몰아온다면 수십년동안 버리고 버리어온 우리의 계급의 총창은 결코 용서와 자비를 모를것이라는 립장을 단호히 천명하였다.

그후 내가 서울에서 돌아와 고향에 갔을 때 할머니는 나의 두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

《애야, 명심하거라.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수 없듯이 도치수와 같은 계급적원썬들의 본성은 백년, 천년이 흘러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것을 잊지 말아라.》

나는 할머니의 이 말을 심장깊이 새겨넣었다.

미루벌의 새물길

어디서 오는가

물은 어디서 오는가
하늘에서 떨어져오는가
땅속에서 솟아오는가

물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 장군님 이 벌을 못 잊어
차머리 돌리신 먼 전선길에서

이 나라 강줄기들을 모조리 휘어잡아
벌마다 자연흐름길 열어주신
천출명장의 신비한 지략으로
협산준령 뚫고서 오고있어라
기적의 물길이어!

청년의 호령소리

건장한 청년돌격대원 하나
리상저수지언제 척 눌러짚고
산천에 호령하여라

—여봐라
지류들 듣거라
이제부터 여기 리상저수지에
몽땅 모였!

이것은 이미
우리 장군님 내리신 명령을
내가 집행하는것

자, 어서 가자
협산준령 꺾뚫은 통물길 타고
황해라 드넓은 미루벌로!
선군으로 변모되는 새 기슭으로!

물 그 물 망

미루벌이라
평탄한 벌로 생각지 말라
지각변동때 융암이 파도쳐
기복이 심한 등판 또 등판

산악을 뚫고 오는 굴물길
콩크리트잠판 철잠판타고
오르고 내리고 물다리도 건너
저수지 채워서 또 물길

박웅전

오 미루벌물길 6백리는
절세위인의 애국의 손길로
온 벌에 금나락 펼쳐주는
끝없는 사랑의 물그물망이여라

붉게 타는 땅

저녁노을 불타는
언제건설장
자동적재기 삽날에
폭 떠실은 흙더미
노을을 떠담아
펄펄 불는 불더미인가

미루벌은 불그스름한 땅
온벌에 붉은기 날리니
더 붉어졌는가
토지정리까지 들이대니
불의 바다인가

오, 미루벌은
강선의 붉은 노을을 안고
천지개벽을 소리쳐 부르는
선군의 불타는 대지여라

물 다리

사람만 건너서 다리인가요
차들이 지나서 다리인가요
미루벌엔 물이 출렁이며 건너오는
물다리가 한 둘 아니

우리 장군님 보내주시는 생명수
골건너 미끈한 저 등판도
강건너 림름한 저 언덕포전도
물받이 사랑받이 다리놓고서
가슴 설레며 기다렸더니

얼짜 경사로다 출판이로다
강원도 어여쁜 새 물각시
미남벌 그쫘한 땅총각 찾아
잠판수페타고
물다리 건너서 시집온다오

고달령은 말한다

고달령은
곡산—판교 지경령

하도 높고 험해
고달픈 령이라 고달픈

우리 돌격대원들
굽이굽이 차길 열어
붉은기대오가 넘고
압축기 굴착기 오르더니

령이 룡트림 시작했다

지심깊이 터지는 발파소리
물길굴 판통의 환성소리

오, 고달픈은 말한다
어렵던 세월은 끝장나고
미루벌에 황금나락 물결쳐
강성대국대문에 이르렀으니
내 이름도
도달령이라 할순 없는가!

출 강 의 순 간 외 1편

안 명 애

백양나무에 기대선
용해공총각
불불듯 심장은 타는데
아는지 모르는지
새침데기치너는 말이 없네

이때라
경쾌하게 울려오는
종소리 종소리
출강의 종소리

—아이 또 출강이에요
치너는 저도 몰래

방긋 웃음꽃 피우네

말이 없던 치너
말이 많아진 그 순간
사랑도 무르익어 출강하는 순간

—허 동문
쇠물에 반했구만
내가 끊이는...

—그럼요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우리 장군님 기뻐하시는 순간이에요!

나는 미제의 운명을 본다

간첩선 《푸에블로》호
너는 끝없는 슬픔에 잠겨
외로이 떠있구나
맑고 푸른 대동강물결우에
바로 《서면》호가 수장된 그 자리에

너는
아이들의 손가락질에도
처절씩
대동강물결이 뺨을 쳐도
오로지 잔명의 단말마인듯
찌그득— 빼그득— 기우뚱—

정녕 너는
평양앞에 무릎꿇은 미제
번개인양 내리친
조선의 장검에 잘리운
미제의 물골

누가 너를 여기로 불렀더냐
《서면》호의 망령이더뇨
어찌하여 움짱달짝 못하고
이 땅의 비바람 눈바람에

거뭇거뭇 녹썩며 삭아지는것이나
씩어가는 물고기마냥

과연 너 잊을수 있더냐
50년대
이 땅에 불질했다가
패전의 쓴맛을 본
침략자의 그 물골을

그럼에도 또다시
《제재》요 《대결》이요
핵전쟁을 떠벌이느냐
그렇다 미제야
이 땅에 쌓이고쌓인
증오와 분노
멸적의 우뢰되어 벼락을 치는 그날엔
너 최후의 심판을 받으리라

이 땅에 영원한 패배자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보여주는
저 가련한 《푸에블로》호처럼
이미 대동강에 수장된
《서면》호침략선처럼



변영옥

지난 2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로 조업한 레성강청년1호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이 텔레비존과 방송으로 널리 보도되었다.

그날 저녁 수도의 어느 한 다층주택지구의 살림집창가에서는 늦도록 불이 꺼질줄 몰랐다.

전자자동화연구소의 문기연연구사의 집이었다.

문연구사의 가슴속에서는 크나큰 회오의 걱정이 고개치고있었다.

(아, 내 정녕 오늘을 바라볼 안목이 없어서 그때 건설장을 떠나왔단 말인가.

정옥동지나 성현동지는 저 영광의 자리에 있었는데 나만은, 나만은 왜 이렇게 쓰디쓴 좌절감을 안고 뒤전에 물러나있어야 한단 말인가.

동지들의 말이 옳았다. 나의 지식은 나 하나만을 위한것이였다.

아, 이제라도 저 대오에 설수 있다면!...

아니다. 이렇게 자책만 하고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라도, 이제라도...)

젊은 연구사의 마음속에서는 회오와 뉘우침의 뜨거운 눈물이 내리고 새로운 결심과 각오의 맹세가 서서히 오르고있었다.

그때로부터 몇달후 레성강청년2호발전소 연구조명단에는 문기연의 이름이 올라있었다.

×

고요한 방안의 정적을 깨며 전화종소리가 가볍게 울렸다.

새벽녘에 얼핏 잠에서 깨여났던 류성현은 이불깃을 끄당겨 얼굴을 덮으며 늦잠을 자려던 생각을 훌 지워버리고 침대결의 탁자우에 놓인 전화기에 손을 뻗었다.

《여보시오, 전화받습니다.》

《연구사동지, 집니다. 문기연입니다.》

《응? 연구사동무가 이 새벽에 어떻게?...》

《실례될줄 알면서도... 너무 기쁜김에...》

연구사의 목소리는 한껏 흥분에 젖어있었다.

《밤새 무슨 발견이라도 한게 아니요?》

류성현은 반가운 어조로 이렇게 물었다.

《저... 제 이번에 정옥연구사동물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의 생활속에 무엇이 부족하였던가를 새롭게 느꼈다 할가, 어쨌든 충격이 커서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문기연의 말에 류성현은 무등 기뻐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있어 《만능서고》라고 불리우던 문기연연구사가 1호발전소 연구조에 제일먼저 뽑혔었는데 끝을 보지 못하고 물러섰으니 오늘날 완공된 발전소를 두고 그가 얼마나 생각이 많았으랴.

《연구사동문 아주 큰것을 찾아냈구만. ... 동무야 젊지 않았소. 앞으로 자기에게 부족한 공백을 장점으로 메우면서 과학의 날개를 익세게 다듬어나간다면 더 큰일을 할수 있다고 난 믿소.》

《고맙습니다. 제 이번 2호발전소연구조에 망라된 기회에 지난 기간 못다한 봉창을 꼭 하려고 합니다.》

《2호발전소?》

류성현은 문기연연구사의 마지막말에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흠칫 놀랐다.

그는 송수화기를 귀가에 바투 가져가며 다시 되물었다.

《연구사동무, 이자 뭐라고 했소? 2호발전소? 그 문젤 정옥연구사와 토의해봤소?》

《예, 어제 당위원회에서도 결정을...》

《당위원회에서?...》

류성현은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섰다.

문기연연구사의 2호발전소 연구조 망라, 그것은 연구조명단에 이미 들어갔으리라고 생각했던 류성현 자기의 이름을 북 그어버렸다는것을 의미하고있었다.

며칠전 당위원회에서는 레성강청년2호발전소 문제를 놓고 심각한 토의가 있었다.

한것은 1호발전소건설때보다 2호발전소건설에서는 프로그램내용이나 형식에서 보다 새로운것을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사들의 일치한 합의가 있었기때문이었다.

연구소에서는 즉시 그에 대한 응모를 조직했다. 프로그램응모에서는 김정옥연구사가 내놓은것이 제일 우수한것으로 평가되었다.

그것은 지체없이 전자공업성과의 합의밑에 연구소적인 재협약의와 검토, 모의시험에 들어갔고 첨단 프로그램을 작성한 김정옥연구사와 함께 일할 장치설계가를 선택하기 시작하였다.

류성현은 자기가 첨단과학기술지식을 높은 수준에서 소유했다고는 볼수 없지만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도 있고 또 1호발전소에서 일정한 경험을 축적한것으로 하여 자기의 이름이 명단 1번에 꼭 오를것이라고 예견하고있었다. 아니 확신하고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문기연연구사를 승인하다니, 《폐성강도서판》이라고 불리우던 내 두뇌가 《만능서고》보다 못하다고 평했는가? 아니면 내 나이때문에...

수화기를 놓은 후에도 류성현은 좀처럼 풀길 없는 마음을 안고 서성거리었다.

문득 류성현은 칼도마소리가 울리는 부엌쪽에 대고 불시에 소리쳤다.

《여보! 어제 부탁했던것을 이제 좀 일찍 준비해주오.》

《아이참, 저녁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만한 일이 있으니 서둘러주오.》

오늘은 일요일이었다. 류성현은 특별한 계획이 없는 오늘 김정옥연구사의 집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었다. 한것은 폐성강청년1호발전소건설의 나날 맡은 과제를 함께 연구하면서 김정옥연구사와 맺은 우정을 더욱 두터이 하고싶어서였다. 또 그의 가정과도 통성하고싶었다.

그런데 방금 전화를 받고보니 시간을 앞당겨야겠다는 생각이 바람처럼 흘러들었다.

찌물쿠듯 따가운 삼복철의 대기는 길손들이 그늘진 가로수의 서늘한 곳으로 너나없이 들어서게 했다. 양산을 쓴 처녀들도 채양넓은 해가림모자를 쓴 녀인들도 발이 얇은 왕골실로 모양새를 돌구며 곱게 엮은 노리우리한 중절모를 쓴 남자들도 그늘을 중심으로 거리를 오가고있었다.

가로수로 일매지게 뻗어간 살구나나무를 걸어가던 류성현은 나무와 그늘처럼 늘 곁에 있으면서 마음을 맞추어 일하던 김정옥연구사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되새겨보았다. ...

...동남쪽 하늘가를 배경으로 기복이 선명한 매봉산이 거웃이 바라보이는 발전소는 역에서 한 이백리 잘되는 곳에 위치하고있었다.

류성현은 세멘트를 실은 중량급전설차에 몸을 싣고 발전소건설장으로 가고있었다.

가을풍경으로 곱게 단장한 산봉우리들과 팔쪽같은 이삭을 아기처럼 등에 업은 누런 강녕이바다가 살같이 달리는 자동차를 환영이나 하듯 잎새들을 가볍게 흔들고 난알향기를 풍기고있었다.

구름 한점 없는 푸른 하늘, 마실수록 심신을 깨끗이 정화시켜주는듯싶은 산천의 맑은 공기, 열정이 넘치는 빨간 단풍잎새들, 어쩐지 그 모든것은 발전소에서 자기를 기다려주는 환희로운 감정을 대변하고있는것만 같았다.

발전소로 들어가는 인입도로에 들어서니 대가곡팽이자루굽기만 한 아카시아나무들이 위병대처럼 길 양편에 쪽 늘어서있었다.

봄이면 이 나무에 하얗고 붉은 아카시아꽃송이들이 얼마나 많이 피어났을가. 소담한 꽃들에서 풍겨오는 달크무례한 아카시아꽃향기가 금시 온몸을 적셔주는가싶어 류성현의 얼굴에는 즐거운 웃음이 노상 넘실거렸다.

바로 그때 자동차가 급제동하며 갑자기 멈춰섰다. 동시에 운전사는 차창밖으로 머리를 쭉 내밀고 앞에서 걸어가는 한 녀인에게 소리쳤다.

《연구사동무, 어서 타십시오.》

《괜찮습니다. 전 이 나무모때문에...》

녀인은 등에 진 배낭을 보이며 몹시 딱해하였다. 기웃이 녀인을 바라보던 류성현은 반가움에 눈을 크게 폈다. 파란 수건을 쓴 녀인은 류성현이 찾아가는 김정옥연구사였던것이다.

《아니 연구사동무가 어떻게?》

김정옥연구사도 류성현을 띄여보고 놀랐다.

《내가 오게 되었소.》

《어마나, 난 그런것도 모르고 연구소에 독촉전화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호호호.》

서로가 인사를 나누는것을 보고 운전사는 시물시물 웃으며 발전소쪽으로 차를 몰아갔다.

《어떻게 된거요?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씨름하는줄로 알았는데...》

류성현은 배낭속의 나무모를 띄여보며 물었다. 정옥연구사는 발짓한 얼굴에 웃음을 담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요즘 건설자들이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곳에 자기의 마음을 담은 나무들을 저마다 심고있답니다. 저도 어쩐지 이 느티나무를 심고싶어서...》

《하필이면 왜 느티나무를 심겠소. 살구나나무, 잣나무, 밤나무같이 열매가 있다든가 아니면 경제림으로 좋은 빨리 자라는 나무들을...》

《전 군관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어릴적에 서해기슭의 샘골마을에서 살았답니다. 사시절 마를 줄 모르는 샘터를 지나 우리 집으로 가느라면 오래 산 느티나무들이 많았는데 그 수명이 50년, 100년 지어 어떤 나무는 천년이상을 기록하여 나라에서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고있답니다.》

《허, 그러니 느티나무처럼 오래 살고픈 생각이 든게 아니요?》

《호호, 저야 뭐... 사람의 수명이야 기껏 백년 이상을 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의 프로그램만은 수명을 오래 하게 하고픈 마음에서... 어쩐지 이 느티나무를 심어가느라면 저의 두뇌에

서 잠자던 지식도 깨어나고 새로운 착상들이 느닷없이 떠오를것 같기도 한것이...》

그러니 자기의 수명보다 프로그램의 수명을 늘리고 싶은 마음을 느티나무에 담아 심는다는것이다.

그 말의 감명이 커서 류성현은 정옥연구사의 모습을 새삼스러운 눈으로 뜯어보았다.

닭알보다 더 가름한 얼굴에 물이 오르기 시작한 앵두살처럼 부드럽고 고운 살결, 예지가 황황히 뿔어져나오는 쌍꺼풀이 선명한 부리부리한 큰 눈, 왼쪽 볼편에 갈썹하게 패워진 보조개, 고집스럽게 다물어진 붉은 입술, 코스모스꽃빈침으로 꼭 졸라맨 윤기도는 검실검실한 긴머리...

어쩐지 그는 연구사라고 하기보다 무대에 방금 출연할 배우의 자태를 지니고있다고 말해도 옳을것 같았다. 그런 미모를 가진 연구사의 가슴에 자기의 창조물에 대한 사랑이 그득히 차있으니 그는 얼마나 더 아름다와보이는가.

이런 생각속에 덤덤히 앉아있는 그에게 정옥이 말을 건넸다.

《어쩐지 전 두렵습니다.》

《두렵다니요?》

《제가 프로그램을 내놓으면 장치설계자들이 대단히 힘들어하니... 앞으로 연구사동지가 저를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정옥연구사는 나긋나긋한 손을 모두어잡으며 자기의 안타까움을 주저없이 내비치었다.

지금껏 아름다움에 취하여 흥분에 떠있던 류성현은 진중하면서도 무게있게 울리는 그의 말에 섣뜻 입을 열지 못했다. 정옥연구사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가늠이 잘 가지 않는것이다.

처음 연구소당비서가 발전소로 가지 않겠는가고 물었을 때도 그의 두툼한 입술은 빗장을 지른것처럼 열려지지 않았었다.

한것은 발전소에 대한 파악이 적거나 함께 일할 김정옥연구사에 대하여 모르는것이 있는데도 있지만 중요하게는 현장에 먼저 나왔던 문기연연구사가 왜 스스로 물러섰는지 그 이유를 알수 없어서였다.

오른손은 왼손이 있어야 바위를 들어낼수 있듯이 장치설계가는 프로그램수와 마음이 맞아야 일을 해낼수 있다.

문기연연구사가 20대의 젊은 나이에 외국어를 세개나 소유하고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전도유망한 대학생으로 지목되고 졸업후에도 연구소에서 연구사업년한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두각을 나타내어 1호발전소연구조에 망라될수 있는것은 《만능서고》라는 애칭을 받고있는 두뇌의 덕이었다.

연구사들은 재능과 실력이 뛰어난 김정옥연구사에게 짝지지 않는 적임자를 골랐다고 찬양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몇달도 안되어 발전소에서 스스로 포기하고 들어왔다.

그 소식을 듣고 류성현은 일정한 의문을 안고있었다. 야심만만한 문연구사가 첫 연구과제를 포기

한다는것은 허술히 스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었던것이다.

서로의 성격의 불일치인지 아니면 론쟁의 차이점에서 온 결과인지...

당비서와의 담화과정에 류성현은 문연구사가 후자의 경우때문에 돌아섰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문동무가 발전소에서 정옥연구사의 견해를 끝까지 소화할 힘이 부족했던가 보오...》

류성현은 《누구든 발전소에 나가야 할터인데... 지방에 출장나갔다가 온 동무를 다시 보내자니...》하고 걱정하는 당비서앞에서 《해내겠습니다.》하고 주저없이 대답하고 떠나왔었다.

그러나 도와달라고 곡진히 부탁하는 정옥연구사의 태도는 어쩐지 그 폭과 내용을 알수 없는 푸르른 대인공호수의 깊이처럼 파악이 없었다.

그 느낌은 발목을 붙잡았지만 류성현은 마음을 다잡고 김정옥연구사와 일을 하기 시작했다.

정옥연구사의 프로그램을 장치설계로 완성한다는것은 매 공정마다 쉽게 풀어낼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어찌보면 녀인으로서 너무도 까다롭고 모험적인 방향으로 문제들을 유도한다고 할가.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느라 손에 땀을 쥐고 츠렁바위를 겨우 올라간 느낌을 주었다. 매일 매일의 고심참담끝에 설계가 완성될 때마다 정옥연구사도 여간만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김정옥연구사는 돌과 흙밖에 없는 건설장에서 뜻밖에도 툇탕땀이 담겨진 음식그릇을 류성현앞에 퍼놓았다.

《허, 오늘은 명절도 아닌데...》

《어서 잡수십시오. 그동안 이 〈자유주의자〉 때문에 연구사동지가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까.》

어쩐지 그 말은 류성현의 온몸을 짜르르하게 만들었다.

김정옥연구사는 프로그램기본체계에서 요소요소를 현장의 실정에 맞게 수시로 변경시키는 자기를 《자유주의자》라고 자칭하고있었다. 그 《자유주의자》의 두뇌에서 때없이 류출되는 프로그램에 따라 장치설계를 완성하자니 류성현의 고심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입술이 터갈리고 물집이 튕겨올라도 자리에 누울수 없었다. 건설장의 불야성과 함께 하루하루를 뜯눈으로 새워도 모자라는것이 시간이여서 늘 초침소리에 쫓겨다녔다.

그렇게 애쓰며 완성된 설계를 다시 변경시켜야 할 때가 오면 최대의 인내성을 가지고 넓은 아량과 리해로 설계를 대하던 류성현의 어글어글한 눈가도 잔조롭게 좁혀지고 미간은 찌프릴사 해졌다.

그럴 때마다 류성현은 문기연연구사를 생각했다. 정옥연구사와 함께 일을 해보니 《만능서고》와 같은 문기연연구사가 결코 지식이나 자료가 팔려그와의 어깨겨루기에서 《패》하고 물러선것이 아

니였다.

김정옥연구사는 군사복무의 경력을 가진 여인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감탄할 정도로 인내성과 의지가 강했고 발전소라는 시험대상 아닌 현실앞에서 담차다고 할만큼 기개있고 모험에 가까운 프로그램을 내놓곤 하였다.

굳이 그 근원을 따져본다 하면 군관이었던 그의 아버지의 기질을 그대로 이어받은때문이라고 해야 할지...

결국 문기연연구사의 뒤걸음은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논쟁의 차이점이 아니라 의지의 부족이 가져다준 결과였다고 류성현은 고쳐 생각했다.

그것을 의식할수록 류성현은 자기의 많은 나이를 잊어버리고 정대와 함마로 암반을 들어내는 발전소청년돌격대원들의 나이를 안고 살았다. 그리고 옷뒤잔등에 소금땀이 내배도록 어려운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어 방대한 설계과제를 완성하고 현장에 도입하는 오늘에 이른것이다.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할가.

정옥연구사는 컴퓨터를 다루던 날렵한 손으로 기름이 번질거리는 닭다리를 뜯어 류성현앞에 놓인 하얀 접시에 무덕무덕 놓아주며 그저 기뻐 어쩔줄 몰라했다.

《그동안 연구사동지의 찬가지가 줄어드는것도 모르고 일만 일이라고 살아온 저를 욕 많이 해주십시오.》

《허, 연구사동문 노상 발전기실에서 살면서 끼니를 건넌적이 얼마요. 연구사동무가 심은 느티나무는 그래도 매일 땅속의 영양물질을 섭취하는것 같던데...》

《호호, 그건 저뿐이 아니랍니다. 언제인가 발전소건설자들이 자기들의 밥그릇은 낮추면서도 그 존하게 마련한 공구전시장을 돌아보고 전 놀랐습니다. 언제를 자기 살점처럼, 피줄처럼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희한한것들이... 그 마음에 받들려 저의 프로그램도 하나하나 완성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연구사동지의 《례성강도서관》과 같은 두뇌와 정열이 없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날이...》

《됐소, 됐소.》

류성현은 말끝마다 자기를 《례성강도서관》이라고 높여주는 그의 말이 몸에 붙지 않아 오른손을 내흔들었다. 그러면서도 류성현은 속으로 은근히 기뻐다.

느티나무처럼 프로그램의 수명을 늘이려는 정옥연구사와 의사소통이 되었다는 의미가 그 《례성강도서관》이라는 애칭속에 그대로 숨배여있는 듯싶었기때문이었다. ...

류성현에 대한 김정옥연구사의 감심한 마음은 이렇듯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였다.

그런데 연구조명단에서 지워버리다니, 믿을수가

없었다.

류성현은 번거로운 마음을 달랠길 없어 걸음을 재촉했다.

정류소에 멎어선 뺨스에 몸을 실었어도 그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가로수그늘밑을 떠날줄 모르고 오가는 길손들을 바라보느라니 건설장의 나날들이 다시금 마음에 떠올려졌다.

곰곰히 생각을 더듬어보니 어쩐지 정옥연구사와 자기와의 관계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서도 그늘을 떠나지 못하는 저 길손들처럼 본능적인 친화력을 가지고있지 못했다는 생각이 갈마들었다.

그것은 발전소조기조업을 앞둔 어느 초겨울날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발전소건설장에 잠시 머물러있던 가을은 어느덧 안개처럼 사라지고 초겨울이 시작되었다.

첫눈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건설장 구석구석에는 벌써 찬기운이 맴돌고 새벽이면 마감단계에 이른 진수정공사장아근의 고인물면에 살얼음이 얹게 끼기 시작하였다.

산천의 청신한 대기속에 맴고 쌀쌀한 기운이 기울기울 스며들어 새벽공기를 마시는 류성현의 몸도 어지간히 선풍해졌다.

그는 발전기실로 시원하게 뻗어간 대도로를 걸으며 자기 생각에 심취되어있었다.

언제에서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기둥, 타빈을 때리며 세차게 뿜어지는 물보라 물보라, 방수로 물길을 따라 타래치며 흐르는 푸른 물, 미구에 완공의 테프를 끊을 이 거창한 창조물을 위해 얼마나 많은 청춘들이 자기의 피와 땀, 넋을 바쳐왔던가.

류성현은 인생말년에 푸른 물결과도 같은 청춘의 숨결속에 자기의 마음도 실어보았다는 생각에 미치자 크나큰 긍지가 가슴그득히 차올랐다.

별로 자랑스러운 느낌을 안고 장군님 다녀가신 발전소를 점도록 바라보던 류성현은 발전기실쪽에서 급히 내려오는 김정옥연구사를 발견하고 그를 마주 향해 걸어갔다.

부리부리한 눈가에 피곤이 실린 그의 눈빛을 느끼며 류성현이 말을 꺼냈다.

《또 밤을 새웠구만.》

《전 팬찮습니다. 그런데...》

문득 정옥연구사의 긴장한 눈빛이 류성현의 얼굴에 와닿았다. 무엇인가 토의하려 하거나 물을것이 있으면 취하곤 하는 정옥연구사의 자세였다.

류성현은 얼굴에 느슨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또 무슨 일이 있는게 아니요?》

《예, 저... 한가지 물어도 팬찮겠습니까?》

《어서 말하오. 오늘은 어쩐지 마음이 상쾌하구만.》

정옥연구사는 그답지 않게 갑자르며 말머리를 빼었다.

《저… 그… 현재 1호발전기의 F형 프로그램에 집결되어있는 여러개의 요소들을 절반으로 합축하여 종합프로그램으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허, 그거야 아주 리상적이지요.》

《만약… 그것을 해낼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연구사동지는 동의할수 있습니까?》

《허, 그런거야 전적으로… 아니, 여기서 당장 말이에요?》

《…예.》

《가만, 가만… 좀 생각을 해보지요. 앞으로 우리에게 조업기일이 얼마 안 남았다는것을 고려해 보았소?》

《예.》

그러면서 정옥은 연희색의 잠바형 작업복안주머니에서 부피 두꺼운 책을 꺼내놓았다.

《이건 현재의 F형프로그램을 P형종합프로그램 체계로 바꾸어보려고 째짜미 계산해본것입니다. 아직 결함도 있고 수정할 곳도 여러군데 되지만 어쩔지 꼭 이것을 하고싶은 마음이…》

류성현은 자기의 심장이 도로바닥에 툨팅 떨어지는것만큼 깜짝 놀랐다.

정옥연구사는 여러개의 부분요소라는 말을 아주 가볍게 던지고있었다. 사실 하나의 요소를 변경시켜도 그것은 사개가 맞물려진 구조물을 변경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인데 여러개의 요소를 설계로 변경시키고 도입으로 완성한다는것은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도 얼마 남지 않은 조업기일을 눈앞에 두고… 고집스러운 정옥연구사의 성미를 알고있는 류성현은 이렇다할 말이 없이 설계실로 돌아왔다.

류성현의 무언의 표정에서 제기한 문제의 실천적가능성이 확실치 못하다는것을 알게 된 연구사도 말이 없었다.

그러나 눈빛만은, 눈빛만은 P형종합프로그램을 어쩔수없이 철회하려는 실망의 눈빛이 아니라 그것을 더 부활시켜 성공해내려는 열정이 타번지는 눈빛, 어지간히 고집스럽다 할 눈빛이었다.

류성현은 마음이 괴로웠다. 그의 요구대로 P형종합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성공을 하면 좋지만 조기조업을 미루게 된다면…

그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다.

청년건설자들이 그 조기조업기일을 앞당기자고 1분1초, 한시간, 하루하루를 얼마나 피타게 뛰여왔던가.

과학이란 원래 미지수와 미완성을 해결과 완성으로 이끌어가는것만큼 정옥연구사의 P형종합프로그램을 좀더 완성하여 2호발전소에 도입하면 그것 또한 실리가 있는 일이었다.

그런 결론을 내린 그날 저녁 류성현은 개운한 마음으로 정옥연구사와 마주앉았다.

바로 그무렵, 책상위에 놓인 전화기에서 신호종소리가 울렸다.

류성현은 얼른 송수화기를 들었다.

《예, 발전소입니다. 평양이라구요? 예, 전화를 바꾸어주겠어요.》

류성현은 송수화기를 정옥에게 넘겨주었다. 전화는 그의 막내아들에게서 온것이였다.

그의 얼굴에서 긴장된 표정이 가뭇 사라지고 함박꽃같은 웃음이 피여났다.

《여보세요. 누구예요? 영룡이?… 앓지 않고 잘 있었어요? 할머니랑 형님이랑 잘있고?…》

아들과의 상봉이 정옥의 가슴에 이상야릇한 감정을 불러온듯 그의 눈가엔 물기가 어리기 시작했다.

또랑또랑 울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류성현의 마음도 아릿하게 만들었다.

《어머니, 오늘은 엄마가 보고싶어서… 엄마, 오늘 우린 <아리랑> 공연 첫 시연회를 했어요 우리가 출연하는 꽃줄놀이장면이 제일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집에는 할머니만 계시구 엄마는 흑흑…》

아들의 울먹이는 어조가 들리여왔다.

정옥은 말을 못하고 그러한 눈물을 쏟지 않으려는양 입술을 깨물었다.

허나 눈물은 장마진 뒤에 무덤이언제를 넘어서는 물결마냥 눈언저리를 넘어 두볼로 흘러내렸다.

류성현은 눈길을 내리떨구었다. 어쩔지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듯 한 아픈 감정이 일었다.

엄마가 얼마나 보고싶으면…

언제인가 류성현은 일에만 다몰려있는 연구사에게 이렇게 물은적이 있었다.

《연구사동무가 이렇게 출장을 나오면 집은 누가 돌보니까?》

《친정어머니가 계십니다.》

《글쎄 어쩐지…》

친정어머니가 있다니 집안살림은 그럭저럭 돌볼수 있겠다. 그러나 어머니의 손길이 늘 미쳐야 할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그의 머리속에서 떨어진적 있으랴.

연구사이기 전에 가정의 주부인 그의 치마자락에 늘 맴돌며 놓아주지 않는 그 모든 생각과 걱정들을 정옥은 리성으로 이기고 과학의 세계에 대한 애정으로 보충하며 프로그램에 자기의 진정을 쏟아부고있는지도 몰랐다.

아이들에 대한, 가정에 대한 사랑을 합치여 프로그램에 진할줄 모르는 사랑을 부으니 그가 창조한 프로그램이 새롭지 않을수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느라니 얼핏 류성현은 여담삼아 이야기하던 당비서의 말이 떠올랐다.

《건설장으로 떠나기 전에 정옥연구사에 대해 이야기해줄게 있소.》

군관으로 한생을 보낸 그의 아버지한테는 아들 셋과 딸 한명이 있었소. 오빠들이 모두 군대로 나가자 정옥연구사도 군복을 입겠다고 떼를 썼다고 하오. …

그런 딸애를 아버지가 어떻게 설복했는지 정옥

동무는 대학으로 갔고 컴퓨터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후에는 현실체험기간 2건의 국가발명권을 받았소. 그중 한건이 경제부문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실리의 전망성이 큰것으로 평가되어 그는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고 동료들에게서는 처녀시절 〈스키처녀〉라는 애칭도 받았다고.》

《스키처녀》, 어떻게 그 별명을 받게 되었는지 내용은 잘 몰라도 아무튼 그것은 정옥연구사에게 아주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되었다.

남보다 새롭게, 남보다 더 빨리, 더 좋은 프로그램 을 위해서는 그 어떤 장애물도 두려움없이 온 심혼을 다 바쳐 헤쳐나가는 정옥연구사. 그처럼 이악하고 담차고 의지 강하던 녀인이 아들의 애잔한 목소리앞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고 송수화기를 든 손은 가볍게 떨고있었다.

그의 마음은 벌써 평양으로 달려가고있으리라.

그 순간에야 비로소 류성현은 정옥의 마음을 다 잡아주어야 할 가까운 사람이 자기라는것을 의식하게 되었다.

그는 좀전까지만도 바재이던 생각을 지워버리고 전화를 끝낸 정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연구사동무, 난 요즘 내판의 격언을 생각해보곤 하오. 〈의지도 분별을 잃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

《?...》

《난 연구사동무와 함께 일하면서 남자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대담하게 제껴나가는것을 보고 놀랐소. 그것은 보통 의지로는 해내기 어려운 일이요. 이번에 제기한 P형종합프로그램만 하여도 착상에서나 내용에서 찬양할만 한것이요. 하지만... 도입에서만은... 이번만은 달리 생각해보는 게 어떻소. 앞으로 2호발전소에서 그 문제를...》

《연구사동지, 물론 생활에서는 오늘 못한 일을 래일에 가서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한걸음이 래일의 백걸음, 천걸음을 대신할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 한걸음을 어떻게 가볍게 대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프로그램을 꼭...》

정옥연구사는 한켠에 밀어놓았던 두툼한 책을 다시 류성현의 앞에 가져다놓았다.

류성현은 지뫄은 눈길을 정옥연구사에게서 떼지 않았다. 고집스러운 그에게서 은근히 리해를 바라다 할가, 했건만 정옥은 못 본척 두툼한 책을 펼쳐들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그를 설복하자고 접어든것이 오히려 자기가 설복을 당한셈이 되고말았다.

류성현은 어쩔수없이 P형종합프로그램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자그마한 요소에 불과하지만 연구할수록 P형종합프로그램은 새로운 천체를 발견한것처럼 류성현을 흥분하게 했고 장치설계에도 떠밀어주었다.

조기조업을 앞두고 안도의 숨을 쉬며 잠시 멎었던 그의 《례성강도서관》 두뇌는 있는 자료를 총

동원하며 최대로 활기를 띠었고 그에 따라 류성현은 아침시간에조차 세면하는것도 식사하는것도 다 잊고 설계도면앞에서 떠날줄을 몰랐다.

정옥연구사도 발전기실의 《고정재산》이 되어 조기조업의 날까지 컴퓨터앞에서 분투하고 장치설계에서 선과 점, 수자를 새겨가며 성공의 그 날로 이어왔다. ...

초겨울에 있었던 그 사실은 류성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었다.

얼핏 그 사실앞에서 류성현은 후세앞에 나약성을 보인 계기로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한편 사람이 자기의 창조물에 생명력을 어떻게 이어주어야 하는가를 알게 한 좋은 기회라고 무릅없이 생각해왔었다.

하지만 오늘 연구조명단에서 밀리우고보니 류성현은 초겨울의 그때 일이 높은 언덕에서 마차를 끌고 오르지 못하여 허덕이는 자기의 팔불견한 모습을 보여준것처럼 생각되었고 그때문에 오늘과 같은 결과가 차례지지 않았는가 하는 위구심이 갈마들어 번거로운 마음을 가라앉힐수 없었다.

×

어느덧 김정옥연구사의 집을 찾은 류성현은 출입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반백이 된 연구사의 친정어머니라고 생각되는 녀인이 문을 열고 류성현을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뉘시우?》

《연구소에서 왔습니다.》

《연구소? 우리 정옥인 없는데요.》

《일요일도 쉬지 않습니까?》

《무슨 자료를 얻는다면서 해안동으로...》

《그럼 기다렸다가 만나고 가겠습니다. 전 발전소에서 연구사동무와 함께 일하였습니다.》

《예구나, 진작 그 말부터 할게지. ...자,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우다.》

발전소란 말이 마치 통행증이라도 된듯 어머니는 류성현의 손을 잡고 방안으로 이끌었다.

안주인이 출장이 잦은 연구사여서 방안이 현란한 맛은 없으리라 생각은 했었지만 의외로 간소하고 소박한 방안의 정갈한 모습이 담썩 안겨왔다.

값진 소파는 없어도 흰천에 코바늘로 뜬 레스를 곱게 붙여 만든 침대보를 반듯하게 씌운 침대며 부모의 유산처럼 보이는 손때묻은 이불장과 삼면경대, 도색이 퇴색된 책장과 책상이 규모있게 제자리에 놓였있었다. 책상우에 놓인 컴퓨터외에는 현대적인 물건이라고는 찾아볼수 없었다.

벽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찍은 군복을 입은 정옥연구사의 아버지사진(서해갑문건설을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 정히 모셔져있고 유리함속에 진렬된 주먹만큼 큰 훈장들이 눈길을 끄는가 하면

다립발을 세운 남편의 병사복이 개별옷걸이에 걸려있었고 예술공연 《아리랑》에 출연하여 모범을 보인 아들의 표창장이 한옆에 나란히 붙여있기도 했다.

어쩌면 집안의 가보같은 그 모든것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류성현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령감은 일흔살을 넘겨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딸은 늘 저앞에서 아버지와 말하며 사진과 훈장들을 닦곤 하지요. 에그, 힘들겠는데 여기 앉구려.》

이야기상대가 그리웠던지 어머니는 초면의 류성현에게 무릅없이 말을 건넸다.

의자에 앉은 류성현은 푸념 비슷하기도 하고 옛말갈기도 한 어머니의 말을 주의깊게 들었다.

《그 애가 늘쌍 아버지와 얘기를 나눌만두 하지요. 그 애아버지는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딸을 끔찍이두 사랑했수다. 부대로 갈 때에는 느티나무 있는데까지 목마태우고 가고 올 때에는 또 마중나온 그 애를 품에 꼭 안고오곤 했지요.》

하루는 철없던 그 애가 아버지의 가슴에 단 훈장표를 보고 〈아버지, 훈장 많이 탄것 나두 하나 달라요.〉 하며 막무가내로 조르지 않겠소.

〈이건 아버지가 주는것이 아니라 네가 타야 하는 거야.〉 하며 딸애의 귀여운 불에 자기의 땀뻘한 턱을 가져다대던 령감이 그래도 딸애가 고집스럽게 졸라대자 그 애를 데리고나가 마을앞에 있는 천연느티나무옆에 얘기느티나무를 심으며 말합디다.

〈이 나무를 심으면 우리 정옥이 빨간 별두 타구 앞으로 훈장도 많이 타게 된다.〉

자기의 태줄을 묻고 자라난 땅에 단 한개의 창조물도 세워놓지 못한다면 죽을 권리도 없다고 늘 입버릇처럼 외우던 령감이 아마 딸애에게 창조물에 대한 인식을 그 느티나무에 비겨 리해시켰던것 같수다.

그 애가 소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는 뜻밖에도 스키라는 법을 배워주겠다고 해서 온 집안 웃겼지요.

그러거나말거나 령감은 스키신도 신을줄 모르는 딸을 데리고 눈이 강산같이 쌓인 산판에 데리고 올라가 스키를 배워주기 시작하더군요. 그 애가 넘어지면 일으켜세우고 눈구멍이에 빠지면 손잡아 꺼내주고 나무등걸에 걸려 어푸러져 상처가 나면 약을 발라주면서 말입니다.

어느날 그 애가 〈스키선수〉 못하겠다고 스키신발을 벗어버렸는데 령감은 눈구멍이에 빠진 스키신을 꺼내여 딸애에게 다시 신겨주며 무겁게 입을 열더군요.

〈내가 오래전에 너와 함께 느티나무를 심으면서 해준 말이 생각나겠지? 느티나무는 수명이 아주 길단다. 서리꽃으로 단장한 저 천연느티나무를 좀 봐라.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하냐. 저 나무도

천년을 기록했지 않니? 넌 저 느티나무보다 더 오래 우리 조국땅에 길이 남을 창조물을 이 땅에 일떠세워야 한다.

그러면 그 많은 지식을 언제 걸어서 뛰어서 너의것으로 만들겠니.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스키라는 법을 배워주는것도 썩썩 날면서 과학의 세계를 질주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의 주인이 되라고 하는거야. 그때면 넌 아버지보다 더 많은 훈장을 탈게다. 훈장은 곧 창조물에 바쳐진 인간의 녀의 증표이니까. …〉

아마 그때문에 군복을 입겠다고 눈물을 흘리던 딸애가 대학을 갔었는지. …

그 애에게 것처럼 힘을 주고 떠밀어주던 아버지가 림종하는 날 딸애는 너무 울어 눈이 툭툭 부어올랐수다. 령감은 기름기가 없는 말라든 자기의 손등에 똑똑 떨어지는 딸애의 눈물을 보다가 힘없는 손을 가로저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릴적에 마을앞에 있던 느티나무가 생각나느냐? 그 나무는 그래도 천여년의 기록을 년륜에 새기며 아직 살아있는데… 그대두 난 후회하지 않는다. 사람의 수명은 기껏 100년을 넘지 못하는 데 난 서해갑문을 비롯한 많은 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데 과학으로 이바지했거던.

선군의 녀를 피줄처럼 안고 일떠선 그 모든 창조물들은 만년은 끄떡없어. 그러니 난 한생이 아니라 만년생을 이어가는 셈이지.

난 네가 마음속에 언제나 내가 입었던 군복을 입고 아버지보다 더 현대적인 창조물을 일떠세워나보다 더 오래 살기를 바란다. 그런 창조물을 위해서는 너의 모든것을 아끼지 말어라.

난 네가 그렇게 되도록 늘 곁에 있으련다. 네가 힘들다고 스키신을 벗으면 다시 신겨주고 눈판에 얹어지면 일으켜세워주고 또 눈구멍이에 빠지면 내 손이 바줄되어 꺼내주면서… 밀어주면서… 밀어…〉

령감은 끝내 가고싶지 않은 길을 가고말았지요.

하지만 우리 정옥인 아버지의 그 마지막목소리를 마음에 새기고 저 사진과 훈장들앞에서 아버지와 속대사를 나누며 발전소로 나가곤 했답니다. 그 애가 그러니 난 꼭 집안에 령감이 있는것만 같은게…》

어머니는 앞치마자락으로 눈굽을 훔치었다.

류성현은 순간 따지운것이 눈굽을 지지는것 같았다. 무엇인가 더운 뭉치같은것이 가슴속에 그들 먹이 차올랐다.

아, 그 연약한 몸에 어쩌면 그렇게 강한 의지가 있을가 했더니 아버지의 군인정신이 정옥연구사의 심신에 짝 차있었구나. 지칠줄 모르는 창조의 정신과 강한 의지, 자기가 건설하는 창조물들에 꺼질줄 모르는 생명력을 부어넣어주려는 그 열망이 바로 그를 쉽없이 스키선수처럼 날게 했구나.

류성현은 뜻밖의 충격에 두눈을 습벅거리었다.

오늘에야 비로소 정옥연구사가 무엇때문에 고심참담끝에 얻어낸 프로그램을 대담하게 버리고는

그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분과 초를 그렇듯 천만조각으로 나누며 일해왔는지 알게 된 듯싶었다.

어쩐지 류성현은 자기의 마음에도 김정옥연구사의 부녀가 사랑하던 거목의 천연느티나무와 아기느티나무가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감을 느끼었다.

×

집으로 돌아온 류성현은 번거로운 마음을 다잡지 못한채 활짝 열어놓은 창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거리의 모습을 띄여보았다.

네거리 한옆에 서있는 방송차에서 힘있게 울리는 150일전투어로 선동하는 방송원의 목소리, 거리의 곳곳마다 세워진 강선의 봉화따라 대고조, 대비약을 일으키자는 색이 선명한 구호들...

전례없이 끊어번지는 시대의 뜨거운 숨결은 류성현의 심장에 불을 달고있었다.

전기, 그것은 오늘날 강성대국의 문을 열기 위한 첫 돌파구이다. 그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주로에서 당당히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끝없이 상승하지 못하고 탈선된다면 그것은 천연느티나무보다 못한 생을 의미했다.

끝나는 한생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이 벽찬 선군시대에 강성대국의 위용을 보여주는 거대한 창조물들로 련련히 이어지는 만년생이 있어 류성현의 마음은 한껏 궁지롭고 여한이 없을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욕망뿐이었다.

프로그램연구사가 요구하지 않는 장치설계가는 발전소건설 그 어디에도 필요없기때문이다.

그렇다고 앉아서 선발해줄기만을 기다리는것 또한 무뎡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다.

류성현은 창가에서 물러나 옷걸이에 걸어놓은 옷저고리를 벗겨 다시 입었다.

정옥연구사가 명단에서 자기를 빼놓았다고 해도 당위원회에 찾아가 그 결말을 보아야 발편잠을 잘것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전화종소리가 가볍게 울리었다.

류성현은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사람처럼 다급히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시오, 전화받습니다.》

《연구사동지, 정옥입니다. 그렇게 오셨다 그냥 가면 전...》

《...》

류성현은 선뜻 말이 나가지 않았다. 자기의 이름을 연구조에서 빼놓은 불쾌감에서인지, 발전소에서 함께 일하면서도 생활의 아픔을 감추고 웃음만을 주던 연구사의 매정한 마음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집을 방문하면서 받은 충격이 너무도 큰 그때문인지...

알수 없는 야릇한 감정에 휘말려 두툼한 입술을 꼭 다물고있던 류성현은 겨우 마음을 다잡고 천천

히 말을 이었다.

《미안하오. 동무를 꼭 만나려 했었는데... 어머니한테서 대접을 잘 받고왔소. 참 연구사동무, 한가지 물어도 괜찮겠소?》

《예.》

《문기연연구사를 만났다는게 사실이요?》

《예, 이번에 그 동문 발전소에 나갔던 일을 돌이켜보면서 구슬 서말도 껴야 보배라는 속담의 진가를 깊이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구슬?》

《예, <만능서고> 처럼 자기 머리에 쌓여있는 지식도 현실에 대답을 줄수 없으면 지식이 아니라 진렬품에 불과하다면서... 그 반성이 너무도 진지하여 2호발전소연구조에 망라되는것을 찬성하였습니다.》

《그럼 <폐성장도서관> 이라고 찬양해주던 로화된 이 두뇌는 할 일이 없겠소?》

《아이참 무슨 말씀요... 연구사동지, 사실 연구사동지가 발전소에서 어려운 부문을 기꺼이 맡아줄 때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야 할 방대한 과제가 연구사동지의 나이 나 건강으로 보아 너무 큰 짐이 되는것만 같아...》

정옥의 그 말에 류성현은 대뜸 어성을 높이었다.

《난 외교하는것을 좋아하지 않소. 진실만을 말해주오. 그래 동무는 가정과 프로그램이라는 짐을 다같이 지고있는데 난 나이때문에 장치설계라는 짐도 질 자격이 없다 그 말이겠소? 발전소건설장에서는 녀인들까지 함마와 정대를 들고 질통을 벗지 않고 뛰고 달리는데두?... 너무하오.》

《...》

《연구사동무, 난 동무의 집에서 동무 아버지와 한자리에 앉아 많은 말을 나누고 왔소. 그분은 나에게 명을 길게 이어가자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것도 가르쳐주고 첨단과학의 요지경을 한손에 넣는 묘리도 배워주더구만. 동무가 얼마나 부럽던지. ... 정옥동무, 나도 마음속엔 젊은 시절에 입었던 군복이 있으니 다른 생각 말고 함께 일하기요.》

한동안 송수화기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다. 한참 후에야 격정에 짓눌리운듯 한 낮은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연구사동지, 고맙...》

정옥의 고마움과 진정에 겨운 목소리가 류성현의 마음속에 차분히 흘러들었다.

류성현은 더 말을 잊지 않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어쩐지 마음이 가벼워 날아갈듯 한 기분이었다.

즐거움이 한껏 실린 그의 마음은 바람에 살랑이는 거리의 살구나무잎새들을 날아넘어 저 먼곳 정옥연구사의 소녀시절이 흘러간 샘골의 천연느티나무가지와 아기느티나무잎새에 소리없이 내려앉는듯싶었다.

참으로 패청한 여름날이었다.

연 제

박 정 애

그리움의 노래는

밤별도 내려앉아 불빛으로 타는가
 착암기 정날끝에도 불꽃
 삼날들에도 불꽃
 눈빛도 불빛에 번쩍이는 사람들
 목메여 노래부르고, 나는 눈물에 젖고...

아버지장군님은 어디 계실까
 간절한 그리움에 젖어
 전선길로 달리는 뜨거운 마음들이
 일손마다 번개일으키며 부르는 노래
 밤하늘에 울려가고 들을수록 자꾸 눈물에 젖고...

이들이 아니라
 조국땅 머나먼 이곳까지 찾아오신
 장군님 꿈결처럼 뵈옵고
 완공의 그날 다시 모시리
 그날의 맹세로 불타는 사람들!

이 장한 모습들앞에서 어찌 눈물에 젖지 않으랴
 저녁때식도 다른 동무에게 나누어준 명천내기
 붉은기를 높이 들고
 질통을 지고 앞서달리는 저 모습
 남편을 찾아 지원물자 안고왔던 화대녀인
 떠나지 못해 벌써 몇달째 골재산 쌓아올리는
 저 진정앞에서

막돌채집장이랴, 다져가는 언제우랴
 낮이나 밤이나
 지칠줄 모르는 전투속에 부르는 이 노래
 장군님을 못 잊는 그 정 그 뜨거운
 이 가슴에 불기둥 일으키누나

그리움의 그 마음 그 힘이였다
 얼음 서걱이는 감탕도
 랑만에 넘쳐 웃음으로 퍼내던것은
 밀려드는 대홍수속에서도 방파제인양
 어깨걸고 언제를 지켜낼수 있는것은

이 노래 안고산 그때문이였구나
 그 누구도 생각할수 없는 심산중에
 골재자동호름선까지 세워놓을수 있는것도
 어랑천
 이 자연의 흐름우에
 거대한 산악을 안아올린것도

산과 산에 메아리쳐
 밤하늘 멀리 울려퍼지는 이 노래 있어
 이들에겐 불어오는 광풍도 봄바람
 막아서는 천만시련도
 이들에겐 발밑에 눌러딘는 징검돌

별들도 내려앉아 불빛으로 타고
 사람들 눈빛도
 불빛으로 타는 불야성의 밤
 은은한 그 노래 전선길로 메아리쳐가고
 아 나는 눈물에 젖고...

그 마음 뿌리갈아요

푸르려 무성한 한그루 나무에
 황이 든 잎새갈다며
 먼구스러워하는
 예순세살의 명간중대 《대원》
 회령에서 온 할머니

황이 든 잎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새벽이면 뜬김 서린 취사장에서
 풍성한 식탁에 웃음꽃 피우고
 달빛 유유히 내리는 밤
 작업복도 손질하고 장갑도 지으며
 청춘들 가슴에 고향을 얹어주는데

그 살들한 손길에 언제가 높아지는것 아닌
 가요
 아들딸 돌보듯
 돌격대원들을 위해
 낮이나 밤이나 기울여주는
 그 정이 어이 작은가요

수백의 한식술을 말없이 돌보며
 조국의 어려운 곳에 남은 생 불태우는
 할머니의 그 마음
 아 무성한 나무의 한줄기 뿌리갈아요

호수의 고요

두둥실 떠가던 흰구름도
 빙 둘러선 산봉우리도
 거울같은 너의 수면에 비껴
 즐거이 춤을 추는데
 어랑천호수여

너는 그 무슨 생각에 잠기었느냐

인적 드문 심산속에
수수천년 외로이 흐르던 물결이
선군의 이 세월
황홀한 선경으로 천지개벽되었건만

고요한 너의 물결 안아보니
작공의 발파소리 장쾌히 울리던 그날부터
기초를 다지던 열정 넘친 돌격대원들 그
모습
못 잊어 추억하는것 아니나

유정한 너의 물결에 다 어려있구나
아득히 언제를 돌기돌기 쌓아올리며
돌격대원들 홀린 그 더운 땀방울이
산악을 밀어낸 암반우에
언제가 솟아오르던 그밤
쭉잡결에 깃들던 환희의 그 꿈이

땀젖은 얼굴로 다짐봉 휘두르던
제대군인 그 총각
래일은 여기에 발전소마을 솟을거라고
처녀에게 보내는 편지속에 속삭이던
애뜻한 그 사랑도 실려있구나

가장 어렵던 그날에
결사판철의 가슴들에 충만된 심장들에
아름답게 간직했던 리상과 미래
이 땅에 천하절경으로 펼쳐준
돌격대원들 그 헌신 그 애국의 마음
차마 못 잊어 고마움에 젖는 어랑천호수

어서 걱정의 물갈기를 일으켜라
거세차게 격류하라
백학이 날으는 금나락물결
네 맑은 수면에 비껴담고 흘러흘러
과일향기 그윽한 선경마을
더 밝은 행복의 빛으로 집집에 흘러들라

후손만대 만복을 누리도록
장군님 꽃피우시는 강성대국
뜨거운 열과 무아경의 빛이 될
어랑천호수여
홍하는 내 조국의 부강을 노래하며
천년을 흘러라 만년을 흘러라

언 제

런런히 산에 산이 솟아
으스스히 골깊은 여기
거인의 두팔로 산악을 휘어잡은듯
그 기쁨이 릉름한 언제

다가서니
속깊은 이야기 나누려는듯
가슴 설레게 하는 의젓한 그 모습
살어보니
피가 흐르고 온기가 느껴지는듯

가슴 사무치는 준엄한 세월
한줄기 내물도 나라에 보물같이 귀중해
언제여 네가
눈보라에 얼어들세라 비바람에 무너질세라
한몸 성돌이 될 마음으로
순정을 기울여온 나는 너와 류다른 사이

허리띠 조여매며
비줄기같은 땀으로 돌기돌기 쌓았지
한그람의 세멘트 한메터의 철근
한줌 모래도 피처럼 느끼며
나는 너를 두고
눈물속에 애도 태웠나니

해빛같은 미소를 안고 찾아오신
우리 장군님
눈물속에 뵈웁던 그날처럼
내 마음의 언제우에 언제나 그이 계시여
너와의 인연 더 깊어진 나!

꿈도 미래도 완공의 그날에 두고
장군님을 우러러 마음들을 불태워왔지

백두밀림 헤쳐온 항일의 투사들
포화속을 뚫고온 전화의 날 영웅들처럼
내 조국을 받든
그 정신의 결정체가 바로 네가 아니었던가

시련은 덧쌓였어도
나는 너와 떨어져 생각할수 없는
삶의 전부 둘도 없는 사랑
힘겨운 그만쯤 더 지심깊이 뿌리박으며 솟은 언제
너는 다만 언제만이 아닌 조국의 모습

격전의 불이 흐르던
그 위훈의 순간순간
맥박으로 툭툭 뛰는
생명같은 박동 너에게 있어
나와 하많은 말 할수 있고
가장 순결한 사랑도 나눌수 있어라

나는 지금 언제를 보는것인가
번영하는 강성대국의 래일을 보며 웃음짓는
자신만만한 조선의 모습을 본다
고난을 헤쳐 강성대국으로
어떻게 일떠섰는지 다 이야기할수 있는
가장 억세고
가장 위대한 선군조선을 본다

고향의 모습

강철

고향!— 조용히 입속으로 불러만 보아도 마음속엔 금시 감미로운 향수가 그윽히 풍겨와 가득찬다.

소리내어 불러보면 그 음향조차 자기의 목소리라기보다 먼곳에서 울려오는 신비한 금선의 울림처럼 아름답게만 느껴지는 그 부름!

누군들 고향을 사랑하지 않으랴만 나서자란 고향에 대한 나의 사랑은 각별한것이다.

나의 고향은 하늘아래 첫 동네로 불리우는 복변의 판모봉밑 심산오지이다.

양지쪽에 복숭아꽃 살구꽃이 만발할 때에도 음달엔 버캐 덮인 시허연 얼음이 백곰처럼 웅크리고 앉아있던 산골, 전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현대문명과 멀리 담을 쌓고 지내던 화전촌 감자바우들의 동네였다.

그 불모의 땅이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화발전과 더불어 얼마나 눈부신 전변의 자욱을 아로새겨온것인가. ...

통나무귀틀집들만 웅게중게 초라하게 비집고 들어앉았던 그 산골에 해방과 함께 빨간 벽돌집의 단층교사가 새로 섰다.

그 학교에서 공부한 우리 어머니들이 자라면서 즐겨부른 노래가 《아름다운 우리 나라》였다고 한다.

아름다운 우리 나라 참 좋은 나라
산에는 금은보화 바다엔 고기
넓고 푸른 들에는 오곡이 물결치는
아름다운 우리 나라 참 좋은 나라

생활에 대한 랑만과 희열이 차넘치던 시절이었다. 어버이수령님 주신 땅에 살아 처음 보는 대풍이 들고 염고등어 한손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던 산골에 뿔뿔 뛰는 생선이 연해연방 흘러들었다.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쓰고 살 걱정없는 생활에 대한 기쁨과 긍지, 그 생활을 마련해준 참 좋은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고마움이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그들먹이 차넘쳤고 그래서 부르는 생활의 노래 또한 한없이 흥겹고 진드러졌었다.

어머니들이 부르던 노래를 우리도 따라부르며 자랐다.

산마다 골마다 염소떼 양떼가 구름처럼 흐르고 잣나무숲 무성한 두루봉등판에선 약초를 비롯한 갖가지 보물들을 그득히 실은 달구지들이 줄줄이 흘러나오는 광경을 보며 우리는 진달래 핀 뒤동산의 원족길에서 《아름다운 우리 나라》 노래를 목청껏 불렀었다.

그러한 생활이 깃든 고향, 추억의 첫 기슭에 꽃 숲마냥, 무지개마냥 아름답게 그려진 그 고향에

다녀오는 인생의 행운이 얼마전 나에게 차례졌다. 몇해만인가.

마음 먼저 달리는 철차안에서 손꼽아 해여보니 십년하고도 또 그만한 세월이 흘렀었다.

똑바우 영세, 덜랭이 주호, 침착하고 조용하던 학수, 동네의 꼬팔새 순녀...

하나같이 초소로 달려나가 군사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그들이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있을가. 흐르는 세월속에 어느덧 그들의 귀밑머리에도 흰서리가 불리기 시작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고향마을어구에 들어서던 나는 자기 눈을 의심하며 깜짝 놀랐다.

어디를 둘러보나 선군시대 새 문화의 맛이 나게 멋들어진 풍경, 정신이 번쩍 들게 새 단장을 한 새 세기의 《젊은》 고향의 모습이 나를 맞이했던것이다.

산기슭을 따라가며 규모있게 일떠선 농촌문화주택들, 직선으로 쭉 뻗아 포장한 도로와 맵시있게 석축하고 일매지게 다듬은 방축길, 골짜기를 가로막아 일떠선 저수지언제와 그밑에 동화속의 신비경처럼 아담하게 오희 솟은 소형수력발전소건물...

그러나 그보다도 나를 더 격동시킨것은 포전마다 불길처럼 나뭇기는 붉은 기발들의 퍼덕임이었고 골안을 쨍쨍 울리는 방송차의 힘찬 음악소리, 그리고 힘과 정력을 자랑하며 여기저기로 호기있게 내달리는 트랙트르들의 거세찬 모습이였다.

목가적인 정서로 가득찼던 토색질은 어제날의 고향모습은 찾을래야 찾을길이 없었다.

《어째? 고향모습이...》

어느덧 어엿한 농장관리일군으로 자라난 어제날의 동창생 영세가 포전머리에서 나를 반겨맞으며 묻는 말이였다.

그의 목소리는 사뭇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었다.

《정말 많이도 달라졌구만.》

그러나 그 대답을 하면서도 나는 고향의 모습에서 진짜 달라진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고있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데 혈기와 랑만에 넘친 한때의 청년들이 기발을 앞세우고 웃고떠들며 나타났다.

사래긴 사흘같이포전의 김매기를 한나절에 끝내고 다른 포전으로 옮겨가는 청년분조원들이였다.

어느 청년이 누구의 자식이라고 일일이 대주어서야 알만 한 전혀 생면부지의 새 세대들이였지만 그들은 모두 반갑게 인사하며 자기네 청년분조에도 꼭 들리라고 당부하는것이였다. 《앞날의 우리

고향의 주인공들이네. 모두 끝까지지.》

그들의 뒤모습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면서 영세가 흐뭇한 어조로 말하는데 이번에는 스스로 약초밭도 가꾸고 물길도 돌보고 양수장도 관리한다고 하는 《로인분조》의 늙은이들이 나타났다.

새 세대들과는 달리 그들은 모두가 낯익은 얼굴들이었다.

어제날 나의 어머니와 함께 학교중창조에서 《아름다운 우리 나라》노래를 불렀던 영세의 어머니가 《이게 남석골집 딸이가 아니냐?》 하며 내 손을 꼭 감싸쥐더니 눈이 없어지게 웃었다. 일흔이 넘은 나이건만 정정하기가 이룰데 없었다.

로인은 지금 앞서가는 젊은이들한테 오이랭국과 콩물을 가지고간다며 자기도 농장일에 한몫 한다고 자랑삼아 말하는 것이었다.

《이제 년세도 썩 많으신데 집에서 편히 쉬셔야지요.》

나의 말에 동무의 어머니는 젊은 날의 성미 그대로 시원시원하게 대답했다.

《우리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시는 강성대국이 눈앞에 바투 다가왔는데 늙었다구 가만 앉아서 기다리기만 해서야 장군님의 백성된 도리가 되겠나. 그리구 난 원래 기쁜 일이 있으면 기다리지 못하고 달려가 마중하는 성미야.》

가식없는 산골늙은이의 그 말이 나의 가슴을 뭉클하게 울려주었다.

장군님의 백성된 도리!

기쁜 일은 달려가 마중하는 성미!

(아! 고향사람들은 바로 이런 심정으로 살고 있구나!)

무언가 알듯 하면서도 모르고있던 그것— 고향의 전변에 깃든 참다운 비결에 대한 대답이 그제서야 석연하게 안겨왔다.

그렇다. 고향사람들은 강성대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바빠 살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여 보다 좋아질 앞날에 대한 확신과 열정, 락판과 투지 그리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자기의 몫을 다하려는 값높은 자각이 늙은이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가슴에 불붙처럼 뜨겁게 차넘쳐 사뭇치며 흐르고있었다.

오늘의 행복의 향유자가 되기 전에 래일의 행복의 창조자로 살려는 고향사람들!

그러니 고향의 모습에서 진정으로 달라진것은 산천의 전변이기 전에 사람들의 사상정신과 생활기풍, 투쟁기풍에서의 변혁이었던것이다.

때늦은 자책이 가슴을 찔다.

어찌하여 수도의 들끓는 숨결속에 늘 몸을 잠그고 살면서도, 간곳마다 나뉘어있는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구호를 보면서나 나는 어제날의 고향모습만 생각하고 래일의 고향의 모습은 그려볼줄 몰랐던가.

고향의 전변에 흠 한삽, 막돌 한개라도 보탬 심

정으로 무언가 준비해가지고 올 대신 추억과 회포, 해후만을 꿈꾸면서 음식물이나 기념품만을 꿇쳐들고온 자신이 그지없이 민망스럽고 부끄러웠다.

그러나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른중에도 왜서인지 마음은 한껏 그들먹해났다.

투쟁하고 창조하고 전진하는 선군시대의 거세찬 흐름속에서 고향의 의미, 고향에 대한 표상도 달라져가고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고패쳤다.

복숭아꽃, 살구꽃 곱게 핀 속에 동심을 묻어둔 곳이라 하여, 예로부터 한자로는 연고 고자에 시골 향자로 표기해왔다고 하여 고향의 모습을 지나간날의 표상으로만 그려보는것은 어느덧 낡은 시대의 타성으로 되어버린것이다.

그가 누구든 선군시대 고향의 참다운 주인이라면 마땅히 고향을 두고 꿈꾸어온 수많은 환상과 공상을 눈부신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투쟁에 한몫기꺼이 내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참다운 고향의 주인들이 많을 때 우리의 고향들은 선군시대의 무릉도원으로 더욱 아름답게 꾸러질것이며 그런 고향들이 모이고 합쳐진 내 조국의 모습은 또 얼마나 눈부시게 전변될것인가.

나의 가슴은 흥분으로 달아올랐다.

눈앞에는 이 시각도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하신 영상이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눈부시게 떠올랐다.

그 위대한 애국헌신의 장정에 마음도 발걸음도 따라세우며 적은 힘이나마 바쳐갈 새로운 결심이 용솟음쳐올랐다.

나는 영세의 손을 뜨겁게 잡았다.

《영세, 고향이란 참 좋은 곳이지?》

《그야 두말할게 있나!》

우리는 약속이나 한듯 머리를 들어 가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우리 인민의 신념과 락판의 상징인양 푸르고푸른 저 하늘, 우리 조국의 어제와 오늘이 비껴있고 끝없이 창창한 래일의 설계도와 강성대국의 문패가 우렁이 그려져있는듯싶은 내 나라의 푸른 하늘!...

우리는 자기들의 나이를 잊고 추억의 동심에 잠겨 조용히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된 노래를 불렀다.

...

오각별공화국기 푸른 하늘 높이 나는
아름다운 우리 나라 참 좋은 나라

노래는 고향의 하늘가로 울려갔다.

그것은 내 조국의 위력에 대한 찬가였다. 이 땅에 불굴의 정신력의 강자들을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시며 선군시대 내 조국의 새 화폭을 펼쳐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다함없는 감사와 고마움의 노래,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갈 영원한 칭송의 노래였다.

금 잔 디 발 에 서

표 일

얼마전 취재길에 조선인민군의 어느 한 고사포 병구분대를 찾았던 인민군신문사에서 근무하는 나는 병사들의 흥겨운 야전오락회를 목격한 적이 있었다.

다박솔 푸르른 포진지의 평퍼짐한 잔디밭에서 병사들이 벌려놓은 야전오락회는 참으로 이채로웠다. 흥겨운 분대복제창이 나오는가 하면 익살꾸러기 분대장의 서투른 탁구알요술이 병사들을 웃기고 경쾌한 하모니카합주가 모두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였다.

오락회마감무렵에 올해 봄에 입대하였다는 젊은 병사가 지명되었다.

떠들썩한 박수속에 젊은 병사가 대오앞에 나서자 키가 큰 사관장이 굵직한 목소리로 훈수했다.

《영남동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금잔디〉 있잖아. 그 노래를 부르라구.》

《금잔디》라는 말에 금시 얼굴이 환해진 젊은 병사는 자동보총을 앞에총하더니 맑고 청청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금잔디 밟으며 첫걸음 떼고
애국가 들으며 꿈을 키운 곳
내 자란 조국이 하도 소중한
가슴에 총 안고 전호에 썼네
아 정다운 나의 조국아

우리 병사들이 자칭 《1번지정곡》이라고 하며 류달리 즐겨부르는 노래 《내가 지켜선 조국》이었다.

금잔디! 노래에 나오는 금잔디라는 단어가 나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보기만 해도, 쓸어만 봐도 그리운 고향을 상기시켜주는 금잔디.

나는 앉아있던 포진지의 금잔디를 조용히 어루쓸며 생각에 잠겼다.

청초한 들국화가 더미더미 활짝 피어웃던 내 고향의 동구밖에도 금잔디가 많았다. 가을철이면 이 포근한 금잔디밭에서 동갑이들끼리 불안고 덩굴며 승부없는 씨름도 하였고 새로 나온 과학환상소설을 읽으며 황홀한 꿈세계에 잠기기도 하였다.

군복을 입고 고향을 떠나 몸은 군사복무초소에 있어도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그 잔디밭을 밟을 수 없었다.

취오르는 장판지를 손칼로 찌르며 극한점을 극복해야 했던 신입병사시절 강행군의 힘겨운 나날에도 나의 눈앞에서 자주 얼른거리던 금잔디였고

대줄기같은 장마비에 무너져내리는 전호를 어깨로 떠받드는 속에서도 왜서인지 잊혀지지 않던 고향의 금잔디였다.

문득 뜻하지 않은 일로 적구에 들어갔다가 원수놈들과 굴함없이 싸워 조선인민군병사의 굴함없는 신념과 기개를 보여주고 승리자로 돌아온 최전연 초병을 만났던 때의 일이 떠올랐다.

적의 소굴에서 원수와 용감히 싸워이기고 돌아올수 있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고 묻는 나에게 병사는 얼굴을 붉히더니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투근무수행중 갑자기 불어난 물살에 적구로 떠밀려가게 됐을 때 난 강기슭의 풀뿌리를 꼭 잡았었습니다. 창황중에 얼핏 내려다보니 글썽 금잔디가 아니겠습니까.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고향의 아버지, 어머니, 녀동생이 나를 지켜보는것만 같았고 초소의 정다운 지휘관들과 전우들이 힘을 주는것 같았습니다.》

병사는 조용히 계속했다. 여느때 그렇게 평범하게 보이던 그 금잔디가 고향처럼, 조국처럼 느껴지더라고.

그날 병사의 말에 나는 얼마나 커다란 충격을 받았던가.

병사에게 자기가 지켜선 사랑하는 고향처럼 어머니조국처럼 느껴진 금잔디, 별로 화려한 꽃나무도 아니고 희귀한 식물도 아니지만 살붙이처럼 느껴진 금잔디였다.

아마도 병사는 생각했으리라. 그리고 마음속에 경건히 떠올렸으리라.

선군혁명실록에 잇을수 없는 장으로 수록된 뜻깊은 전선시찰의 어느날 한 최전연부대를 찾으시여 장병들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시는 좌석에서 몸소 노래 《내가 지켜선 조국》을 재창하시며 병사들이 제일 즐겨부르고 자신께서도 좋아하는 노래라고 높이 평가해주신 우리 장군님의 영상을.

정녕 이 노래는 우리 장군님께서 결전의 날 총포탄육탄용사가 될 천만병사들의 가슴속에 신념으로 채워주신 애국의 만장약이였고 불이였으며 용암이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 병사들은 가슴저리게 체득하였다. 오탁백과 물결치는 고향의 금잔디우에서 너와 나 엄마의 손을 잡고 인생의 첫걸음마를 떼었다면 혁명의 총을 잡고 조국보위초소에 선 오늘에는 어버이장군님의 품속에서 조국을 위한 정보를 배웠고 병사 내가 지켜선 조국이란 바로 정의의 위대한 수호자이신 우리 장군님이시라는

것을.

젊은 병사가 부르는 저 노래는 단순히 수호자의 심정만을 구가한 노래가 아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내 나라, 내 조국의 강성부흥을 위하여 천신만고를 달게 여기시며 시련의 고비고비를 수없이 넘고헤치신 우리 장군님에 대한 칭송의 찬가이다.

위대한 수호자이신 우리 장군님 계시었기에 내 고향의 금잔디도 그렇게 병사들 가슴에 유정하게 남아있을수 있었고 내 집에 띄웠던 공화국기발이 오늘도 변함없이 그렇듯 자랑스럽게 나뭇길수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지켜선 조국》의 서정깊은 노래선율이 이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누구나 사랑하는 지정곡으로 간직되어있는 혁명적대고조의 시대.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12월호소를 높이 받들고 천만군민이 피워올린 《강선의 붉은 노을》이 온 나라에 비끼고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가 선군의 위용을 파시하며 우주로 날아올랐으며 강성대국의 찬란한 미래를 그려보이며 평양의 밤하늘에 피어난 축포의 화려한 불꽃이 세계를 격동

시키고 온 행성을 뒤흔들며 우리 나라를 무시할수 없는 강국으로 도약시킨 지하핵시험의 성공은 오늘도 거대한 메아리를 일으키고있다.

강성하는 조국, 부흥하는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우리 무엇을 아끼랴, 무엇을 서슴으랴.

우리모두 애국의 심장을 바치자, 애국의 뜨거운 사랑과 열을 바치자, 한없이 귀중한 어머니 나의 조국에! 행복의 금잔디 깔아 첫걸음 떼여주고 람홍색기폭에 싸안아 어엿하게 키워준 한없이 고마운 어머니조국에.

가없이 높고 푸르른 하늘아래 금잔디우에서 부르는 병사들의 노래는 저 멀리로 높이높이 울려간다.

해와 별 빛나는 조국이 없인
고향도 가정도 나도 없으리
한없이 귀중한 그대를 지켜
내 한생 총잡고 초소에 살리
아 정다운 나의 조국아

아, 금잔디, 금잔디. 사랑하는 어머니 내 조국
이여.

수 필

잠 들 수 없는 밤

리 승 두

흥하는 집에는 복이 쌍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있다.

원산청년발전소의 완공으로 전기걱정을 모르고 살게 되니 집집의 창가마다에서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그칠새 없는데 여기에 또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깊은 사랑속에 시내의 불장식이 완성되어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명절분위기이다.

더우기는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다종다양한 불장식으로 분야성을 이룬 원산시의 야경을 몸소 부감하시고 전기화가 실현된 도시에서 행복을 누리는 시민들의 삶을 축복해주신것으로 하여 온 시내가 감격과 기쁨으로 설레이고있다.

이 항구문화도시의 저녁이면 이채로운 불장식을 한 시내의 야경을 구경하기 위해 해안광장 부두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류다른 풍경이 펼쳐지고있다.

며칠전 내가 퇴근하여 집에 들어서니 집사람이 달려나오며 《여보, 좀 빨리 오시구려. ... 당신이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하고 애원 절반, 나무람 절반의 어조로 말한다.

《왜 누가 왔소?》

나는 혹시 반가운 손님이라도 오지 않았는지 해서 다우쳐물었다.

《오기는 누가 와요? 온 가족이 불장식을 구경가자고 기다리는중인데 당신이 와야 떠날게 아닌가요.》

《불장식을 구경한다구?... 허허...》

나는 허거픈 웃음을 터쳤다. 창문을 열면 시내의 불장식이 한눈에 보이는데 구경을 간다는게 무슨 말인가.

내가 공연한 일이라고 말했더니 집사람이 대뜸 《여기 창문에서 보는건 한쪽 측면이고 장덕섬에 건너가서 봐야 진짜루 불장식의 전모를 다 볼수 있단 말이에요.》 라고 오금을 박는다.

하여 우리 집 가족들은 불장식한 도시의 야경을 부감하려고 집을 나섰다. 마치 정월대보름날 달구경가듯.

아들, 며느리는 물론 안해까지도 명절웃차림을 하고 흥이 나서 걷는다. 옆에서 걷는 손자 손녀애들은 신이 나서 깡충거리며 뛴다.

우리 가족은 장덕섬유원지의 줄다리우에 서서 먼저 나온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불장식한 원산시의 야경을 부감하게 되었다.

바다 한가운데서 바라보는 원산시의 밤경치는 참으로 장관이다.

《할아버지, 동명산에 있는 집들은 하늘로 솟아

오르는것 같아요.》

《아니예요.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는것 같아요.》
손자 손녀가 동명산의 이채로운 불장식을 보며
싱겁이질을 한다.

《그래그래... 꼭 동화속의 동산에 온것 같구나.》
나는 그저 무작정 애들의 말을 긍정해주었다.
이 황홀경을 무엇이라 말과 글로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바다물속에 기둥을 박고 솟아난듯 한 부두가에
늘어선 고층건물들의 이채로운 불장식이며 각이한
모양의 축포등과 무리등은 바다속에 또 하나의 휘
황한 불빛도시를 그려놓고있었다. 검푸른 하늘
을 불태우며 동명산에 솟아오른 고층건물들은 불
빛조명을 받아 거대한 수정기둥을 세워놓은듯싶었
다. 바다도 땅도 하늘도 온통 불천지다. 보면 불
수룩 신비경에 끌려들어가고 아무리 보아도 거대
한 하나의 예술품을 감상하는듯 싫증을 느끼지 못
하겠다.

아! 이제 정녕 내가 사는 원산시란 말인가!

신비경을 이룬 도시의 불야성을 바라보느라니
저도 모르게 《고난의 행군》시기 때없이 전력공
급이 잘 안되어 무척 안타깝던 일이 떠오른다.

아이들이 등잔밑에서 잘 보이지 않는 굴줄을 더
듬으며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등잔심지처
럼 바질바질 타들어갈 때 우리는 오로지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여 불빛 휘황한 래일이 꼭 오리라는
신심과 희망만은 잃지 않고 자기 초소와 일터를
지켜 싸웠거니.

그 래일이 우리앞에 이렇게 현실로 펼쳐졌다.

나의 눈앞에는 지난 1월 완공된 원산청년발전소
를 찾으셨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떠
오른다.

온 나라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퍼주신 새로
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강성대
국의 대문을 열어젖히기 위한 최후공격전을 벌리
고있는 때 그이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기다리는 일
인들 그 얼마이고 찾으셔야 할 곳인들 얼마이라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새해 정초에 원산청년발전
소를 찾아주시었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마식령의 산발
을 타고 내려온 철관로들과 경쾌하게 돌아가는 발
전기들을 자애로운 눈길로 바라보시고나서 강
원도인민들이 자체의 힘으로 이처럼 큰 공사를 해
낸것은 대단한것이라고 하시며 강원도인민들은
《자력갱생의 선구자》들이라는 최상의 믿음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분에 넘치는 믿음과 사랑의
말씀을 받아안은 도내인민들은 마음속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었다. 한것은 원산청년발전소를 건
설할수 있었던 자력갱생의 정신력을 안겨주신분도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고 설계로부터 시공에 이르
기까지 하나하나 방도를 일깨워주신분도 다름아닌
경애하는 장군님이시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설계문건을 보
시고 원산시에 전기화를 할수 있게 통이 큰 건설
을 하도록 설계를 교쳐주시고 시공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를 주시었다.

그리고 마식령의 험한 산발을 넘으시여 언제공
사현장을 찾으시고 언제를 일떠세우는 강원도인민
들의 고충을 헤아리시여 수많은 대형자동차들과
기계화수단들을 보내주시는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
주시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은정어린 배
려가 없었다면 오랜 기간 걸려야 한다던 공사를 어
떻게 5~6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해낼수 있었으랴.

그러나 발전소건설이 완공되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 모든 성과를 강원도인민들에게
돌려주시고 그것도 부족하신틀 전기화된 원산시에
불장식을 할데 대한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신것
이었다. 그러시고 불장식이 완성되었다는 보고
를 받으시고는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몸소 이채로
운 불장식으로 불야성을 이룬 원산시의 전경을 부
감하시었다.

나는 불빛찬란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어
지는 생각을 금할수 없었다.

우리 도시의 불야성, 이것은 한갓 장식이 아니
다. 자력갱생의 힘으로 발전소를 일떠세운 강원도
인민들을 온 나라에 높이 자랑하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최상의 표창이다.

나는 뜨거워지는 마음을 진정할수 없어 파도소
리 소연한 방파제우를 오래도록 거닐었다.

자신께서는 우리 인민들을 기어이 강성대국
의 무릉도원에 앉히시려고 대소한의 날씨에도,
삼복철의 무더위도 아랑곳 않으시고 쉬임없이 현
지지도의 강행군을 하시면서도 우리 인민들이 이
룩한 성과에 대해서는 작은것도 크게 보시고 그
토록 만족해하시며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아버지사랑이 헤아려져 가슴은
마냥 설레이었다.

나의 눈앞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우리 인민들
에 대한 뜨거운 믿음과 헌신적인 사랑이 있어 조
국땅 방방곡곡에서 150일전투의 매 순간마다 기
적이 창조되고 선군시대의 창조물들이 도처에 키
돋움하며 솟아나는 전경이 환히 안겨온다.

이 무진장한 위력이 총발동되어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일심단결된 우리 인민은 기어
이 강성대국의 령마루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게
되리라는 굳은 확신이 온몸에 차넘치었다.

그날의 고향도시의 모습은 또 얼마나 몰라보게
달라질것인가. 정녕 잠들수 없는 밤이다.

의병장 류린석과 그의 반일애국시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 이름있는 작가나 작곡가, 화가도 있고 인류문화의 보물고에 기여한 명작도 있다는것을 세상사람들이 알게 하여야 한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민족문화에술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켜나가게 하자면 우리 나라에 이름있는 작가나 예술가가 있다는것을 알려주는것이 중요하다.

류린석은 거의 반생을 반일의병투쟁에 바친 근대 우리 나라의 권위있는 의병장의 한사람이었으며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문학작품들을 수많은 창작한 이 시기 대표적인 시인이었고 정론가였다.

류린석은 1842년 3월 강원도 춘천부의 봉건 유생가정에서 태어나 호를 의암이라고 하였다. 그는 1896년부터 주체2(1913)년까지 근 20년간 반일의병투쟁을 벌리다가 주체4(1915)년 3월 중국동북지방에서 생을 마쳤다.

류린석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의병투쟁을 벌리는 간고한 속에서도 수많은 문학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의 저서로는 《의암집》과 《소의신편》이 전해지는데 거기에 실린 많은 시편들과 격문들에는 그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애국적열정을 보여주고있다. 특히 류린석은 엄혹한 시련기에 처했던 당시 우리 나라 현실에 깊이 침투하여 자기의 애국적체험을 시에 담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우선 의병들과 인민들이 침략자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나설것을 호소하는 작품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대표적작품들로는 《의병장의 기발을 들라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좇아서》, 《칼을 갈아서》, 《의병들에게》, 《여러 벗들을 격려하여》, 《국내인민들에게》 등을 들수 있는바 류린석은 일제침략자들과는 굴종타협하거나 엄중한 시국앞에서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것은 결국 민족과 자신을 망쳐버리는 근본으로 된다고 하면서 인민들을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불렀다.

시 《의병장의 기발을 들라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좇아서》는 일제놈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려는 애국의 정열과 멸적의 기상을 노래하고있으며 《국내인민들에게》에서는 야수와 같은 식인종이 기여들어 우리 인민이 생사기로에 놓였다고 하면서 전체 인민이 떨쳐나 애국정신을 발휘하자고 호소하고있다. 또한 시 《의병들에게》에서는 전민이 단합하여 승리에 대한 신심을 잃지 말고 국권회복을 위한 결사적인 투쟁을 벌려나가자고 호소하고있다.

투쟁을 고취하고 호소하는 그의 시작품들에서 일제놈들을 저주규탄하는 시들이 또한 중요한 자

리를 차지한다.

일제놈들을 끝없이 증오하고 규탄한 작품으로는 《왜놈은 원쑤로다》, 《원통한 마음 못 이겨 통곡하노라》, 《왜놈 〈천황〉과 이등박문을 저주하며》, 《오랑캐는 짐승이 분명하다》, 《느낌을 쓰노라》가 대표적이다.

시 《왜놈은 원쑤로다》에서는 야수와 같은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우린 조선을 사랑하니 왜놈은 원쑤라고 하면서 왜놈의 입과 머리, 온몸은 물론 놈들의 정치가 더 밍다고 웨치고있다.

원쑤 일제에 대한 증오심은 1910년 《한일합병조약》소식을 듣고 지은 시 《원통한 마음 못 이겨 통곡하노라》에서 더욱 고조되고있다.

시는 일제에 의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된 가슴아픈 현실을 직접 체험하면서 원쑤들에 대한 증오와 격분의 감정을 폭발시키고있다.

아아! 원통하구나 아! 통분하도다

하늘땅이 무너지고 해와 달도 빛을 잃었구나
저 원쑤놈들 저 추악한 놈들과

《합병》을 하다니 이 무슨 소리나

시인 류린석은 나라를 완전히 왜놈들에게 먹히운 참혹한 현실에 부닥쳤을 때 하늘이 무너져내리는 허탈감과 해와 달도 빛을 잃어 헤어날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듯 한 절망감에 몸부림치면서 오늘의 이 현실을 빚어낸 승냥이일제에 대한 증오와 저주의 감정으로 가슴을 팡팡 두드리고있다. 하기에 서정적주인공은 피맺힌 《저 흉악한 원쑤놈들과 〈합병〉을 하다니 아 원통하고 통분하구나》라고 절규하고있다.

시에서는 형상적인 비유와 표현에 기본을 두지 않고 시인의 가슴속에 용암처럼 끓어번지는 원쑤 일제에 대한 적개심을 직접적으로 강렬하게 터치는 수법으로 사상적내용을 강조하면서 저주와 규탄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류린석은 이밖에 일제의 주구로 전락된 친일 매국노들의 추악한 행위를 단죄한 작품들과 나라를 위해 순국한 렬사들의 애국적소행을 찬양한 시들을 비롯하여 나라의 독립에 대한 뜨거운 념원과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노래한 시 860여수를 남겼다.

류린석의 시작품들에는 봉건유생으로서 봉건적충군사상과 유교도덕에 기초한 봉건국가를 유지하려고 한 제한성이 있으나 그의 시문학은 사상에술성에 있어서나 작품수에 있어서 이 시기 한자시문학을 대표하고있으며 당대 반일애국문학연구의 귀중한 밑천으로 되고있다.

리 철 규

17-18세기 고전단편소설에서 반침략 애국주의정신을 체현한 인물형상

17-18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고전단편소설들이 많이 창작되었는데 그중에는 반침략애국주의정신을 반영한 고전단편소설들도 특징적인 하나의 부류를 이루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예로부터 침략자들이 쳐들어올 때 마다 조국을 보위하는 성스러운 싸움에 한사람 같이 일어나서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쳤으며 조국을 영웅적으로 방위하면서 반만년의 슬기로운 역사를 창조하였습니다.》

외래침략자들은 력사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왔으나 한번도 우리 인민의 애국심과 용감성을 꺾지 못하였으며 우리 인민을 굴복시킬 수 없었다.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는 고전소설 《임진록》, 《박씨부인전》, 《림장군전》은 임진조국전쟁과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반침략투쟁을 주제로 한 소설들이다. 이 작품들은 인민들의 애국투쟁과 애국사상을 묘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애국적명장들의 공로와 애국심으로 가리우며 사대주의적립장을 보여주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의 반침략애국주의모습을 반영한 작품으로서 일정하게 문학사적의의를 가진다.

이 고전소설들은 이미 많은 출판물들에 언급되었기때문에 여기에서는 논의하지 않고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고전단편소설들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이 시기 창작된 고전단편소설에서의 인물형상에서 주목되는것은 최하층출신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를 애국명장으로 그리고있는것이다.

고전단편소설 《정기룡》에서 주인공 정기룡이가 그 대표적인 인물형상이다. 소설은 패설집 《동패집》에 실려있으며 주인공의 이름을 그대로 소설의 제목으로 하고있다.

정기룡은 어느날 주인이 낮잠을 자고있을 때에 《신분해방》이라고 고함을 지르는데 주인도 무엇인가 생각되는것이 있어서 그의 욕망대로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주고 진주의 부자집녀인과 결혼까지 시켜준다. 정기룡의 이러한 형상은 이 시기 급격하게 일어난 봉건적신분제도에서의 변화를 보여준다.

봉건통치배들은 저들의 특권적지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서 노비들에 대한 신분적차별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러나 노비들은 노비문건을 불사르고 도망치기도 했고 또 도망한 노비들을 추격하

는자들을 처단하는 등 봉건신분제도의 차별을 반대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였다.

노비들의 반항이 이와 같이 격화되자 봉건통치배들은 심각한 통치위기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자기들의 신분적처지에 대하여 깊은 원한을 품고 살아오는 노비들에 대하여 왕실의 《성은》을 보여 주어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하였다.

이와 함께 봉건통치배들은 노비들을 랑민으로 만들어 군포에 얹어매어 수탈할데 대하여서도 생각하고있었다.

이리하여 봉건국왕은 궁노비 3만 7천여명과 공노비 2만 9천여명을 일시에 방랑(노비들을 랑민으로 되게 한다는것)한다는 선포를 내렸다.

물론 이 노비의 방랑은 우리 나라에서 노예제의 종말을 의미하는것은 아니였지만 이것은 오랜 세월 존재해오던 봉건적신분제도의 큰 균열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고전단편소설 《정기룡》에서 노비출신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인간성격의 탐구를 조건짓게 하였던것이다.

작품에서는 정기룡을 노비신분에서 《해방》시켜주고 부자집 딸과 결혼까지 시켜준 주인을 《어진 량반》으로 그리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진 량반》의 선도 도의도 아니며 변천된 환경에서 저희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에 나선 피압박대중의 투쟁의 결과이며 부득불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수밖에 없었던 봉건관료들의 처지를 보여준 형상이라고 볼수 있다.

이 소설의 인물형상창조에서 보여준 근본문제는 정기룡의 반침략애국주의적성격이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정기룡은 부인의 도움으로 무술을 익히게 된다.

중세초기 고전소설 《은달전》에서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시집을 와서 준마를 사주고 무술을 익히도록 도와주어 나라의 훌륭한 장수로 자라도록 도와준 내용과 이 소설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그후 정기룡은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나자 용약출병하여 전장에 나가 용감하게 싸우며 단신으로 적진에 뚫고들어가 적들을 치고 왜적 30여명을 포로하는 공을 세운다.

이로 하여 정기룡은 봉건국가에서 벼슬을 하사받아 지방군을 통솔하는 경성명마절도사(북병사)로까지 승진한다.

이와 같이 고전단편소설 《정기룡》에서는 노비

신분의 한 인간이 왜적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용맹을 떨치고 장수로까지 되는 이야기를 통하여 인민들속에서 나온 애국자의 성격을 창조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물론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봉건판료가 된 주인공이 자기의 처지가 개선된데서 만족을 느끼고 봉건제도를 반대하여 투쟁을 벌이지 않은 제한성은 있으나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용맹을 떨친 최하층 평민출신의 성격을 창조한것은 이 시기 소설발전에서 중요한 성과로 된다.

다음으로 이 시기 창작된 고전단편소설들에서는 임진왜란이나 병자전쟁때에 우리 민족이 겪은 고난과 그속에서도 민족의 넋을 잃지 않고 자기 조국에 대한 애국적지조를 발휘한 인간들의 새로운 성격형상도 탐구되었다.

이러한 소설들에서 탐구된 주인공들은 전장에 나가서 직접 무장을 들고 싸운 애국적명장도 아니며 반침략투쟁에 나선 무사도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쟁중에 갖은 고통과 수난을 당하면서도 애국적지조를 지켜낸 인간들이다.

그러한 대표적인 실례로는 고전단편소설 《묘》와 《호접》 주인공들의 형상을 들수 있다.

이 두 소설은 임진조국전쟁과 병자전쟁때에 적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가 수십년만에 자기 고향에 돌아와 부모처자들을 만나는 《기연기봉》류의 소설로서 두 소설의 이야기는 대체로 류사하다. 고전단편소설 《묘》(무덤)는 고전문집 《동패략송》에 실려있다.

소설에서는 어찌보면 주인공의 아버지의 묘자리를 잡아준 리생원의 예언이 적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풍수설을 말하는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임진전쟁때 적의 포로가 되었던 주인공의 인생담을 통하여 그의 열렬한 조국애를 인상깊게 보여준 동시에 왜놈들의 야수성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고있다.

서울의 한 벼슬아치의 세 아들은 임진전쟁때 왜놈들에게 포로가 된다. 왜놈들은 세 아들중 두 아들은 포로한 자리에서 무참히 칼로 쳐죽이며 막내아들은 왜장놈이 왜국에 끌고가 양자로 삼는다. 그러나 주인공은 일본땅에서의 귀공자대우보다도 떠나온 조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나날을 보내던 중 30여년만에 일본땅을 몰래 빠져나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

소설에서는 어머니의 몸에 있던 7개의 기미와 첫날밤 자기 안해의 머리에 모란꽃가지를 꽂아준 사실을 되살려 그리운 안해와 아들을 만나는 《기이》한 방식을 취하고있다.

이처럼 소설의 주인공은 직접 무기를 들고 왜놈들과 맞서 싸운 적극적인 인간성격은 아니지만 30여년세월을 왜나라에서 생활하면서 민족적멸시를 받았으나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기어이

조국으로 돌아오는 애국적감정의 소유자인것이다.

고전단편소설 《호접》(호랑나비)의 주인공도 우와 류사하다.

이 소설은 폐설집 《청구야담》에 실려있으며 병자전쟁때에 있는 사실을 소재로 하고있다.

소설의 주인공 박씨소년은 서울 남촌에서 살았는데 류진사의 딸과 결혼한 다음날에 침략자들에게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된다. 그의 포로생활은 노예생활과 다를바 없었다. 이러한 치욕스러운 노예생활을 40여년이나 강요당한 그는 그리운 고국, 부모처자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빼에 사무치게 느끼며 죽음을 각오하고 탈출하여 돌아온다. 고향에 돌아온 주인공은 판서가 된 아들을 만났으나 그가 자기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자 첫날밤 혼수보자기에 새겨진 호랑나비의 무늬와 색깔에 대한 이야기, 어머니의 치마에 담배불구멍을 낸 이야기를 통하여 서로 뜻깊은 상봉을 하게 된다.

이 두 작품의 주인공들의 성격은 서로 류사하며 또 적들에게 포로가 되었다는 의미에서도 반침략 애국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이들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되어있는 부모처자, 고국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애국의 감정은 외래침략자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이외에도 고전단편소설에서는 우리의 령토를 엿보는자는 그가 누구이든 조선인민의 억센 기상앞에 기어이 무릎을 꿇게 하고 항복을 받아내고야마는 굴하지 않는 우리 인민의 넋을 보여준 애국적성격의 소유자의 모습을 실감있게 그린 작품들도 있다.

다음으로 고전단편소설에서는 의인화의 수법으로 임진, 병자전쟁을 통하여 높아진 인민들의 반침략애국주의사상을 힘있게 강조한 작품들도 있는데 고전의인단편소설 《의승기》가 그 대표작으로 된다. 작품은 17세기의 작가 립영의 문집 《창계집》에 실려 오늘까지 전해진다.

소설에서는 주인공 천군(사람의 마음을 의인화한 것)을 왕으로 그렸는데 천군은 국방에 관심을 돌리지 않고 《태평성대》만 구가하다가 외적이 쳐들어오자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한몫의 안전만 생각하면서 인적없는 곳으로 도망쳐 10년간 방랑생활을 한다. 이것은 왜적의 침략을 눈앞에 두고도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지 않고있다가 비겁하게 의주로 도망간 선조왕을 비롯한 부패무능하고 비렬한 봉건통치상층집단에 대한 비판이며 조소이다.

임진조국전쟁에서 우리 인민이 거둔 승리의 요인은 전적으로 인민들의 애국적투쟁의 결과에 의한것이였다. 그러나 봉건통치배들은 그후에도 국방에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아 우리 나라는 17세기 20년대와 30년대에 대대적인 외적의 침략을 받게 되었다. 이때에도 부패무능한 봉건위정자들은 강화도로 또다시 도망쳐갔으며 굴욕적인 화

의까지 맺었다.

왜적과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여러차례의 전쟁을 통하여 인민들과 애국적선비들은 나라의 국방을 강화할데 대한 요구를 강력히 제기하였다, 작품에서 천군이 늦게나마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옳은 인재를 선발 등용한다든가 그후 군사를 일으켜 적들의 소굴을 들이쳐 그놈들을 제압한것은 국방력을 강화할데 대한 이 시기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볼수 있다.

고전단편소설 《의승기》는 복잡한 인간관계 설정이 없고 몇개의 사건세부를 통해 시대의 절박한 사회정치적문제를 심오하게 반영한 점에 있어서 이 시기 우수한 의인소설이라고 할수 있다.

이상과 같이 17-18세기에 창작된 고전단편소설들에서 지난 시기에는 볼수 없었던 애국적형상이 새롭게 창조된것은 이 시기 소설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형상이었다.

진 정 학

자 료

시인 김조규와 산문시 《전선주》

김조규〔주체3(1914)－주체69(1980)〕는 해방 전부터 진보적인 시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 우리 시단에 잘 알려져있는 이름난 시인의 한사람이다.

시인은 주체3(1914)년 1월 20일 평안남도 덕천군의 가난한 농가에서 출생하여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평양에 이주하여 평양숭실학교를 거쳐 주체26(1937)년에 평양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는 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간도로 가서 주체32(1943)년까지 연길현 조양천에서 사립학교의 영어, 력사교원으로 일하였다.

그의 초기창작은 1930년대초부터 시작되었다.

주체20(1931)년 8월 《조선일보》에 처녀작으로 《그리운 마음》을 발표하였으며 그해 10월 잡지 《동광》에서 《검은구름이 보일 때》가 1등으로 당선된것을 계기로 하여 시창작의 길에 들어섰다.

그는 해방전에 시창작활동을 적극 벌려 수백편의 시작품을 썼다.

특히 그가운데서 해방전에 창작한 산문시 《전선주》〔주체30(1941)년 2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을 직접 노래한것으로 하여 그의 시작품에서는 물론 해방전 진보적시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카프〉 출신의 문인들이 감옥에 끌려가거나 산간벽지로 쫓겨가고있을 때 항일혁명대오안의 지식인들과 함께 북부국경지대의 작가들과 중국본토의 적색구역, 사회주의소련에서 활동하던 우리 나라의 망명작가들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위업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참신하고 전투적인 혁명문학을 창조하였다.

그들은 백두의 험산준령과 만주광야에서 혈전에 혈전을 거듭하고있는 항일투사들을 민족의 총아로 높이 내세우고 찬양하면서 그들에 대한 사랑과 동

정을 아낌없이 표시하였다.》

산문시 《전선주》는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지지와 공감을 노래한 시작품들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고 말할수 있다.

더우기 일제에 의하여 우리 나라 프로레타리아문학단체인 《카프》가 강제해산당하고 진보적인 작가들에 대한 놈들의 탄압이 더욱 강화되면서 《국민문학》(전향문학)이 강요되던 시기 1940년대에 항일무장투쟁을 노래한 《전선주》와 같은 작품이 창작되었다는것은 매우 주목할만 한 일이다.

산문시 《전선주》는 해방전 시인의 생활체험, 특히 간도에서의 항일무장투쟁현실에 대한 시인의 직접적인 체험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혁명적인 숨결과 기상이 더욱 힘차게 나래치고있다.

당시 시인이 교편을 잡고 생활하면서 시를 쓰던 간도의 조양천과 룡정은 연길지방에서도 항일무장투쟁의 영향이 크게 미치던 곳으로서 이곳에서의 직접적인 체험은 《전선주》와 같은 훌륭한 작품을 창작할수 있게 한 정서적바탕으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1920년대에 혁명조직들이 결성되고 선진사상의 보급사업이 활발하던 룡정은 항일혁명투쟁이 적극 벌어지던 1930년대에 와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적극 원호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조양천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찾아오시여 당시 이곳에서 《봉춘당 약방의사 김춘봉》이라는 간판을 걸고 혁명사업을 하던 림춘추동지를 처음으로 만나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뜻깊은 곳이다.

항일무장투쟁의 숨결이 거세차게 높뛰던 룡정과 조양천에서 시인의 생활은 보는것, 듣는것모두가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성스러운 항일무장투쟁과 관련된것들이였으며 혁명조직과 혁명가들, 인민들이 벌리는 투쟁과 원군활동은 이 전까지 그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세계였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속에서 현실을 체험하고 혁명적영향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과정에 시인은 항일의 전선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그이께서 조직령도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으며 그들이야말로 《민족의 총아》, 진정한 인민의 아들딸들로서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이룩하고 해방의 새날을 안아올 참다운 애국자, 용감한 투사들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하게 되었다.

일제의 탄압이 절정에 오른 시기에도 얼음장밀을 흐르는 강물처럼 세차게 격류하는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공감,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어린 축적된 생활체험의 분화구를 거쳐 시인은 마침내 《전선주》의 서정세계를 펼쳐보였다.

산문시 《전선주》에는 항일무장투쟁의 장엄한 현실과 항일유격대원들의 영웅한 모습이 방불하게 그려져있으며 그들의 간고하고도 영웅적인 투쟁과 아름답고 숭고한 사상정신세계가 훌륭히 형상되고있다.

작품에서 시가 주는 일반적인 표상은 한겨울 눈 내린 길거리에 우뚝 서있는 전선주의 모습에 대한 시인의 느낌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적정황을 방방곡곡으로 뻗어나간 전선주에 의탁하여 항일혁명투쟁소식을 전하려는 서정적주인공—시인의 절절한 심정을 토로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시의 서정세계를 음미해보면 작품은 천, 만을 헤아리는 깊은 사연과 뜻, 영웅적인 대상을 시화하는 시인의 환희와 격정의 숭엄한 감정이 파도치고있다.

시는 크게 세 단락으로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다.

시의 첫 단락에서는 추위속에서도 눈우에 서있는 전선주의 모습을 그리고있는데 그것을 두고 노래하는 시인의 감정은 매우 착잡하며 의미심장하다.

겨울의 찬바람에도, 쏟아져내리는 눈에도 끄떡없이 《장승처럼 우뚝 서》 외롭고 처량하게 보이는 전선주, 그러나 시인에게 있어서 그 전선주는 단순히 늙고 쇠잔하여 오가는 눈비를 다 맞으며 묵묵히 서있는 한갓 자연대상만은 아닌것이다.

《... 고정한 너의 〈로코스〉를 슬퍼함이나?》

《아니면... 바람을 부러워함이나?》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러한 수사학적물음이 주는 여운이 무엇인가를 음미해보면 전선주는 분명 이성도 있고 이 《세상 더럽고 추악한 모든것》에 대한 혐오와 경멸감도 가지고있는 존재라는것이다.

여기서 전선주의 의인화된 이러한 형상은 자유를 구속당하고 억제당할채 보고 느낀 모든것을 전하지 못해 안타까이 몸부림치는 시인의 심장의 목소리도 들리며 웅심깊은 그의 내면세계도 보게 된다.

그러하여 시인은 마침내 자기가 알고 마음속에 고이 묻어두었던 사실, 세상에 소리쳐 알리지 않

고는 더는 견딜수 없는 경이적이고 감격적인 소식을 방방곡곡 뻗어간 전선주에 의탁하여 뜨겁게 전하는것이다.

시의 첫 단락에 이어 둘째, 셋째 단락에서는 바로 시인의 가슴속에 가득차있어 사람들에겐 아되고 싶었던 영웅적사변, 감동적인 사실, 조국의 장한 아들딸들에 대한 숭고한 이야기를 함축과 비약으로 웅심깊게 펼쳐보였다.

여기서 시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장엄한 현실을 보며 백두밀림에서 조국해방을 위해 억세게 싸워나가는 항일혁명투사들의 불굴의 모습을 보게 된다.

시인은 가슴속에서 하고싶었던 수많은 이야기를 의미깊게 열, 백을 대신하는 하나로 펼치였다. 이것은 하고싶은 말도 할수 없었던 당시의 시대적환경과도 관련된다. 그러나 시인은 그 하나하나의 표현, 세부들에서 성스러운 항일무장투쟁현실과 항일혁명투사들의 모습이 충분히 비끼게 하였다.

《눈보라 기승치는 이런 밤이면 의례 밀림》에서 울리는 요란한 《총소리》와 거세차게 타오르는 《우등불》, 그것은 바로 《매맞아 죽은 아버지와 굶어죽은 어머니, 불타죽은 동생의 원한》을 담아 울리는 《총소리》, 타오르는 《우등불》인것이다.

여기에서 시인은 강도 일제침략자들에게 부모처자와 고향도 다 잃고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용약 항일대전에 떨쳐나선 항일투사들의 영웅한 모습을 그렸던것이다.

시인은 일제격멸의 성스러운 항일전장과 유격대원들의 모습을 《말없는 천년원시림이 새겨안고있고》 그들이 지퍼올린 우등불에서 거목들이 《어깨를 비비며 하늘높이 내뿜는》다고 표현함으로써 증오의 불길로 일제를 쳐부실 항일유격대원들의 충천한 기세와 불타는 투지를 상징적형상으로 훌륭히 일반화하였다.

시인은 특히 마지막단락에서 항일유격대원들의 정의롭고 위풍당당한 투쟁모습을 정서적으로 품위있게 노래하였다.

여기서는 《총을 멘》 항일유격대원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그리면서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잃어버린 고향땅의 한줌 흙》이 소중히 간직되어있고 그들이 《선혈로 흰눈을 물들이며》 가는 《백두산 밀림속》의 길은 《조상의 옛 기억을 찾기 위한 길, 일제에게 빼앗긴 고향과 조국을 찾고 조국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길》이라는것을 신심에 넘쳐 노래하였다.

특히 둘째 단락에서 밀림속에서의 《총소리》와 《우등불》, 《매맞아 죽은 아버지와 굶어죽은 어머니와 불타죽은 동생의 원한이 그 불길》에 이어 셋째 단락에서 보여준 《총을 멘 그의 아들딸들》

이 《고향땅의 한줌 흙을 가슴깊이 소중히 간직하》고 《백두산 밀림속을 걸어가》는데 대한 시적형상은 백두의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 따라 총대높이 조선혁명의 승리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이 나라 수천만 아들딸들의 위풍당당한 모습과 그들이 지닌 투철한 계급성과 열렬한 조국애, 밝은 앞날에 대한 확신과 량만을 풍부한 정서로 노래하면서 그들이야말로 조선혁명의 성지 백두산을 주름잡으며 강도 일제를 쳐부시는 조선의 빨치산들이라고 힘있게 형상하였다.

시에서는 첫 단락에서 전선주를 정황적으로 제시하고 다음단락들에서 《…그 소리를 전선주, 너는 통신하며 밤새껏 뽕뽕거리는게 아니냐》, 《전선주, 너는 그 소식 전하러 대륙을 바느질하며 강과 언덕 건너고 넘어 끝없이 뻗어나가는것이구나.》라고 노래함으로써 전선주에 의탁하여 항일유격대의 자랑스러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려는 시인의 절절한 념원을 또다시 강조하였다.

작품은 산문시로서의 정교성과 세련성을 잘 보여주고있다.

세 단락으로 이루어진 짧은 산문시이지만 거기에는 많은 사연과 깊은 뜻이 담겨져있으며 하나하나의 표현, 문장마다에서 깊은 사색의 세계와 강

한 여운이 느껴지게 된다.

운율도 잘 살려 읽는대기보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읊어지는 시로서의 특성도 강하게 나타난다.

더우기 내용전개에서 설명이나 서술식문장표현은 전혀 없고 체험세계의 모든것이 뜨거운 정서의 흐름에 실려 시적으로 펼쳐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운율성과 음악성을 강하게 느끼게 함으로써 산문시로서의 높은 예술적경지를 훌륭히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시인은 자기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의 의로운 모습을 심장에 새기고 손에 총을 잡고 일제와 싸우는 항일혁명투사들의 형상을 예술적으로 훌륭히 재현하였다.

시인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은 일제의 압박한 통치속에서도 밝게 비쳐드는 해빛이었고 희망을 안겨주는 등대였다.

산문시 《전선주》는 해방전 항일무장투쟁을 반영하여 창작된 진보적시문학의 의의있고 가치있는 작품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항일무장투쟁의 현실과 조선인민혁명군을 직접 노래한 혁명성이 강한 작품인것으로 하여 해방전 시문학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어 문학사적으로 가치가 크다.

허 왕 진